

푸른 마을

다섯번째 글모음집



성남시중앙문화정보센터

탐천의 전경



탐천의 가을



탐천의 여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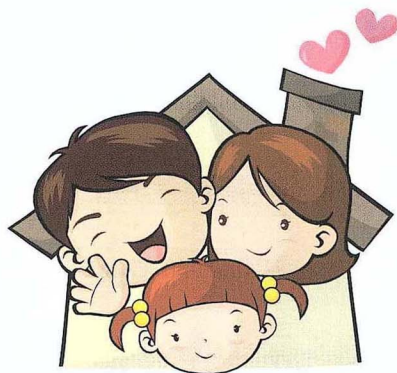


들 마을

들마을은 분당의 옛풍경을 떠올린 이름입니다.
 탄천을 중심으로 마을과 마을이 어우러져 있던 분당의 특성을 따서
 들마을이란 옛스러운 이름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친근한 성남시 중앙문화정보센터(중앙도서관, 분당분관)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서관 헌장

1. 도서관은 누구에게나 유익하고 공정한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인류문화 발전에 이바지 한다.
2. 도서관은 모든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므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데 이바지한다.
3. 도서관은 생활인의 터전으로서 지역사회 개발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
4. 도서관은 사회교육기관으로서 자주·자활할 수 있는 시민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한다.
5. 도서관은 국제문화의 교량으로서 상호간의 우의와 이해증진에 이바지한다.



어린이 독서교실 글모음

▶ '2006 겨울 독서교실 독후감 감상문

주 원 진	조금 늦어도 괜찮아	11
서 지 민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읽고	12
김 승 완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	14
이 수 빈	종이밥	16
이 주 영	루이 브라이	18
장 서 영	아주 특별한 우리 형	20
문 해 미	친구란 나에게 천사야	22
김 민 경	'밤티마을 큰돌이네 집'을 읽고	24

▼ 분당 겨울 독서교실

김 세 연	장애를 딛고 선 천재화가 김기창	26
윤 소 정	개와 사람의 우정	28
부 은 형	우리는 하나	30
전 하 은	성공을 위해 하는 것	32
김 민 희	영원한 육이의 명찰	34

▶ '2006 여름 독서교실 독후감 감상문

유 지 원	두명의 유진, 두개의 마음	35
이 선 아	멋의 나라 프랑스	36
허 해 원	양파의 왕파 일기	38
김 동 희	스콜피언	41
박 세 영	베토벤	42
이 성 우	우리 역사 속 나라들을 찾아서	44
김 정 태	당신을 용서합니다.	46
정 윤 지	생명이 들려준 이야기	47

▼ 분당여름독서교실

김 정 은	페터 헤르틀링씨께	48
-------	-----------------	----

조 아 진	모네의 정원에서	50
김 하 연	사랑의 가족	52
이 누 리	'어린왕자'를 읽고	54
이 세 원	콩달이의 집이 없어졌어요.	56
김 나 정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를 읽고	57
유 연 주	신비한 바닷속 생물이야기	58
권 혜 민	참다운 행복이란 무엇일까?	59
김 나 정	어진이의 농장일기	60

꿈나무 백일장 우수작

▶ 산문부문

김 민 정	진정한 행복이란(오뎅상)	63
김 남 희	그리운 내 소중한 친구 발바리(버금상)	68
김 민 정	엘리제를 위하여(달림상)	71

▶ 운문부문

이 유 진	그리움(오뎅상)	74
정 예 랑	행복(버금상)	76
이 슬	그리움(달림상)	78

독서회원 글모음

▶ 어린이 독서회

이 윤 서	납작이가 된 스탠리	83
-------	------------------	----

Contents

김 연 승	떡볶이 따라 몸속 구경을 읽고	84
김 현 우	내가 읽은 옛이야기 발표해 보기	85
한 다 진	쿠린 방귀를 이상하게 맡은 내 짝궁	86
황 희 정	오줌 마려울 때	87
김 민 정	산타할아버지	88
김 민 정	경주 남산을 다녀와서	89
정 혜 정	'비' 보다 우리 아빠를 더 사랑한 엄마	90
문 지 원	사람	91
김 광 일	정우열	92
이 예 린	가을산에서	93
박 상 윤	가을산에서	94
임 재 희	겨울	95
설 예 원	하나가 된다는 것은...	96
이 예 현	은행	98
이 예 린	꽃의 슬픔	99
이 수 경	환경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100
김 난 경	'외톨이 두더지 우화'를 읽고	101

▶ 주부 독서회

박 선 민	아름답게 미친(?)사람들	102
이 선 우	'지빠귀부리 왕'에 나오는 인물에 대한 생각과 이해	104
김 미 경	마당을 나온 암탉	106
이 경 수	책이 없는 나	108

▶ 강 사

이 정 진	어린이 독서회 1년을 마치며...	110
임 경 애	도서관과 이야기 할머니의 만남	112
정 은 해	저무는 해를 안고 있는 가을 단풍을 보면서	114
우 현 주	두 친구	116
정 혜 경	꿈을 심으며	118

문화교실 글모음

이 현 선	일본어 강의를 듣고 난 소감	123
이 성 재	생활중국어 수강생	124
강 승 희	생활일본어 반을 수강하며	126
임 경 미	생활일본어를 들으며	128
안 용 주	일상에서의 의식 수준의 변화에 대한 단상	130
허 경 옥	나의 사랑하는 생활	134
박 미 숙	가르치려고만 애썼던 날들	136
김 두 복	다시 시작하기	137
김 민 헤	어린이 논술 1	138
이 현 기	어린이 논술 2	139
김 혜 영	우리 할머니	140
장 효 진	엄마 왜 그래요?	142
이 경 헤	서른여덟살의 가을	145
장 혜 영	내 마음의 거울	146
반 정 헤	세월속의 삼대	148
나 순 애	행 복	150
김 혜 경	주류와 비주류	152
	버림받는 일이 없는 세상	155

▶ 문화교실 강사

장 영 진	책이 주는 치유의힘	158
정 수 현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162
김 종 필	생활일본어 시간에 뭘 배워요?	164
이 선 화	우리의 생활에 다가와 있는 중국어	166
조 혜 숙	귀여운 학생	168
김 영 자	사랑은 오래 기다리고...	170
최 영 옥	질문에 대한 답변, 답변에 대한 의문	172

Contents

도서관 사진

도서관 이모저모	175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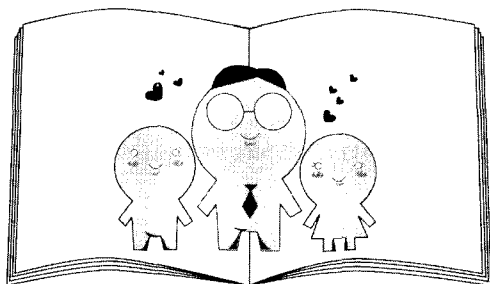
중앙문화정보센터 이용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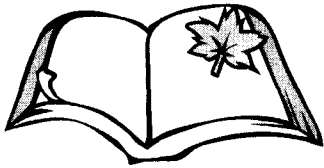
중앙문화정보센터 연혁	197
시설규모	197
주요시설 및 배치도	198
장서현황	199
이용시간안내	200
자료 대출회원증 발급안내	201
자료기증안내	202

우수도서 목록

우수도서 목록	203
---------------	-----

어린이 독서교실 글모음





조금 늦어도 괜찮아

양영초등학교 4학년
주원진

이 책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 아이가 운동회 때 열심히 달리기를 하여 조금 늦어도 괜찮다는 이야기이다.

사람들은 장애인들을 특별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장애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다. 우리와 움직이는 것이 다를 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모른다. 그래서 다른 장애인들은 이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 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자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금 늦어도 괜찮아’는 아마 우리들에게 소중한 것을 알려줄 것이다.

이 책의 주인공은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바로 해바라기이다. 이 해바라기도 장애인 아이와 비슷한 처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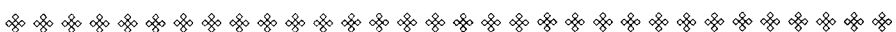
원래 뿌리를 내려야 할 해바라기씨가 돌 틈에 끼어서 뿌리를 못 내리고 있다가 여름에 비가 올 때 겨우 땅위로 내려와 늦게 뿌리를 내리지만 늦어도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라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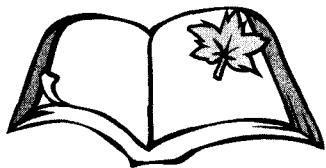
나는 이 이야기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았다.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를 것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의식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이 책의 제목을 보았을 때 왠지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책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 를 읽고

성남장안초등학교 4학년
서지민

안녕, 나무야? 난 지민이야.

나는 어머니께서 이 책을 추천해 주셔서 읽게 되었단다.

나는 솔직히 처음에 네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 그 소년에게 모든 것을 줬잖아.

음... 내가 책을 읽을 때 네가 행복하다고 나왔었잖아. 하지만 정말 모든 것을 다 주고는 행복할 수 없었을 것 같아.

그리고 소년이 어렸을 때 너와 같이 놀 때는 아주 행복했을 거야.

만약 나라면 소년에게 사과와 나뭇가지, 몸통을 선뜻 주지는 못했을 거야. 그리고 소년이 계속 필요하다고 했을 때 아주 약간 싫증이 났지?

또, 소년이 오지 않았을 때는 외롭고 쓸쓸하고 배신감을 느꼈을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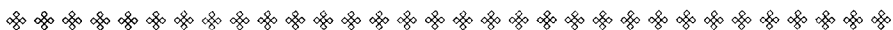
나도 그래. 집에 나 혼자 있을 때나 친구랑 안 놀 때 배신감과 쓸쓸함을 느꼈어. 나중에 소년이 늙어서 남은 밑둥에 앉아서 쉴 때 너무 감명 깊었어.

너도 늙었고, 모든 것을 소년에게 바치고 남은 밑둥을... 자신의 몸을 던져서 소년에게 주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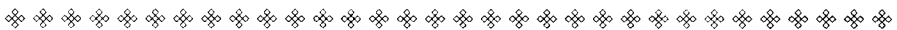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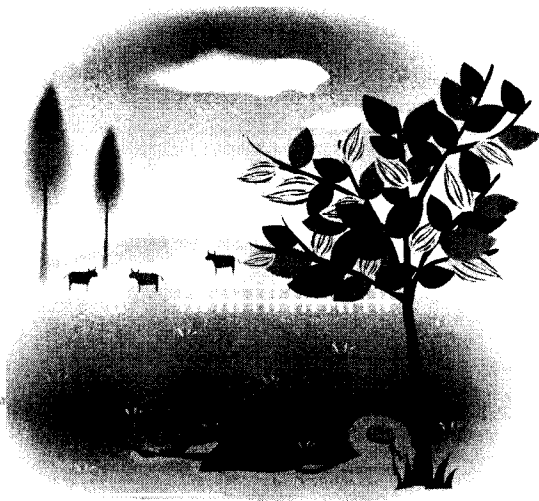
참 훌륭한 모습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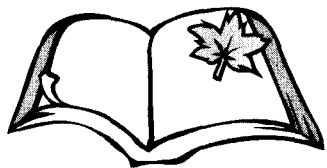
그러나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깊은 우정이 아닌가 싶어.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온몸을 던져서 나눠 준 적은 없어. 나만 생각하고 또 그럴 자신조차 없었는데 나도 이제 좀 베풀어 주고 나눠주고 이해해주려고 노력할거야.



이 책은 나에게 많은 교훈과 감동을 줬어.
영원히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감동과 교훈을 주길 바래.
마음씨 착한 나무야...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

중탑초등학교 4학년
김승완

안녕, 키라야? 나는 네가 12살에 스스로 부자가 된 이야기를 읽은 승완이라고 해. 나는 너의 이야기를 도서관에서 친구의 권유로 읽게 되었어.

먼저 너의 이야기가 있는 책의 표지는 정말 재미있어 보였어. 나는 네가 개 ‘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

여러 마리의 개들에게 괴롭힘을 받다가 키라, 바로 네가 구해줄 때 정말 걱정됐어. 다칠 수도 있었잖아.

너의 이야기는 참 재미있기도 하였지만 너와 같이 거위를 기르는 (물론 거위는 저축을 말하지!) 아이로서 참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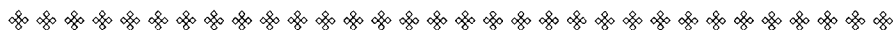
물론 이것은 너의 이야기를 본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 이야기의 교훈을 말해볼게. 아마도 너의 이야기는 ‘저축을 많이 하고 경제생활을 익히자’인 것 같아.

이 교훈대로 지금부터라도 경제생활을 익히고 저축을 많이 해야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할 것.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준 것이 바로 너의 이야기인 것 같아.

아무리 가난하고 용돈을 적게 받아도 그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더욱 아끼고 더욱 많이 저축을 할까? 라고 먼저 생각한 너를 꼭 본받아야 할 것 같아.

사실 나는 용돈을 받으면서 생활하진 않아. 하지만 그러면 어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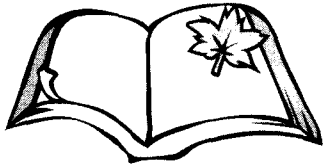
내가 더욱 커서 어른이 되어 생활할 때 너의 방법을 본 받으면 되는 걸.

참! 물론 거위도 한 마리 키울 거야. (다시 말하지만 거위는 물론 저축을 뜻하지!)

경제가 뭔지, 어떻게 돈을 사용할지 전혀 모르던 나에게 너의 이야기는 많은 도움이 되었어.

꼭 너의 말대로 생활하고, 실천할게. 고마워, 그럼 안녕!





종이밥

4학년
이수빈

나는 별로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 하지만 종이밥을 읽고 나서 마음이 바뀌고 생각도 바뀌었다.

먼저 이야기의 줄거리는 송이와 오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겪어 나가는 슬프고도 희망적인 이야기이다. 이 책을 읽고 가족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 가족 중 한사람만 없어져도 그 남은 가족들은 슬픔에 잠기게 되기 때문이었다.

송이네 가족은 매달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송이를 절로 보내기로 한다.

송이는 할머니가 사주신 빨간 곰돌이 푸우 가방에 옷가지들을 잔뜩 집어 넣고 할머니와 함께 절로 출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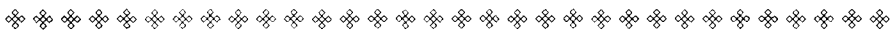
송이가 가고 나자 할아버지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천장만 바라보았다. 이 부분에서 진한 감동과 가족의 의미를 느꼈다.

가족 없이는 웃음과 행복은 없다고, 할아버지는 자신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송이가 없어지자 슬픔에 잠기고 만다.

그리고 송이의 오빠는 송이가 오기를 빌고 또 빈다. 아마 가족 중 일원이 빠지면 케이크에서 생크림이 빠진 케이크처럼 무언가 허전함을 느끼는 걸 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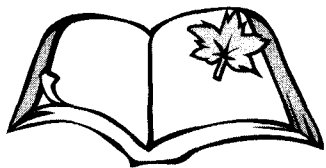
엄마도 내가 캠프나 수련회를 가서 2박 3일 동안 떨어져 얼굴도 보지 못하고 있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시끄럽게 떠들던 네가 없으니 까 아빠도 허전하다 하셨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 같다.

송이가 절에 간지 약 4일 후 할머니는 송이를 데리고 집에 온다.



그래서 왜 왔냐고 물어보니 나도 모르게 송이를 데리고 나왔다고 말한다.





루이 브라이

돌마초등학교 4학년
이주영

나는 매일 장애인에 대해 많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은 뒤 나는 최고라는 생각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점자를 만든 눈먼 소년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인데 잘 들어 보세요.

한 눈먼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이 살던 당시 눈먼 사람들은 읽고 쓸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눈먼 사람들을 위한 글자가 없었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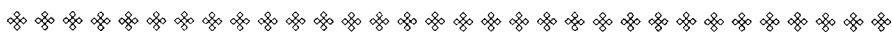
그러나 소년은 책을 어떻게 해서든 읽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 일까요. 소년은 마침내 눈먼 사람들을 위한 글자를 만들기로 다짐했습니다.

3년 뒤, 드디어 송곳으로 새기는 글자 즉, ‘점자’를 완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써 눈먼 사람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눈먼 사람들의 역사에 새로운 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후 소년은 눈먼 사람들을 지식의 세계로 안내하는 ‘큰빛’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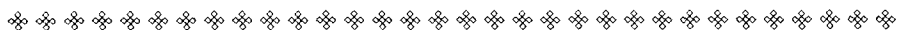
이 소년의 이름은 ‘루이 브라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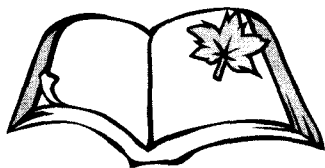
나는 나도 시각장애인이 되지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내 미래도 무사히 갈 수 있게 해 줄 사람이나 마찬가지로인 루이 브라이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눈 먼 사람들도 공부를 할 수 있고, 책을 읽을 수 있게 해준 루이 브라이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은 만큼 또 다른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이 브라이에게 고마운 마음과 또 우리 지구 온 나라에서
눈이 먼 사람들이 없어져 우리 사회가 밝아지고 시각장애인 뿐만 아
니라 모든 장애인에게 ‘최고’라는 말을 건네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내가 장애인을 불쌍하게 여기는 이유는, 사람들은 늘 사고의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은 모든 시간을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대상에는 온 세상의 모두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이런 조그마한 말이라도 장애인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
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우리 형

상탑초등학교 4학년
장서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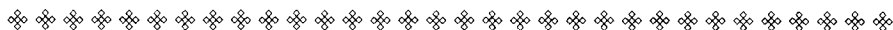
이 책은 어느 한 뇌성마비 장애인을 주인공으로 삼은 책이다.

장애인이란 누구든지 만나기 부담스럽고 이 세상에 뒤쳐지는 사람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고 우리들은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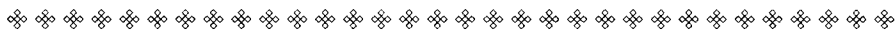
하지만 이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형 종식이와 철없는 어린 동생 종민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들은 장애인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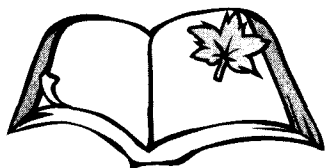
종민이라는 철없는 꼬마 아이가 갑자기 나타난 형 종식이를 만난 것 으로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종민이는 아마 이상하고 괴물처럼 생긴 이 낯선 사람이 자신의 형이라니, 깜짝 놀라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심지어 종민이는 부모님께 형 종식이만 좋아하고 보살피는 것을 보며 맘을 상하게 되고 가출까지 하게 된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으로 돈까지 잃어버리자 종민이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다.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것이며 자신의 특기인 컴퓨터를 사용해 종민이의 친구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종식이를 본 종민이는 서서히 종식이에게 마음을 열어간다.

그 후 종식이와 종민이는 여러 가지 일로 가까워지기 시작한다. 또한 종민이가 종식이를 온몸을 바쳐 구한 후 둘은 더 친해진다. 그 후 종식이의 사연을 알게 된 기자들이 모여들고 종식이는 검정고시에 합격하게 되었다. 나는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종식이가 너무 대단했다.



또한 종식이가 썼던 수기, ‘나의 십자가’라는 글이 특히 감명 깊었다. 만약 이 세상에 종식이가 단지 동화책의 주인공이 아닌 실제 인물이었더라면 위로도 해주고 중민이처럼 같이 산책도 했을 것이다. 난 이 책을 읽고 많은 교훈을 얻었다. 이 책을 써주신 고정욱 선생님이 너무 감사하다.





친구란 나에게 천사야 - ‘넌 아름다운 친구야’ 를 읽고 -

양영초등학교 4학년
문해미

나에겐 아주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짝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중한 친구들을 한 순간에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병... 전염병에 걸리면... 나도 만약에 걸리게 되면 친구들이 떠날까?’ 하는 의문도 생겼습니다.

미우는 희망농장에 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옛날 희망농장은 아무도 살지 않았는데 산에 밭을 만들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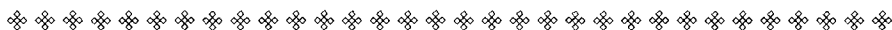
하지만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사는 동네가 되어 버렸습니다.

‘무슨 일이지?’

아이들이 살지 않다 보니까 미우와 사귄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심심했습니다. 그나마 딱 한명! 용호 형마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희망농장에 이사 온 사람들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다시 이사를 갔습니다. 미우도 아직까지 왜 그런지 모르고 있습니다.

미우는 5학년이 되었습니다. 반갑게도 다슬이와 정민이라는 아이가 전학을 왔습니다. 다슬이는 자기 소개도 잘하는 아이였고, 정민이는 싱겁게 댄스가수가 꿈이라는 말만 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정민이가 미우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민이가 희망농장에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서로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슬이가 몰래 선생님의 수첩을 훔쳐보게 되었습니다. 미우 옆에 ‘미감아’ 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미우는 집으로 곧바로 달려가 국어 대사전을 뒤졌습니다. ‘문둥병에 걸리지 않은 아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문둥병이라는 병은 전염병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더욱 슬픈 일은 문둥병이라는 말을 들은 친구들은 미우 곁에서 떠났습니다.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이렇게 심한 마음고생을 하다가 식중독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슬이의 엄마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엄마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여쭙어 보았습니다.

“엄마, 문둥병이 윙아요?”하고 여쭙어 보았더니 요즘엔 윙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다슬이는 곧바로 미우에게 가서 미안하단 말을 전하고 다시 친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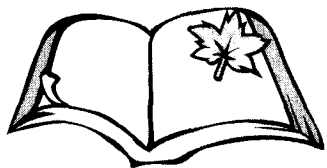
이렇게 친구는 정말 소중한 친구로 인해 병을 낫게도 하고 걸리게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학년 때 친구 중 아토피에 걸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열굴이며 손이며 모두 부스럼 같은 염증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친구들은 “재한테 가지마. 윙아.”하며 슬슬 피하곤 했습니다. 나도 은근 슬쩍 피하였습니다.

그때 그 친구의 마음이 미우와 같았을 거란 생각을 하니 다시는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티마을 큰돌이네 집’을 읽고

분당초등학교 4학년

김민경

영미에게...

영미야, 안녕? 난 분당에 사는 김민경이라고 해. 난 네가 참 부러워. 비록 가난하긴 하지만 좋은 오빠가 있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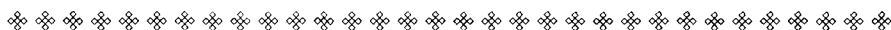
난 언니와 동생밖에 없어서 오빠가 있는 친구를 참 부러워 해. 너의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 받았어. 오빠를 그렇게 생각하고 챙겨 주다니...

나와 우리 언니와는 다른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 큰돌이도 네가 있을 때는 때리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했지만, 네가 부잣집으로 간 후에 얼마나 후회했는데...

난 네가 새엄마, 새아빠와 서울로 이사 간다고 했을 때 나 솔직히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차라리 고생하기 보다는 이사 가는 것이 더 좋은 방법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어. 그런데 마음씨 착한 어머니와 아버지가 좋은 결정을 해 주신 것 같아. 과연 나라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난 못 할 것 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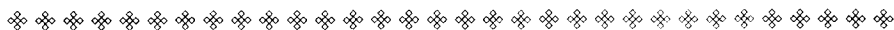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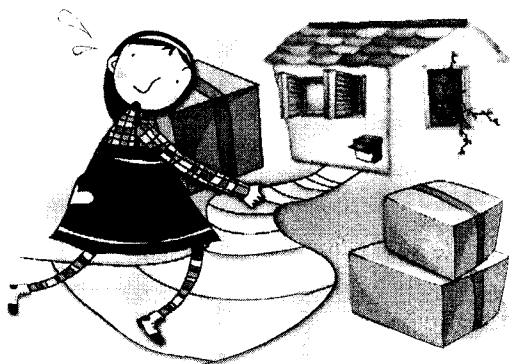
하지만 ‘견리사의(見利思義)’라고 먼저 그 일이 정의로운 것인지 한번 더 생각하고 나에게 약간의 피해가 있어도 옳은 결정을 하도록 노력해 볼게.

너를 통해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부탁할 게 있어. 어머니 즉, 큰돌이가 팔쥘 엄마라고 부르는 분께 감사하다고 말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큰돌이와 아버지를 잘 보살펴 주셨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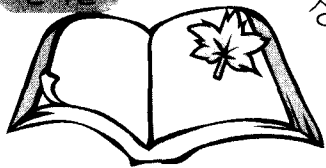


그리고 앞으로 가족과 함께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 보내.
마지막으로 곧 있으면 나오게 될 ‘밤티마을 영미네 집’ 기대할게.
꼭! 행복한 시간 지내는 걸로 알게. 안녕~

—분당에 사는 민경이가 밤티마을 영미에게—



편지글



장애를 딛고 선 천재화가 김기창 - 훌륭하신 김기창 선생님께 -

한솔초등학교 4학년 3반
김세연

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글짓기 시간에 선생님에 대한 책 한 권을 읽었어요. 안타깝게도 선생님은 청각장애인이셨어요. 하지만 진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신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그림을 그리신 것 중에 저는 만원 짜리 지폐 속에 있는 세종대왕 초상화를 보고는 정말 깜짝 놀라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난 우향’이라는 그림을 보고는 배가 아팠습니다. 왜냐구요? 너무 이상하고 재미있게 그리셨기 때문이에요. 비록 선생님께서는 청각장애를 극복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선생님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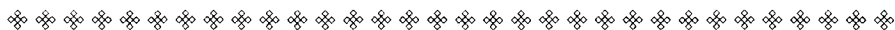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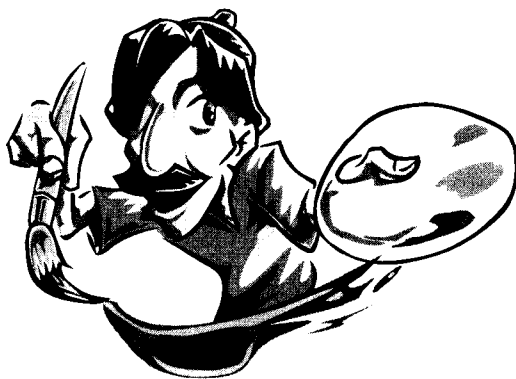
저희 학교에도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친구를 동생처럼 아껴주고 없어진면 걱정이 되어 찾아보곤 해요. 또 선생님께서 그리신 화가 난 ‘우향’을 보니 선생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도 잔소리꾼이거든요. 사소한 일에도 잔소리 하시고... 저는 작년에만 해도 이런 엄마가 ‘새 엄마야’ 하며 의심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런 엄마가 꼭 나쁘지만은 않아요. 잔소리하는 것은 저의 버릇을 고쳐주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냐면 엄마께서는 제가 우울한 일이 있으면 항상 어깨를 빌려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계시지 않았다면 전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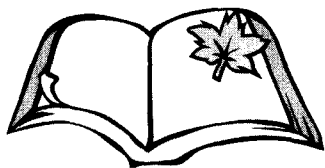
전 선생님도 훌륭하시지만 선생님의 어머니도 참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참 기쁩니다.



저는 아무 장애도 없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더욱 더 노력하는 세연이
가 될 게요. 선생님의 전시회가 있으면 꼭 한 번 찾아가 볼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2005년 1월 5일 김세연 올림





개와 사람의 우정 - ‘조금만, 조금 더’ 를 읽고 -

한솔초등학교 4학년 2반
윤소정

이 책은 로키산 전설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이다. 어린 아이인 윌리와 나이든 개 번개가 할아버지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개썰매 대회에 참여하게 된다.

이 이야기를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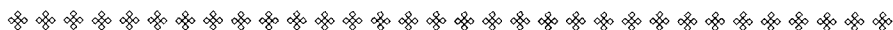
윌리는 할아버지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병에 걸렸다. 윌리는 감자 농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번개와 농사를 짓는다. 윌리가 할아버지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농사를 짓던 장면에서 번개가 곡괭이를 끌 때, 고개를 가웃거렸다. 개가 농사를 짓는다니 말이다.

그러던 중 와이오밍주 관리인 ‘클리포드 스나이더’가 와서 세금을 내라고 요구한다. 윌리는 500달러의 돈을 갚기 위해 은행에 도움을 청하지만 거절한다. 스나이더가 올 때는 왜 왔을까 했다.

500달러라니... 어린애와 늙고 병든 할아버지보고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조금 치사한 것 같다.

내가 윌리의 친구라면 당장 가서 도와줄 것이다. 아니 꼭, 도와주어야 한다. 우연히 개썰매 대회 광고지를 보게 되는데, 우연의 일치였는지 마침 우승상금도 500달러였다.

그래서 윌리는 대회에 참가한다. 얼음거인도 출전을 하는데 그 사람은 대회 때마다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인디언이다. 윌리는 열심히 연습을 한다. 윌리가 번개를 데리고 썰매코스를 달릴 때 ‘어떤 기분일까?’ 라고 상상해 보았다. 웬지 모르게 가슴이 시원하게 구멍이 뚫리는 것 같다.



월리는 출발선에 선다. 경주가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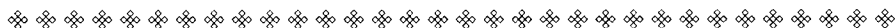
월리와 번개는 한명, 한명을 제치고 선두로 달리기 시작했다. 얼음 거인도 직선이고 평평한 길이 나오자 사모예드를 데리고서 서서히 속력을 내기 시작하였다.

생각해보니 얼음거인도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나 보다. 진을 덜 뺐다가 나중에 빨리 가는 것 말이다. 얼음 거인이 월리를 뒤따라 잡으려고 하자 월리는 더욱 더 속력을 내기 시작했다. 결승점에서 30m 떨어진 지점에서 번개의 심장이 터져 죽는다.

월리는 울었다. 얼음 거인은 그 모습을 보고 월리가 1등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장면을 보고 눈시울을 붉혔다. ‘얼음거인이 겉으로는 차가워도 마음만은 넓고 따뜻한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이 책을 읽으며 울기도 했고 침을 꿀꺽 삼키며 책장을 넘기기도 했다. 개와 사람의 따뜻하고 끈끈한 우정과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손자의 애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하나 - ‘휠체어를 타는 친구’를 읽고 -

성남미금초등학교 4학년 6반
부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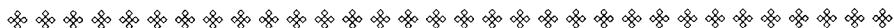
장애인 친구와 한 소녀가 같이 놀러 다니며, 어울리고 다닌다. 결말에는 다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다른 소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되는 이 이야기다. ‘줄프리트 뵁’이라는 작가가 쓴 감동적이고, 친구와의 우정을 일깨워 주는 책이다.

넬레가 발덴부르크 라는 지역에 살다 와서, 제시카라는 친구를 못 잇고, 새 친구를 사귀는 일이 흥미 없는 일이라며 새 이웃을 사귀자는 아빠 제안을 꺼려했다. 만약, 내가 넬레였다면,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새 친구 사귀는 일을 바람직하게 여겼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키르스텐과 함께 어떻게든 친해지려고 할 것이다. 혼자 토라진 채로 집 밖을 나온 넬레는 아빠께서 말씀하신 이웃 집 문 앞에 UFO, 세발자전거와 비슷하게 생긴 꼬마 자동차를 보고 너무 타보고 싶어 했다. 그 다음날 엄마께서 아기 때문에 키르스텐 집에 가게 되었다. 키르스텐과 친해진 넬레는 키르스텐에 자주 다니며 키르스텐과 노는 것을 좋아했다.

난 욕심이 많은 편이다. 그래서 내가 그 꼬마 자동차를 보았더라면 아빠한테 사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래도 넬레는 꼭 참고 다음날까지 기다린 행동으로 봐서 넬레는 인내력이 강한 아이인 것 같다고 느꼈다.

어느 날 비가 와서 키르스텐 집에서 장미 아가씨 놀이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휠체어 때문에 둘은 사이가 안 좋아져서 싸움이 일어났다. 키르스텐과 넬레가 싸우니까 내가 친구와 싸운 것처럼 언제 화해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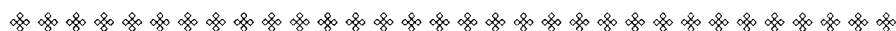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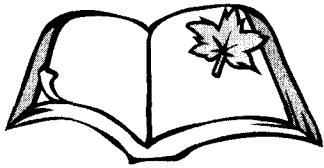
조바심이 생겼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 단계 앞서 생각하게 되었다.

마지막에 키르스텐은 어떻게든 꼭 한 번 넬레랑 같은 학교에 다녀보려고 넬레네 가족이랑 키르스텐네 가족, 또 친구들과 토론을 하여 친구들의 도움으로 넬레와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키르스텐의 용기를 본받아야겠다.

자기가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일반인들과 같은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생각과 실천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전인 것 같다.

이 책은 많은 교훈을 주었다. 사람들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장애 체험을 해 보았으면 좋겠다. 장애인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하지만 장애인을 싫어하는 마음은 부끄러운 것이다. 장애인에게 이웃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성공을 위해 하는 것 - ‘꽃들에게 희망을’ 읽고 -

수내초등학교 4학년 1반
전하은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은 짧으면서도 깊은 감명을 주는 것 같다.

이 책의 저자인 트리나 폴러스는 26년간 200만부가 팔린 ‘꽃들에게 희망을’을 펴낸것 외에도 국제여성단체인 그레일 회원으로 14년간 일도 했고 대리석 조각도 한다. 다재 다능한 작가이다.

한 애벌레가 있었다. 그 애벌레는 인생에서 먹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른 걸 찾기로 했다. 가다가, 애벌레들의 기둥을 보고 ‘그 위에 무엇이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간다.

그곳에서는 친구도 없다. 친구는 단지 올라가는데 방해만 되는 존재였다. 참 무서운 곳이란 생각이 들었다. 만일 나라면 이 외롭고 험한 곳에서 단 하루도 못 버티고 빠져나왔을 거란 생각이 든다. 친구란 살아가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기 때문이다.

다른 애벌레들을 밟고 무자비하게 올라가던 중, 그는 노란색 애벌레를 만나는데 노란 애벌레를 밟고 올라가다가 죄책감 때문에 줄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나는 이 줄무늬 애벌레가 그중에서 빠진 것이 참 잘 된 일이라고 생각된다.

나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애벌레가 다신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줄무늬 애벌레는 노란 애벌레와 행복했지만 그 행복은 오래 가지 못했다. 줄무늬 애벌레의 꼭대기에 대한 열망으로 줄무늬 기둥에 오른다.

정말 어리석은 짓인 것 같다. 노란 애벌레가 불쌍해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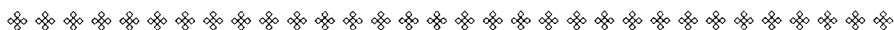
한편 노란 애벌레는 줄무늬 애벌레를 기다리다가 늙은 애벌레를 만나 고치가 되어야 나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결국 고치가 되어 나비가 된다. 한편 줄무늬 애벌레는 서로를 밟으면서 꼭대기에 도착하지만 거기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읽고 큰 좌절을 느끼고 나비를 보곤 기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날아서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 나비가 노란 애벌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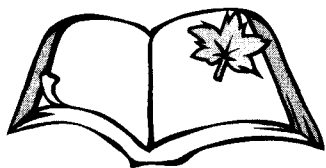
결국 줄무늬 애벌레도 나비가 되어 날아오른다.

이 책을 읽고 처음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줄무늬 애벌레가 한 행동이 ‘성공을 바라는 사람의 행동’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였고 하지만 성공을 해도 마지막에 얻는 것은 자신이 느끼기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우리 모두 더 좋고 새로운 것을 원하지 않으면 발전은 없겠지만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노력해서 성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영원한 옥이의 명찰 - ‘영원한 주변’ 을 읽고 -

한솔초등학교 4학년 2반
김민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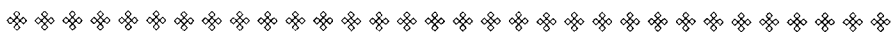
나는 ‘영원한 주변’이라는 책을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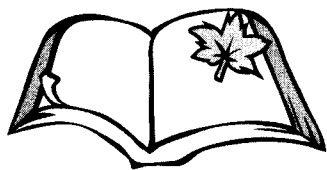
옥이는 주변 명찰을 받을 때 기대가 되었다. 그런데 6명이나 남았는데 명찰은 2개 밖에 없었다. 옥이는 안절부절 못하다가 결국 못 받고 말았다. 나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되었다. 그렇게 명찰이 중요한가? 하고 말이다.

다음날 옥이는 기태의 주변 명찰을 보았다. 옥이는 이상하다?! 기태는 어제 안 받았는데? 그래서 옥이는 기태에게 ‘야! 그거 어디서 났어?’ 그러자 기태는 ‘나는 시장에서 맞췄다’고 했다. 2천원이라면서... 그래서 옥이는 내가 천원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바꾸자고 하니까 바꿨다. 내가 만약 기태라면 주변 명찰을 안 바꿀 것 같다.

그리고 나서 옥이는 자랑스럽게 명찰을 달고 오다가 중학교 2학년인 형을 초등학교 학생으로 보고 제멋대로 굴었다. 그러고 보면 옥이는 자기 멋대로 이다. 목숨을 걸고 기태에게 함부로 하고 걸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옥이는 안 좋은 것 같다. 주변은 뭐가 좋고 자세하게 무엇을 해야 되지? 하고 궁금하기도 하다. 그렇게 까불던 옥이는 형한테 얻어맞고 길가에서 손들고 백까지 세라고 했다. 그래서 옥이는 무서워서 백까지 다 세고 갔다.

나 같으면 그 형이 가서 안보이면 도망갈 것 같다. 나도 만약 옥이였다면 무서워서 울 것 같고 나는 애초부터 안 대들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옥이가 불쌍하고 형이 나쁘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옥이가 살짝 대든 것 가지고 그러는 것은 조금 나쁜 것 같다.





두명의 유진, 두개의 마음

- ‘유진과 유진’을 읽고-

성남 장안초등학교 5학년

유지원

‘유진과 유진’이라는 책에서는 ‘성폭력’이라는 사건을 이용해 이름은 같지만 두 아이가 현실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사춘기를 지나친 소녀라면 한번쯤은 공감할 내용들...나 자신에게는 아직 사춘기가 온 것 같지 않지만 책을 보며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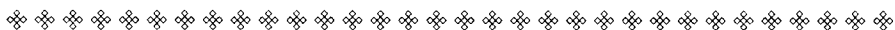
유치원에 다닐 때 똑같이 성폭력을 당했지만 그 일이 있고나서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라는 말을 들은 유진이와 단지 어른들의 생각만으로 꿈꿈 기억을 싸매어 두었다가 한꺼번에 터져 일명 ‘모범생’이라는 탈까지 벗어 던지고 담배에까지 손을 댔 유진이, 난 이렇게 한순간의 행동이 나중 타인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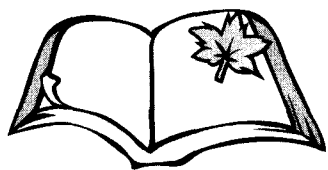
모든 비밀을 알았을 때 작은 유진이(내용 중 모범생 유진이)는 기분이 어떠하였을까? 부모님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은 부모님이 원망스러웠을 것이다.

나는 작은 유진이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작은 유진이의 부모님이 밋다. 책을 읽는 내가 이 정도인데 작은 유진이의 기분은 어떠하겠는가.

모든 어른들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어른들이 있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작은 유진과 큰 유진. 그리고 소라. 언제까지나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다.





멋의 나라 프랑스 - ‘프랑스’ 를 읽고 -

성남 이매초등학교 5학년
이선아

저는 세계의 문화에 관한 책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작가 ‘이어령’의 책을 통해 많은 나라의 문화를 간접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작가 이어령의 ‘생각이 열리는 세계 문화 여행’ 시리즈 중, 여덟 번째 나라인 ‘프랑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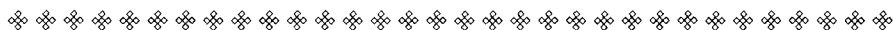
언젠가 저는 영국인들이 차분하고 조용하며 예의가 바른 반면, 프랑스인들은 활발하고 수다스러우며 낭만을 즐기는 여유로움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림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모네’ 같은 화가들은 엉뚱한 생각에서 예술이 태어난다고 믿었습니다. 정말 우습죠?

프랑스는 음식들도 독특합니다. 언뜻 프랑스인들이 달팽이를 먹는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에스카르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에스카르고’는 달팽이를 구워서 소스를 곁들인 요리입니다. 달팽이, 거위의 간, 송로버섯 따위는 프랑스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음식 재료라고 합니다. 또한, 프랑스인들이 즐겨 먹는 닭 요리로, 포도주를 넣어 끓인 것이 특징인 ‘코코뱅’도 있습니다. 정말 귀여운 이름이네요!

이 밖에도 많은 음식이 있지만, ‘프랑스 요리 정식 코스’가 단연 으뜸이라네요. 입맛을 돋우는 전채요리인 거위 간 요리, 바다가재로 만든 해산물 요리, 쇠고기를 구워 낸 육류 요리, 디저트로 나온 달콤한 케이크, 커피, 이렇게 다 먹어야 ‘프랑스 요리 정식 코스’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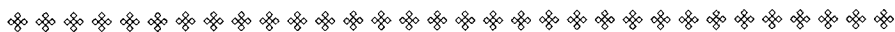
이상한 건 프랑스인들은 이런 음식을 놓아두고 대부분 대화를 나눈다고 하네요. 아주 수다스럽게 말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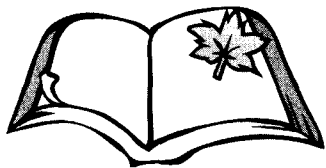
이런 프랑스 사람들은 약속을 목숨보다 중히 여긴다고 합니다.



한 허름한 차림의 남자와 무심코 약속한 것 때문에 도끼로 어린 아들을 반으로 나눠 버리려 했던 프랑스 동화의 주인공, 장 드 카레가 이런 프랑스인들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식까지도 예술이고 활발한 사람들의 나라인 프랑스.
원래 찾으려 했던 문화 그 이상의 것을 보여준 프랑스.
프랑스야 말로 진정한 멋의 나라가 아닐까요?





양파의 왕따 일기

야탑초등학교 5학년 5반
허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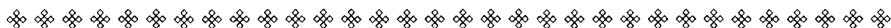
나는 이 책을 읽으며 왕따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리고 이 책은 나에게 왕따는 있어서도 존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정화이다. 아주 평범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이다. 정화는 4학년에 들어서 미희라는 친구와 같은 반이 되었다. 미희는 정화와 달리 인기 많고 유행을 자주 일으켜 친구들이 아주 많은 아이였다. 양미희. 미희와 어울려 다니는 애들을 정화와 반 친구들은 양파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미희의 성이 양씨이기 때문이다. 주변 아이들은 양파와 미희를 왕처럼 대했다. 정화 역시도 그랬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왜 저 아이들은 저렇게 하지? 나는 궁금증이 생겼다. 하지만 나는 저 아이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잘 알고 있다. 저 아이들은 대부분 용기가 없다. 그래서 인기있는 친구들과 어울려 친구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거나, 인기가 많아지고 싶다는 욕망 때문이다. 물론 내 말이 틀릴 수도 있다.

나는 뭐 하나 다를 것이 없다. 인기가 있는 친구들과 어울려 같이 놀고도 싶고, 친구들의 관심도 받고 싶다. 인기있는 친구와 놀면 아이들의 시선부터가 달라진다. 저 아이는 인기가 있는 친구와 노네. 그럼 아이들은 그 애를 갑자기 특별한 아이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니까 양파는 정화와 친구들의 연예인과 마찬가지로 썸이다.

정화는 미희 대신 별도 받고 양파에 들고 싶어 갖가지 노력을 다 한다. 맞다. 나도 한때는 그랬다. 매를 맞지도 않고, 그 애가 시켜서 무



얼 사다주지도 않았지만 그냥 그 애에게 잘 보이면 될까? 하는 생각에 그 애가 준비물을 가끔 안 갖고 오면 이따금씩 빌려주기도 하였다.

정화와 나는 정말 비슷한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정화는 결국 이렇고 해서 양파에 들어갔지만 양파는 정말이지 답답했다. 양파 애들은 미희를 완전 왕비처럼 모셨다. 거기에다 미희는 더욱 나빠져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애는 다 왕따시키고 괴롭히기 시작했다. 양파의 아이들은 정화를 반기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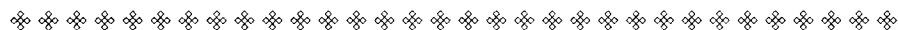
오직 정선이라는 착한 아이만 정화를 따뜻하게 대해 주었다. 정화는 미희가 원하는대로 다 사주어야 했기 때문에 하루에 돈을 엄청 많이 쓰고 미희의 꼭두각시처럼 일해야 했다. 그 때문에 정화는 부모님께 거짓말을 더 많이 하게 되었다. 정말 불쌍하다. 정화가 너무 안쓰러웠다. 이렇듯 인기가 별로 없는 아이들이거나 왕따인 아이들은 뭐든지 시키는 대로 허수아비처럼 바보같이 행동한다.

난 그런 것이 이제는 정말 싫어졌다. 정화를 꼭두각시처럼 부려먹던 미희는 인기투표에서 자기가 2등을 하고 정선이가 1등을 했던 것 단 하나 때문에 미희는 정선을 따 시키기 시작했다. 정화는 정선이가 이제는 미희보다 더 좋았기 때문에 마니또를 보내며 힘내라고 했지만 결국 정선은 전학을 갔다. 난 이 부분이 가장 인상 깊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가장 친한 친구를 떠나보내는 느낌...

난 이제 곧 그 느낌을 겪어보게 될 것이다. 나는 이번 방학 때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소운이와 유진이, 소현이를 두고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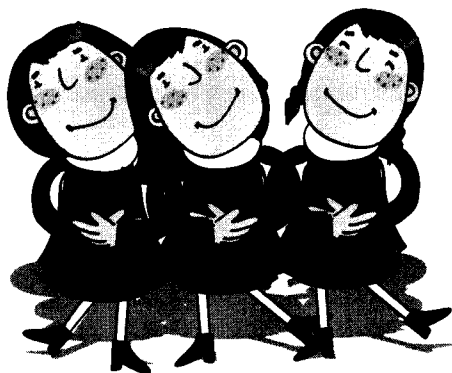
정말 가고 싶지 않지만 나도 곧 저렇게 된다니 정말 슬프기도 한 장면이었다. 그 후로는 정화는 미희의 심부름도 하지 않고, 왕따를 친구가 한다고 해서 자기까지 하면 안 된다고 깨달은 정화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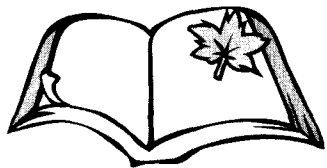
이 책을 다 읽고 나니 4학년때 같은 반이었던 송모씨와 하모씨가 생각났다. 송모씨와 하모씨는 여기에 나오는 왕따들과 좀 다른 이유로 되었는데 송모씨는 친구들에게 나쁜 말도 쓰고, 이기적이고, 잘난 척을 많이 했다. 또 하모씨는 이상한 말을 막 중얼거리고, 좀 어리숙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친구는 한 두명 밖에 없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며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반성해 보았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왕따라는 건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왕따 때문에 더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왕따를 당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용기를 내어서 당당하게 맞서면 새로운 나를 만들 수 있다고 난 말해 주고 싶다.

2006년 7월 26일
- 어느 집 편안한 거실에서 -





베 토 벤

5학년
박세영

나는 베토벤을 읽고 나서 정말 감동적이었다. 난 처음에 베토벤 같은 위인들은 그냥 공부만 잘 하거나 좀 대단한 일을 해서 그냥 위인이 된 것이라고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위인전을 읽어보니 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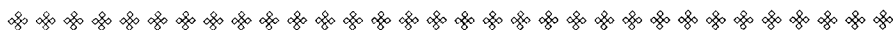
베토벤은 이름이 루트비히 관 베토벤이다. 베토벤은 1770년 12월 16일 독일의 본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술을 무척 좋아 하셨다. 베토벤은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 그런데 베토벤의 할아버지가 궁정 악장으로 일을 해서 베토벤도 음악을 배우기 위해 어릴적부터 다락방에서 피아노 연습을 날마다 연습했다.

루이는 아버지가 천재 모차르트로 만들고 싶어서 모차르트는 어릴 때부터 여행을 다녔다. 모차르트는 그것에 비해 더욱 더 많은 시련을 겪기도 한다. 어쩌다가 돈이 없어서 네페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받기도 한다.

그리고선 베토벤은 끝내 모차르트를 만나기도 하였다. 베토벤은 그 많고 많은 시련을 겪고 끝내 음악가가 된 것이다.

그만큼 노력을 나도 할 수 있다면 열심히 도전을 해서 꿈을 이룰거라고 믿는다. 진짜로 나도 베토벤처럼 지금부터라도 내 꿈인 연기자라는 것을 목표로 삼아 그것에 대한 공부와 연습 등을 하면 베토벤처럼 인기 많은 내가 될지도 모른다.

정말 나도 그렇게만 노력해서 될 수 있다면 난 정말 그렇게 해서 꼬옥 연기자란 목표를 달성해서 진정한 연기자가 될 것이다. 꿈을 잃지 않아야겠다. 위인이나 인기있는 사람이 되려면 정말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의지를 잃지 않게 끈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베토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베토벤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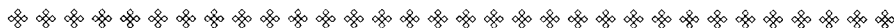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베토벤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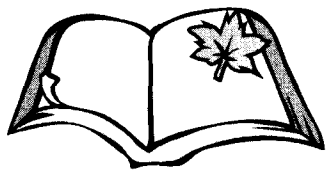
저는 분당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박세영입니다. 저는 당신의 열정에 정말 감동했어요.

목표를 잃지 않는 모습과 정말 힘든 일에도 불구하고 살아오신 그 모습에 반했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본받아 나의 꿈을 꼭 이룰 거예요. 정말 그런 열정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좋은 노래도 정말 감사드려요.

2006. 7. 26

세영올림





우리 역사 속 나라들을 찾아서 - ‘한국사 탐험대’ 를 읽고 -

안말초등학교 5학년
이성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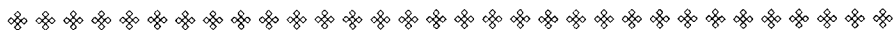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5명(선생님, 영찬, 지수, 광현, 재현, 혜리)은 그 안으로 들어가면 시간이 멈춘다는 불로문으로 들어가 시간 여행을 하게 된다.

그들은 불로문을 지나 고조선의 왕검성으로 도착하였다. 고조선에 도착하고 보니, 모든 것발에는 조선이라고 써져 있었다. 고조선이 아니고 말이다.

그 이유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그것은 삼국유사에서 단군의 조선과 이성계의 조선을 구분하기 위해 단군의 조선을 고조선이라고 불리던 걸 지금의 우리들도 부르는 것 뿐이라고 하셨다. 그러니 고조선 사람들 앞에서 고조선이라 얘기하면 알아듣지 못한다고도 말씀해 주셨다.

시장으로 들어서니 비단을 도둑질한 사람이 끌려가고 있었다. 주인공이 그들을 따라 가자 재판장에 도착했다. 재판장이 도둑에게 “너는 비단 주인의 노비가 되어라”고 말하며 노비가 되는 처벌을 내렸다. 시간이 되어 왕검성을 나오자 고려의 도성으로 오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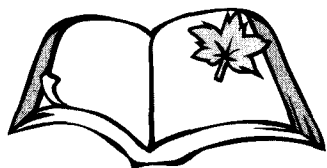
주인공들은 강감찬의 집으로 안내를 받았다. 강감찬 장군은 자긴 장군이 아니라면서 고려에서는 나라가 위급할 때 벼슬아치들도 같이 데리고 전쟁터에 나간다고 한다. 고려인들의 밥공기와 생활 그릇들 모두 섬세하고 세밀하게 잘 만들어 졌다. 또 주인공들은 강감찬의 집을 나오니 고종황제 즉위식이 열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거리에서 ‘만세’를 외치고 있었다. ‘만세’는 황제에게만 할 수 있는 말이라 한다. 왕이었을 때에는 백세나 천세를 불렀다. 그리고 고종은 나라 이



름을 대한민국으로 바꾸었는데 대한의 뜻은 모두의 뜻을 통일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이 책으로 역사의 현장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었고, 역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한번 더 알 수 있었다. 한국사에 대한 책을 한번 더 읽고 싶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 ‘노란손수건’ 을 읽고 -

장안초등학교 5학년 7반
김정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에 나오는 실화 노란 손수건은 교도소에 간 남편을 아내가 용서하는 이야기이다.

아내는 남편을 용서한다는 표시로, 노란 손수건을 어느 한 나무에다 달아놓았다. 4년간 교도소로 편지도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도 남편을 용서하는 아내의 사랑.

4년 후, 교도소에서 나온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있는 플로리다로 가게 된다. 플로리다에 도착하자 바로 앞에 나무가 있었는데, 수많은 손수건이 매달려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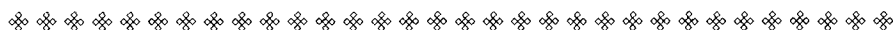
그 손수건의 뜻은 ‘당신을 용서합니다’라는 뜻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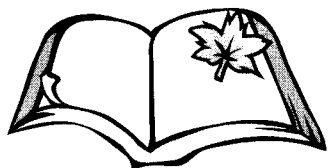
그 노란 손수건을 본 남편은 아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남편이 교도소에서 나온 후 나무에 있는 노란 손수건을 보고 감동받은 것을 보니, 나도 너무 슬펐고, 한편으로는 기뻐다.

아내도 남편을 용서하는 것을 보니 두 사람의 부부애가 정말 깊은 것 같다.

내가 만약 교도소에서 나온 남편이라면, 아마 그 노란 손수건이 달린 나무를 보고 감동만 받을 뿐만 아니라, 통곡하며 울었을지도 모른다. 아니, 아마 그랬을 것이다.





생명이 들려준 이야기

정윤지

나는 ‘생명이 들려준 이야기’라는 책을 읽기 전에 이 책의 내용을 상상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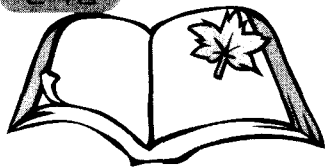
주인공의 마음 깊이에 있는 생명이 꿈 속에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줄 알았다. 하지만, 이 책을 다 읽고 나서는 ‘아, 이 책은 생명이 꿈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게 아니라 진짜 실제로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는구나’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돈으로 생명을 사려 한 영감’이라는 이야기에서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하였다. 돈독이 오른 부자 영감에게 젊은이가 생명을 판다고 속여 한달치 생명을 주고 돈을 받는 것을 계속한다. 생명은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것인데, 자신의 돈만 믿다니 정말 한심하다. 만약 내가 생명을 살 수 있다면 죄다 살 것이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지 마’라는 내용을 읽고 눈물이 나왔다. 오빠와 여동생은 추운 방에서 살고 있었다. 엄마는 아빠가 돈을 못 벌어서 집을 나가고, 손이 잘린 아빠는 술만 많이 마시다가 영원히 돌아오지 않으셨다. 동생은 오빠에게 “오빠는 하늘나라에 가지 마”라고 말했지만 동생과 오빠는 껴안고 죽었다. 연탄가스가 방에 퍼졌기 때문이었다. 이 내용은 정말 감동적이고 오빠와 동생이 불쌍해서 이때 내가 겪는 것처럼 눈물이 나왔다.

여러 내용을 읽다보니 ‘아, 이 책은 정말 감동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의 제목을 ‘생명의 여러 표정’으로 바꾸어 보았다. 감동적인 내용도 있고 재미있는 내용도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생명은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겠다.





페터 헤르틀링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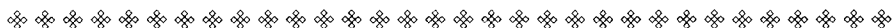
오리초등학교 5학년 5반

김정은

안녕하세요? 페터 헤르틀링씨?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김정은이라고 해요. 페터 헤르틀링씨께서는 어린이를 위해 많은 책, 시, 수필, 소설들을 발표하셨다면서요...정말 훌륭하세요.

아참! 페터 헤르틀링씨! 제가 정말로 궁금한 것이 있는데 대답해 주시겠어요? 페터 헤르틀링씨께서는 이 책에서 나오는 칼레처럼 할머니랑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살아본 적이 있으세요? 비밀이시라고요? 아이 참... 정말 아쉽네요. 그럼 할머니께서 에르나 비텔부인처럼 조금 엉뚱하셨나요? 제발 답장으로 알려주세요. 답장이란 편지 용어가 나와서 생각나는 말인데요. 이야기가 하나씩 하나씩 끝날때마다 칼레의 할머니께서 쓰신 그날의 일기 같은 것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무슨 의미예요? 혹시 이야기는 칼레와 페터 헤르틀링씨의 입장만 썼으니 이번에는 할머니의 입장에서 간단히 쓴 것인가요? 페터 헤르틀링씨의 생각을 정말로 알고 싶어요. 페터 헤르틀링씨는 처음에 이 책을 다 만들고 나서 읽어보셨잖아요. 그 때 만약 자기가 만든게 아니라면 이 책을 지은 작가에게 어떤 칭찬을 해주고 싶으세요? 저라면 우리들이 재미있게 다양한 느낌으로 책을 읽어 지루함이 하나도 없었다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페터 헤르틀링씨도 저와 같으시죠? 하하.

‘할머니’라는 제목은 저에게 큰 느낌을 주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맛벌이셔서 할머니께서 오셔서 저를 보살펴 주세요. 음식도 만들어 주시고 청소도 해 주시고 저랑 놀아도 주시고, 할머니께서는 정말 많은 일을 해주셨는데, 저는 해 드린 것이 별로 없거든요. 페터 헤르틀링씨 덕분에 할머니와 저와의 시간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어요.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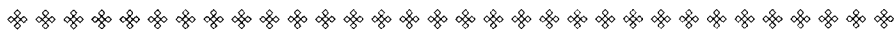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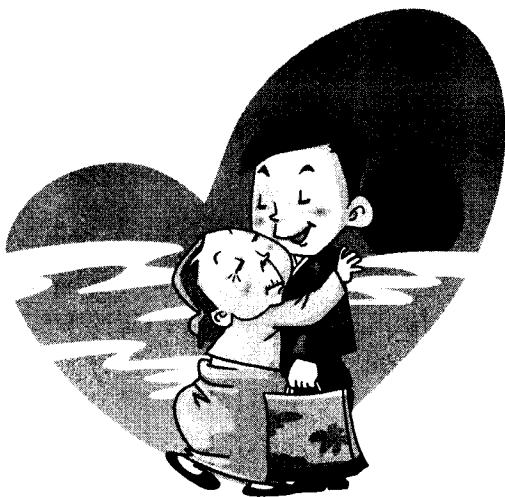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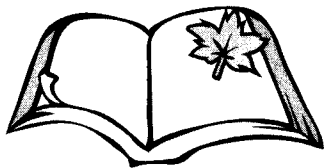
합니다.

그럼 이만 줄일게요. 안녕히 계세요.

2006년 7월 26일

김정은 올림





모네의 정원에서

성남 불곡초등학교 5학년 3반

조아진

이 책은 아주 유명한 화가의 정원을 주인공이 견학하는 내용이다. 주인공은 블룸 할아버지와 어떤 한 여자 아이인데, 이 책에 이름이 안 나와 있어 주인공으로 부르도록 하겠다. 블룸 할아버지와 주인공은 파리에 온 첫날, ‘마르모탕 미술관’에 갔다. 이 미술관에는 모네의 그림이 많다. 원래 모네의 막내 아들인 미셀이 가지고 있었는데 자식이 없자, 이 미술관에 기증했다. 그 다음에는 ‘클로드 모네 기념관’에 가서 모네의 정원에 갔다. 그리고 모네의 부엌을 둘러보고 일본식 다리를 구경하고 모네가 그린 일본식 다리를 보면 백내장이 걸린 후 그린 그림은 거의 빨간 색이었다. 그리고 나서 모네의 의붓 종손을 만났다. 알고 보니 그도 역시 화가였다. 그리고 모네의 이야기를 쓴 사람은 툴구아 할아버지의 아내였다. 모네와 알리스 부부는 아이를 여덟명이나 낳았다고 한다.

다음은 모네의 이야기이다. 모네는 어렸을 때 화가가 되기로 결심한다. 형편이 어려워 반대를 했지만 계속 그림을 그린다. 그러던 어느 날, 그림이 몇 점 팔리자 집을 이사했다. 그리고 그 때부터 울타리를 없애버린 뒤 그 곳에 꽃을 심고 또 넓은 텃밭을 일구었다. 하지만 아이들에겐 정원이 성가신 존재였다. 왜냐하면 저녁마다 잡초를 뽑고 물을 주는 것은 아이들의 몫이기 때문이었다. 장 피에르와 미셀은 표본을 만들어 식물에 관한 책을 써서 성공을 하였다. 여러 해가 지나고 아내 알리스와 아들 장이 세상을 떠나자 모네는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정원에서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다음 날, 집으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파리에서 산 물건을 상자에 넣고 입장권,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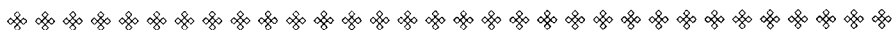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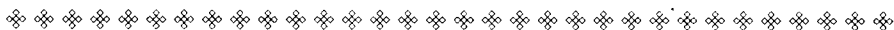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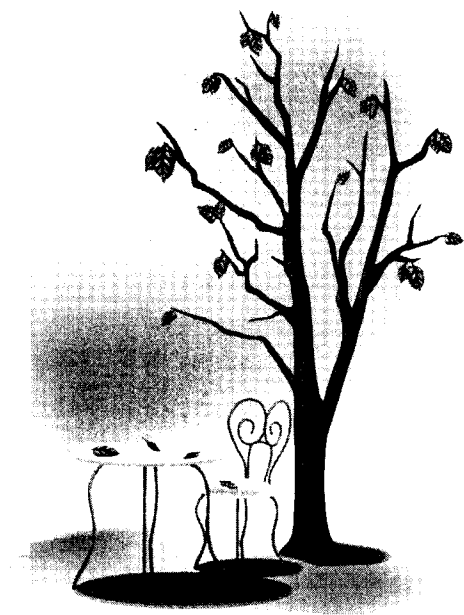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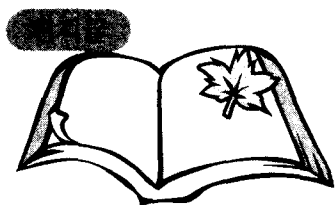


표 등을 게시판에 붙이고 친구에게 자랑도 했다.

이 책을 보면서 정원이 아주 아름다운 것도 알았고 가족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앞으로 가족을 소중하게 대해야겠다.





사랑의 가족

탄천초등학교 5학년 5반

김하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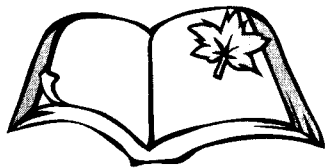
프리더에게...

프리더야, 안녕? 난 ‘김하연’이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너는 가족이 많아서 좋겠구나. 또, 너는 악기 연주를 아주 잘 한다고 들었는데... 나는 정말 그런 네가 부럽다. 너의 가족들을 전부 합하면 아홉명이야? 나의 가족은 네 명 밖에 없어. 그리고 나는 바이올린 연주를 아주 좋아했어. 하지만 겨울에 손가락을 다쳐서 피아노, 바이올린, 플룻 같은 재미있고 실감나는 악기들을 못 하게 되었지. 아직 완전히 낫진 않았지만, 악기를 연주할 때는 참을 만해.

너도 어디를 다쳐서 악기를 못 치게 되면, 음악 감상을 많이 하면서 기운을 내봐. 그 방법이 나에겐 아주 효과적이었어. 넌 혹시 숙제 같은 꼭 해야 되는 일들을 밤 늦게까지 해서 부모님께서 너를 꾸짖는 적이 있니? 나는 숙제가 워낙 많아서 그런 적이 많아 정말. 그럴 때는 짜증도 나고 잠도 잘 못 자때도 있어.

혹시 너는 인생은 왜 이런 것인지, 또는 왜 너에게, 인생의 기회가 주어진 것인지 생각해 보았니? 나는 한 번 생각해 보았는데 하느님께서 나보고 천국으로 오기 전에 땅으로 내려가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고칠 점들을 고쳐서 하늘로 올라올 때, 지혜롭고 친절하고 영혼이 되어서 약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고 안내해 주고 있고 내가 그것을 남에게 베풀라고 이 기회를 주신 것 같아. 아직 고칠 점들이 많지만 나는 노력할 거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너도 너의 꿈을 붙잡고 열심히 노력하길 바래.





‘어린왕자’ 를 읽고

성남 불곡초등학교 5학년 3반
이누리

이 책의 작가인 생텍쥐페리는 프랑스의 소설가로 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조종사로 종군, 대전 말기에 비행 중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한다. 또 책의 주인공 어린왕자는 순수하고 상상력 깊은 인물이다. 조종사인 ‘나’는 사막에不時착하게 되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년을 만났다. 그 소년은 한 별의 왕자이고, 그가 사랑하는 장미꽃을 두고 몇 개의 별을 순례했다가 지구로 온 것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양을 그려 달라니, 참 엉뚱하면서도 재미있는 아이 같다.

어린왕자는 자신의 별 외에 하도 별이 많다 보니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 별들을 돌아다니는 일을 하였다.

첫 번째 간 곳은 술꾼의 집이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특별한 사람, 별의 개수를 세는 사업가, 생텍쥐페리는 이 점을 잘 표현해 세상의 여러 사람들을 알게 해 주고 싶었나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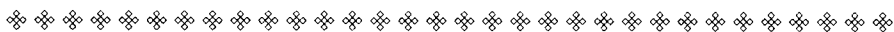
어린 왕자는 지구에 왔다. 그러나 지구가 못마땅했다. 사람들이 상상력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뱀, 여우, 꽃 등 많은 것을 만나고 특히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자신을 길들여 주라고 한다. 그러나 그와 작별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다. 여우는 참 착하고 이해할 줄 안다. ‘나’와 ‘어린왕자’는 사막에서 만나게 된다. 그리고 둘은 서로 친해졌고 같이 이야기도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이별 전날 밤, 어린 왕자는 자신의 몸을 버리기 위해 뱀에 물려 쓰러진다. 나도 처음엔 죽는 줄 알고 슬퍼했다. 헤어지는 것이 아쉽지만, 아저씨는 그냥 보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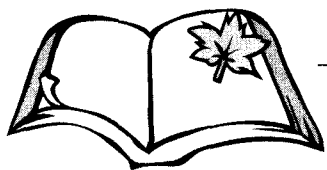
어린왕자... 정말로 장미꽃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 같다. 어린왕자에



는 맑게 빛난 모든 사람들, 어린이들을 사랑하며 베풀고 싶은 생텍쥐페리의 마음이 나타나 있다.

이 아름다운 동화는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다.





콩달이의 집이 없어졌어요. - ‘콩달이에게 집을 주세요’ 를 읽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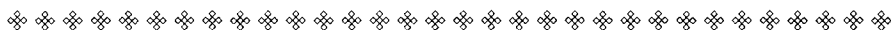
성남늘푸른초등학교 5학년 5반
이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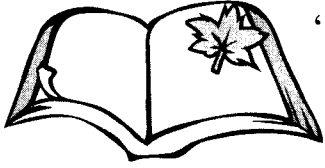
사람들은 수달들이 사는 곳을 없애고, 수달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을 파괴한다. 사람들이 조금만 수달들을 이해하면 좋겠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 때문에 집을 잃은 수달들의 이야기이다. 콩달이는 처음에 사람들이 쳐 놓은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만 잡아 먹었다. 그리고 대부분 사냥을 하거나 혼자 먹이를 잡는 일이 거의 없었다. 콩달이도 이제 먹이를 혼자 구해야 한다. 그런데 주는 것만 받아먹고 엄마 품에서 보살핌만 받고 자랐다. 나중에 콩달이는 혼자서 어떻게 먹이를 잡고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콩달이는 엄마가 사람들에게 잡히고 많은 수달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집을 떠났다. 그러자 콩달이는 혼자서 그물로 갈 수도 없었고 늘 보살펴 주던 엄마도 없어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다. 사람들이 콘크리트를 깔고 댐을 설치해 수달들이 살 수 없게 되었다. 사람들이 조금만 수달들을 생각했다면 수달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점이 정말 안타깝다.

콩달이는 새로운 친구 ‘이쁜달이’를 만나게 되었다. 콩달이는 이쁜달이와 먹이도 잡고 늘 함께였다. 그리고 슬픔은 조금 사라지게 되었지만 콩달이는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보금자리가 없었다. 많은 수달들이 편안하게 살 수 없다는 것과 헤어지는 것은 참 슬픈 일이다. 우리들이 수달들이 살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고 수달들을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으면 좋겠다.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 를 읽고

성남 청솔초등학교 5학년 2반
김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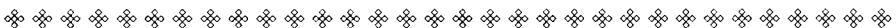
우리의 주변에는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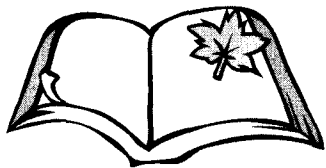
이 이야기는 키라가 자기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찾아서 용돈을 버는 이야기이다. ‘머니’라는 말하는 개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일기, 소원 상자, 소원앨범을 만들어서 생활을 하는 키라의 이야기이다. 키라는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그 개의 이름은 ‘머니’이다.

머니는 말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재주가 있다. 원래 머니는 부잣집 아저씨의 집에서 자라던 개여서 키라에게 그 부잣집 아저씨의 부자 비결을 알려 준다. 내가 만약 키라라면 너무나도 기쁠 것 같다. 머니 덕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내가 만약 머니라면 은혜는 충분히 갚고 전 주인한테 갈 텐데... 머니는 끝까지 충성을 다해서 키라 곁에 있어서 키라가 무지 좋아할 것 같다.

키라는 머니가 통장을 만들어서 그 곳에 돈을 저축하라고 하였다. 키라는 은행에서 친절한 아주머니의 소개로 학교에서 돈에 관한 연설을 학부모들 앞에서 했다. 키라가 연설을 할 때 무지 떨렸을 것이다. 하지만 실수를 하지 않고 잘 해주어서 키라가 자랑스럽다. 내가 키라 라면, 아마도 은행원 아주머니가 추천을 해주시면 끝까지 거절했을텐데... 키라는 용감한 것 같다. 키라가 한 연설을 듣고 트루프 할머니가 ‘돈의 마법사들’ 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친구들과 매일 매일 함께 돈과 저축에 대하여 토론을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에 알겠다고 하고 키라는 돈을 많이 모아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된다.

나도 키라처럼 부지런히 저축하여 유학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신비한 바닷속 생물이야기

오리초등학교 5학년 2반
유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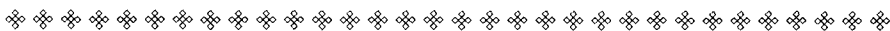
나는 이 책을 읽고 바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다. 또 바닷속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더 많이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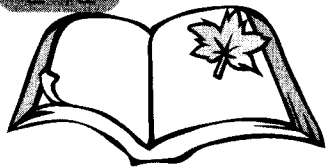
가장 기억에 남고 신기한 생물은 ‘솔베감팽이’이다. 솔베감팽이는 겉모습은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사람들에게 침입을 받으면 등 뒤에 숨겨져 있던 13개의 지느러미로 방어를 한다.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난 그런 모습이 신기했다.

우리가 매우 좋아하는 고래는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 우리나라에는 최고의 어머니 신사임당이 있다면, 푸른 바닷속에는 고래가 최고의 어머니라 할 수 있다. 나는 사람도 자랑스럽고 움직이는 생물도 좋다. 그렇지만 바닷속에는 멸종되는 멸종 위기의 동물들이 있다. 그 중에서 알바트로스는 흔히 ‘바보새’라고 불린다. 이유는 경계심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다행히 보호 동물로 지정이 되어서 수가 조금 늘어났다고 한다.

바다거북 대모는 아름다운 등껍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을 먹고 실험 재료로 그것을 쓴다. 난 정말 멸종 위기의 동물이 불쌍하다. 우리가 직접 환경을 지키고 사랑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많은 동물들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난 이 책을 읽고 정말 우리가 노력해야 하고 멸종 위기의 동물, 바닷속에 사는 많은 생물들을 알게 되어서 좋았고 꼭 동물들이 사람들에게 잡히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정말 정말 좋겠다.





어진이의 농장일기

청솔초등학교 5학년 2반

김나정

어진이에게...

안녕 어진아? 나는 청솔초등학교에 다니는 김나정이라고 해.

나도 일요일이 되면 너처럼 집에서 TV나 컴퓨터를 하는데 너희 가족처럼 주말농장에 가서 밭도 가꾸고 마을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잔치도 하고 참 재미있을텐데... 주말농장에서 내가 직접 키운 오이, 상추, 가지, 고추, 감자, 고구마 등 유기농 채소를 먹으면 그 기분이 어떨까? 나도 한 번 주말농장에 가서 채소를 키워서 먹어 보고 싶어. 맛있을텐데...

주말농장은 너무 좋을 것 같아. 너는 참으로 복 받은 아이인 것 같아. 주말농장도 가까이에 있고 엄마와 아빠도 적극적으로이니깐 말이야. 요즘에는 게으른 엄마와 아빠가 많거든. 우리 엄마와 아빠는 적극적이셔. 하지만 주말농장이 너무 멀어서 가고 오는 데 지칠 것 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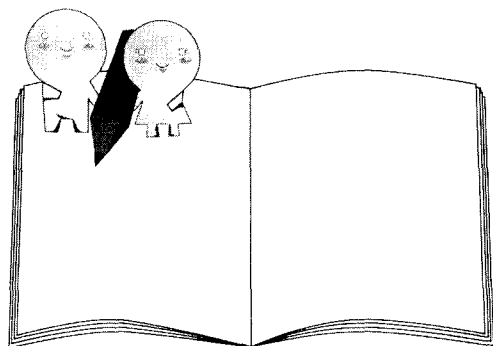
내가 만약 너처럼 주말농장을 한다면 아주 아주 재미있고 책임감 있게 나의 채소를 키울 거야. 물론 힘들기도 할 거야. 혹시 힘들어도 열심히 키울 거야. 그래서 내가 키운 채소들을 우리 가족들이 맛있게 먹게 할 거야. 너도 네가 힘들게 키운 채소를 가족들하고 먹으니깐 맛있지 않아? 나는 너무나 맛있을 것 같아. 키운 보람이 있으니깐 말이야.

그 채소를 키우면서 많은 벌레에 대해서도 알고 아무 벌레나 죽이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농사를 짓는 데에 이로운 곤충과 해로운 곤충을 잘 알게 되어서 내가 시골에 가서 오빠, 언니들에게 자랑스럽게 알려주면 언니와 오빠들은 몰라서 우물쭈물 하거나 가만히 자신 없게 듣고 있을 걸...?

2006년 7월 28일 나정이가.



꿈나무 백일장 우수작





진정한 행복이란

백현중학교 2학년
김민정

“형! 어서 일어나! 이러다 또 학교 늦겠다”

“...”

“형! 정말 뭐 하는거야! 일어나라고, 형!”

평소엔 나보다도 일찍 일어나는 형이 오늘은 웬일인지 꿈쩍도 않고 누워 눈 뜰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내가 처음으로 계란말이를 둥글게 잘 말아서 자랑하려 했는데 말이죠. 작년과는 다르게 과자도 샀고, 음료수도 샀고, 도시락도 다 샀는데...

정말 속상해요!

“그럼 나 먼저 가 버린다!”

‘흥!’ 하며 내가 도시락을 들고 신발을 신으려 하자, 그제서야 이불을 걷어차 벌떡 일어나는 형입니다. 그럼 나는 형을 화장실 세면대로 데려가 얼굴을 씻겨 줍니다.

“우어어어...”

형이 기분 좋을때 팔을 흔들며 내는 소리입니다.

형은 이 말밖에 모르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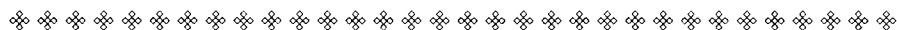
“내가 몇 번을 깨웠는지 알아? 한번 부르면 바로 바로 일어나라고 했잖아. 평소엔 안 그러더니 요즘엔 대체 왜그래?”

내가 형을 혼내니까, 형은 금세 팔 흔드는 걸 멈추곤 고개를 푹 숙입니다. 그러곤 입술을 씹룩거려요. 앗, 이대로 두면 또 형은 울음보를 터뜨릴 테죠.

난 형의 머리를 두어번 쓰다듬으며 다시 달랠니다.

“옷은 거실바닥에 꺼내놔어”

그 쫓겨면 형은 내 말 뜻을 알아들었을 거예요. 거실 쪽으로 뛰어가 옷을 찾습니다.



휴우, 매일 아침 일일이 밥 먹여주고, 얼굴 씻겨주고, 머리 빗겨줘야 하는, 바보같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형이지만, 난 형이 좋아요. 조금 힘들긴 해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걸요

1년전 형이 나에게 해 준 것에 비한다면요. 그래도 나보다 키도 몸집도 큰 우리 형은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멀쩡했답니다. 오히려 날 보살펴줬죠.

학교에서 우등상도 여러번 타오는 형인걸요.

작년 체육대회 때, 갑자기 떠난 엄마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거래요. 지금은 아빠랑 나, 형, 이렇게 셋이서 같이 살고 있어요.

키도 크고 건장한 덩치를 가졌으면서도 매일 눈물 흘릴 정도로 약한 우리 아빠 때문에, 형은 내가 돌봐주겠다고 고집을 피웠죠. 아빠 곁에 형을 뒀다간 둘 다 이상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아빠도 형만 돌보다 일을 못하게 되면 안되잖아요?

늘 엄마가 말한 것처럼 ‘가난한 집구석’이니까, 아빠가 하루라도 일을 나가지 않으면 우린 다 굶어 죽을 테니까요.

그래요, 우리 엄마는 우리집이 가난하다고 아빠랑 이혼을 했답니다... 동네 아줌마들 말로는 뭐, 부잣집 외국인을 만나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소문도 있어요. 흥! 이제 어차피 나한테는 엄마가 필요 없으니 상관없는 애기지요.

문제는 형이에요. 형은 어려서부터 나보다 맘이 여러 작은 벌레 한 마리도 죽이질 못했어요. 무엇이든 똑 부러지게 자기 생각을 잘 말한다고 선생님께 칭찬도 들은 저와는 달리, 형은 조용하고 섬세한 작은 풀잎같다고 할까요. 그래서 엄마가 우리를 버리자, 충격을 받은 건가 봐요

사실 난, 형이 왜 요즘들어 특히 늦게 일어나며 고집 부리는지 그 이유를 안답니다.

바로 체육대회에 가기가 싫은 겁니다.

작년엔 엄마가 우리한테 도시락도 안 싸 준 채, 그냥 집을 나가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돛자리를 펴고 앉아 오순도순 가족끼리 즐거운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쳐다보기만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형 기억속의



체육대회는 끔찍이 싫고 괴로울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체육대회에 안 갈 내가 아니죠. 이번 체육대회에서 난 또 달리기 1등을 차지해 멋진 모습을 보여줄 거란 말이예요. 그 때의 싫은 기억은 싸아악 지워버리고, 맛있게 만든 계란말이를 먹여주며, 형이 하루라도 빨리 제 정신 차리도록 만들 거예요

“우어어어...”

어느새 학교앞에 다다르자 갑자기 또 형이 몸을 흔들며 땀을 흘린다.

형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제 눈동자도 또르르 굴러갑니다.

그 곳엔 동실동실 떠다니며 춤을 추는 알록달록한 풍선들을 파는 풍선장수 아저씨가 서 있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형이 좋아하는 색은 파란색입니다.

난 얼른 파란색 풍선 하나를 사서 형의 손가락에 들려줍니다.

“날아가지 못하게 꼭 잡고 있어”하자, 형은 밝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핑! 핑!” 무언가 터지는 소리같은 게 들리는 걸 보니, 벌써 체육대회가 시작되었나 봅니다.

이제 곧 내가 나갈 달리기 시합 차례입니다.

난 잘 보이는 곳에 형을 앉혀두고, 운동장 달리기 선 앞에 서서, 오른쪽 엄지 손가락을 치켜 올려 보입니다. 자신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잘 보고 있으라는 겁니다.

“준비, 팡!”시작을 알리는 소리와 함께 난 날쌔게 뛰어 나갑니다.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날 따라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구요! 히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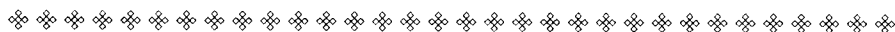
“와아아아!” 굉장한 함성 소리와 함께, 내 팔엔 1등 도장이 꾸욱 찍혔습니다.

기분이 찢어질 듯이 좋아요.

이걸로, 내게 엄마가 없다고 깔보던 얄미운 녀석들도 조금은 조용해지겠죠, 그래도 그런 건 지금 내게 요만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형에게 내 멋진 모습이 기억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형이 날 보며 “으어어어...”하고 웃어준다면, 그보다 더 기쁜 건 없을 거예요.



“나 어땠어, 형?” 하고 고개를 활짝 들어 형이 있던 곳을 바라 봤어요.

어라?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이죠?

날 보며 하얀 이를 활짝 드러낼 형이 보이질 않습니다.

“형! 형! 어땠어, 형!” 형에게 내가 없으면 형이 안절부절이듯, 내게도 형이 없으면 갑자기 두려워져요. 무섭고, 눈앞이 캄캄한 게... 세상이 두쪽 나도 이처럼 무섭진 않을 거예요.

“형! 형!” 목이 갈라지도록 부르며 찾아도 보이질 않으니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내려 합니다...

울지 않으려고 어금니를 악물어 보지만 어쩔 수 없이 흘러 내리는 눈물에 흐려진 시야 사이로 무언가 파란 게 흔들흔들, 바람에 하늘거리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엔 두손을 뻗어 파란색 동그라미를 잡으려는 형이 보입니다.!

횡단보도도 없는 널따란 차길에서 형은 대체 뭘 하는 거예요!

뽕뽕거리는 커다란 차들 사이로 쭉 숨어 버릴까봐 내 가슴은 또 방망이질을 칩니다. 이젠 목이 쉬어 부르기도 힘든 목소리로 다시 한번 “형!” 하고 외칩니다. 그리곤 아까 달리기 시합 할때 보다 100배는 빠르게 발을 굴러 형의 손목을 낚아챱니다. 아슬아슬하게 겨우 자동차들의 무서운 늪에서 벗어났어요.

그렇게 벗어나자마자, 난 또 형에게 화를 냅니다.

“형 미쳤어? 내가 그 자리에 꼼짝 말고 있으랬잖아! 이렇게 많은 차가 지나다니는데 왜 뛰어든 거냐고! 형, 죽고 싶어? 위험하게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한바탕 화를 쏟아붓자, 형도 놀랐나 봅니다. 갑자기 어깨를 들썩이더니, 울음보를 터뜨립니다.

“호아아앙~! 호아아아앙~!”

“하~아”, 또 시작입니다.

울고싶은건 나인데, 왜 내맘도 몰라주고 형이 먼저 울어버리는 걸까요. 나도 이렇게나 울고 싶은데...

그런데도 참고 있는데... 나보다 3살이나 더 많으면서 왜 이런 아기



같은 짓을 하는 걸까요. 형 때문에 항상 이렇게 난, 난... 맘껏 울어보지도 못하고... 정말 화가 납니다.

“다 멍터구리 형 때문이야, 형 때문이야...”하면서 난 도망치듯 달립니다. 창피하게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도 울기만 하는 형을 버려두고 도망칩니다. 갑자기 날 깔보던 녀석들의 말이 생각납니다.

‘엄마도 없는 게...’ ‘엄마도 없는 주제에...’

‘엄마가 없으니까...’ 다 엄마, 엄마...엄마가 없다고 이렇게 세상에 미움받고 살아가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나요, 엄마가 없으면 행복해질 자격도 없는 거예요? 엄마가 있어야만 정말, 진정으로 행복해 질 수 있는거예요?

진정한 행복이란게 대체 뭐길래....

이런저런 생각과 물음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엄마만 있었더라면 매일 아침 식사준비를 할 필요 없었겠지, 엄마만 있다면 매일 술에 취해 들어오시는 아빠의 쾡하게 늙은 모습은 안 봐도 되었겠지, 엄마만 있었다면 형이 이런 모습은 아니었겠지...?내가 이렇게 눈물 흘리며 화를 낼 이유도 없었겠지...!

하아, 엄마 따윈 필요없다며 부정하던 내가 이런 원망이나 하다니, 정말 바보같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이뤄지지도 않는 상상따위’를 집어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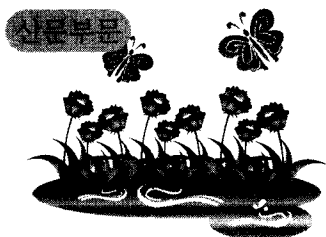
‘우아아’ 하며 심호흡으로 다시 마음을 가다듬은 다음 순간의 짜증에 놓쳐버리고 온 형을 찾기 위해 왔던 길을 되돌아가려 몸을 돌리자 그곳엔 숨을 헐떡이며 쫓아온 형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화를 내며 달려와 버리자, 형도 무서웠던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 형의 표정은 따뜻하고 은은합니다. 그렇군요! 내가 걱정되서 따라와 준 거군요!

눈물이 그렇그런 내 눈가를 닦아주곤 내 손가락에 파란색 풍선을 들려줍니다.

아까 차들 사이를 헤집고 뛰어 다녔던 건, 내가 풍선을 꼭 잡고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 깨기 싫어서 그랬던 거예요! 형이 내 화난 목소리에 아팠을 마음을 생각하니, 눈물이 울컥 넘쳐오르려 합니다. 그러자 고개를 저으며 형이 내게 해주는 말, “풍선 꼭 잡고 있어야 해, 날아가지 않도록...”





그리운 내 소중한 친구 발바리

불곡중학교 1학년 7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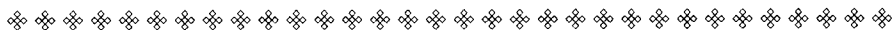
김남희

자신이 키웠던 애완 동물을 그리워 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것도 정이 아주 많이 들었다면, 그 애완 동물을 사랑했던 것 만큼 그리움 또한 컸을 것이다.

나도 내가 키웠던 햄스터를 굉장히 많이 그리워했었고, 지금까지도 그 햄스터를 생각하면 무엇인가가, 어딘가가 텅 비어있는 것 같은 그리움을 자주 느낀다.

우리 가족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햄스터를 많이 길렀다. 제일 처음 산 햄스터 두 마리가 자꾸 새끼를 낳아서 12마리로 불어난 햄스터들을 다 길러야 했던 것이다. 그 중에서 제일 처음 샀던 수컷의 이름이 ‘발바리’였는데, 바로 이 햄스터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의 소중한 친구가 되어 주었다.

발바리는 항상 내 마음을 금방 알아 주었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텃새를 부리면서도 내 앞에서는 곧잘 어리광을 부리고는 했었다. 다른 햄스터들은 한 집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만 가져다 놓으면 물고, 핏하고, 꼬하고 난리법석을 피웠다, 하지만 발바리는 피하기는 커녕 항상 먹이도 내 손 위에 올라와서 먹었고, 내가 손을 내밀면 내 손 위에서 장난을 치기도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발바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고민과 이야기거리들을 항상 누구보다 먼저 발바리에게 이야기 해주었고, 그럴때 마다 발바리는 마치 내 말을 알아 듣고는 “그래서?”, “우와” 같은 말로 맞장구라도 치는 것처럼 가끔씩 나와 눈을 마주치며 제 집안을 어슬렁 어슬렁 거렸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는 발바리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더욱 더 발바리를 사랑하고 아끼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날은 순하디 순한 발바리가 싸움을 한 일이 있었다.

발바리의 첫 번째 새끼인 ‘흰둥이’가 벽을 넘어 발바리네 집에 들어간 것이다.

둘은 소리도 없이 싸워서 밤새 아무도 둘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새벽 4시 즈음에 밥을 주려고 갔다가 그 장면을 보고는 소리를 질러서 그제서야 온 가족이 둘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발바리는 내 목소리를 듣고 피투성이가 된 눈으로 날 올려다 보고는 계속 피해 다니기만 했다. 난 둘의 사이를 갈라 놓으려고 흰둥이를 잡으려다가 손을 크게 물려 줄지에 나까지 피투성이가 되어 버렸다. 그 사건이 있고 난 후 상처가 깊었던 흰둥이는 얼마 안 가 죽고 말았다.

나는 흰둥이가 죽는 것을 보고는 발바리도 혹시 죽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발바리를 내 손 위 올려 놓고 한참을 쓰다듬었다. 그때 내 손 위에서 날 보던 발바리의 찢어진 눈이 난 아직도 눈에 선하다.

발바리와 처음 만난지 2년이 조금 넘는 어느날 발바리도 흰둥이와 같은 곳으로 떠나고 말았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난 발바리에게 밥을 주러 갔는데 항상 제일 먼저 나를 반기던 발바리가 동그랗게 몸을 말고는 아무 미동이 없었다.

나는 늘 그랬듯이 발바리에게 손을 내밀었다. 아무 반응이 없었다, 손위에 올려 보았다. 딱딱했다. 따뜻하고 보드라웠던 털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나는 아무런 대책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울고 말았다.

엄마는 발바리를 쓰레기통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소각장에 가면 화장하는 거라고 말이다.

하지만 난, 다른 햄스터들은 몰라도 발바리만은 쓰레기통에 버릴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발바리를 근처 산 속에 묻어주기로 했다. 발바리를 묻을 장소를 찾고 땅을 뚫다. 들고양이들에게 먹히지 않도록 더 깊게



더 깊게 땅을 뚫다.

파여지는 땅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내마음의 슬픔도 깊어져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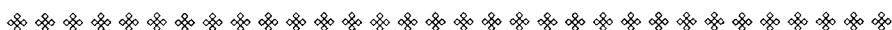
‘2년 반 살았으면 오래 산거야...’ 하고 생각하면서도 자꾸 자꾸 눈물이 나왔다. 그 날은 집에 돌아가자 마자 한참을 울었다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나에게 사랑했던 무엇인가가 죽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슬픔이었다.

나는 아직도 웬지 베란다에 나가면 발바리가 날 쳐다 보고 있을 것 같은 환상에 빠진다.

발바리가 나를 반겨주었던 그 자리는 지금 아무것도 있지 않은 텅 빈 공간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그곳에는 언제까지나 나의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친구와의 행복했던 추억이 남아있을 것이다.

발바리가 그곳에서는 흰둥이와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발바리가 너무 보고 싶지만 발바리는 언제나 내 마음 속에서 날 지켜보고 있으리라는 것을 믿으니까 난 울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그 무언가에 대한 그리움은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그리움도 언젠가는 모두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될 것이다. 그리움은 결코 슬픈 것만은 아니라고 난 믿는다.



것은 아니었다. 갑작스레 다가온 그것은 내 위로 파도처럼 덮쳐왔다. 들뜬 기대감이 식자 별안간 불쑥 튀어나온 그것은 그리움이었다. 잿빛으로 뒤덮인 서울에 대한 그리움, 옛집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 모두 목을 콕 메이게 했던 것이다.

베갯자락을 흠뻑 적시도록 쏟아낸 눈물로는 씻어내기 부족하자 나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한껏 자랑스러워 했던 씩씩한 내 모습은 그저 걸포장이었고, 뉴질랜드의 새로웠던 생활에 시들어지자 그제서야 한꺼풀 벗겨져 드러난 것은 한없이 약하고 눈물 많던 내가 본 모습 인 건가 못이겨 한국으로 귀국하는 꼴사나운 짓 안한다며 자랑으로 여겼던 내 독립적인 모습은 동정하는 남을 위한 것이었고, 이 그리움은 갑작스레 생겨난 것이 아닌 그저 마음 속 깊이 묻어 두었던 눈물인 건가. 어느 한정된 특별한 대상이 아닌 나는 나의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그 커다란 의미는 쏘아지키엔 버겁고 힘든 짐이었다.

그리움은 나아가 날 뒤흔들어 놓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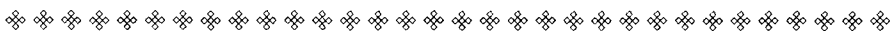
영어공부에 대한 굳센 의지마저 소금기 어린 나의 눈물 안에 사라져 버렸고, 전화기를 붙들고 부모님의 목소리 안에서 한국의 흔적 한 조각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때마침 찾아온 나의 사춘기 앞에서도 떠밀려 견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그리움이란 조용하고 잔잔한 그런 느낌일 것이라는 예상과 빛나 갔다.

내게 찾아온 것이란 미미하게 저리면서 아픈 그런 고통스러운 그리움이었다.

나는 피아노 뚜껑을 들어 올렸다.

얼마나 생생했던지... 그 익숙한 나물 무치는 참기름 냄새, 볼륨 줄인 TV에서의 뉴스 아나운서의 사무적인 목소리, 아버지의 신문 넘기는 소리, 내 손가락이 건반 위를 횡단하고 웅장히 퍼지던 멜로디, 그 모든 것이 생생히 내 주위를 맴돌았다. 피아노를 치며 그 달콤한 회상 속에서 허우적대다 눈을 살며시 뜨지만 뉴질랜드였다.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좌절감은 끊임없이 날 무너뜨렸지만 그 짧은 몇 분 동



안의 회상이나마 나는 마음에 그리는 것을 반복했다.

그 곳에 날 실어다 준 것은 <엘리제를 위하여>였다.

그 선율, 어머니 생일 때에도 쳐드렸던 그 음악은 나의 쓰라린 위로이자 화의 출구였다.

그리움은 무엇을 해소한다는 의미의 진통제 따윈 먹히는 것이 아니었다.

완벽한 치유를 요하는 그리움은 바랄 수록 간절해지고 심하게 곪아 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안겨다 주었다. 시간이 약이라고, 나 이 마음 한구석이 허한 아픔에 재차 익숙해졌고 극복해가는 자세도 알아갔다.

물론 익숙해졌다고 눈물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으며 무뎠다고 안 아픈 것은 아니었다. 내마음 속 어딘가에는 계속<엘리제를 위하여>가 연주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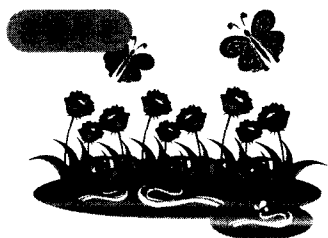
<엘리제를 위하여>는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 것은 분명했다.

넘어질수록 일어나는 것에 익숙해지고 아픈만큼 성숙해지는 법이니까.

한국에 돌아 온지금마저도 그 친근한 리듬은 내 안에서 울려퍼지고 있다.

내 삶에 첫 그리움이란 내 안의 <엘리제를 위하여>였다.





그리움 (으뜸상)

태평중학교 3학년 3반
이유진

문득 하늘을 보고 있노라면
당신이 그곳에서
절 보며 웃어주실 것만 같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길을 걷다가
문득 탐스러운 열매를
맺고 있는 대추나무를 볼 때면
제 입에 넣어주셨던
달콤한 대추맛이
입속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당신과 함께 찍은
어렸을 적 사진을 보고 있노라면
언제라도 그렇게 웃어주실 것만 같아
지금 당신이 곁에 없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하늘만큼 넓은 마음과
햇살같은 따스한 미소로
“유진아, 유경아”라고
불러주셨던 당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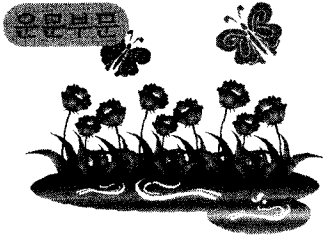
지금은 그렇게도
사랑하셨던, 닳고 싶어하셨던

하늘이 되어
그 높은 곳에서도
저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7살 꼬마에게
끝없는 사랑과
믿음, 마음을 주셨던
당신
당신의 손녀가
하늘처럼 아름답고
넓은 마음을 지닌
숙녀가 되기를 바라셨던
할아버지

이제는 16살이 되어
7살 꼬마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시간이 흘렀지만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의 그리움이
저 파아란 하늘까지
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버금상)

태평중학교 3학년 8반
정예랑

참 여유롭다
참 좋겠다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소들이

넓고 푸른 들판에서
행복인가?

시간을 다스리고
여유를 가질 줄 알면
얼마나 좋을까?
한가로이 풀을 뜯는
소들처럼

행복은 그런거다
여유로운 마음,
평화를 보는 눈,
아름다움을 듣는 귀만 있으면
금방 눈에 띄는 보석이다.

참 명랑하다.
참 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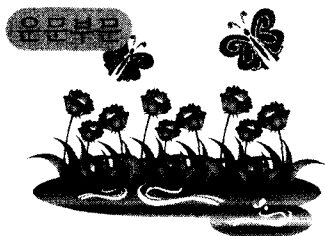


저 멀리부터 들려오는
함박웃음이
아이들 입에서
행복인가?

웃음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 할 줄 알면
얼마나 좋을까
크게 웃고 있는
아이들처럼

행복은 그런거다.
순수한 마음,
예쁘게 보는 눈,
웃음소리를 듣는 귀만 있으면
쉽게 다가오는 친구다.





그리움(딸림상)

대원여자중학교 3학년 4반
이 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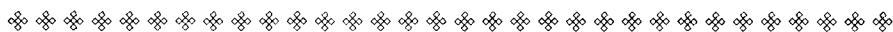
나는 너를 생각한다.
내 모든 그리움만으로
나는 너를 생각한다.
내 모든 간절한 마음으로

별이 깊은 밤,
내 귓가에 나지막히 들려오던
너의 속삭임을 난 잊을 수 없다.
내 머릿속에 나지막이 울리던
너의 그 딸림을 난 잊을 수 없다

손틈 새로 흘려보낸 빗물처럼
너를 흘려보냈어야 했는데...
이제 난 그것조차 할 수 없다

아아! 아름다운 그리움이요
꽃이 피고, 햇빛이 쬘고,
바람이 불고, 눈이 오고,
또 다시 꽃이 피고.
나는 언제고 이것을 끝나길 기다린다.

내 눈과 코와 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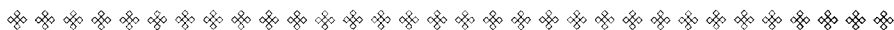
모든 이들의 눈물을 불러올 때,
나는 이것을 끝낼 것이다.

내 사소한 그리움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그대가 깊은 절망속을 헤매일 때
내 수줍은 간절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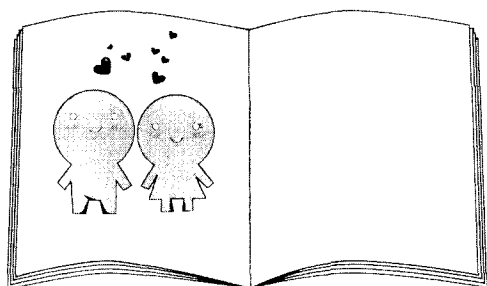
이별을 고하던, 그 별이 깊던 밤.
내 귓가에 나지막이 들려오던
너의 속삭임을 난 잊지 못한다.
내 머릿속에 나지막이 울리던
너의 그 떨림을 절대 잊지 못한다.

내 너를 생각함은,
내 사소한 그리움이라.
내 너를 생각함은
내 수줍은 간절함이라.

이보다 더한 그리움이 어디 있는가.
이보다 더한 간절함은
또 어디에 있는가.



독서회원 글모음





납작이가 된 스탠리

야탑초등학교 2학년 3반

이윤서

스탠리에게

스탠리, 엄마 아빠가 사주신 게시판에 깔려서 몸이 납작해졌을 때 아프지 않았어?

스탠리, 너는 남을 위하는 마음이 강해.

너의 엄마가 제일 아끼는 반지가 배수구에 빠졌을 때도 네가 배수구까지 들어가서 반지도 꺼냈고, 편지봉투 속에서 다른 사람이 받을 때까지 편지를 지켰잖아.

편지봉투 속이 답답하지는 않았니? 나라면 답답해서 견디지 못했을 거야. 그리고 문틈 사이를 지나 다니는 것은 재미있을 거야. 나도 납작하게 된다면 너처럼 문틈 사이를 지나 다니고 싶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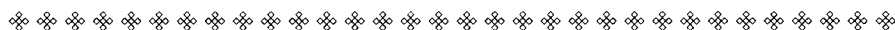
스탠리, 그리고 박물관에 도둑이 들어왔을 때 무섭지 않았어?

게다가 그것도 한밤중에 말이야. 나는 무서워서 아예 접근도 못하겠다. 나중에는 사람들이 너를 홍보고, 조롱했잖아.

나는 마음이 아파. 모든 사람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 준다면 좋겠어.

스탠리, 세상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깐 우리 그 사람들을 홍보지 말자.

스탠리, 안녕~





‘떡볶이 따라 몸속 구경’을 읽고

중탐초등학교 2학년 6반

김연승

샘이랑 민이가 있었다. 책상 앞에 놓여진 하얀 알을 보고 다가왔다. 그 알에서 팽박사가 나왔다. 팽박사의 나이는 999살이라고 한다. 팽박사는 사람의 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귀가 왜 두개가 있는지, 눈은 왜 두개가 있는지, 머리카락은 왜 있는지...

옛날 원시인일 때는 온몸에 있었지만, 지금의 사람으로 발전이 되면서 꼭 필요한 곳에만 털이 남아 있게 되었다. 그 중 머리카락이 가장 많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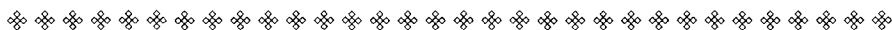
민이는 음식이 어떻게 소화되는지 알고 싶어서 엄마가 만들어 주신 떡볶이를 먹고 우주선을 작게 만들어 귀를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갔다. 민이는 몸속으로 들어간 떡볶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았다.

이 책을 보고서 나도 내 몸 속으로 들어가고 싶었다. 몸속으로 들어가서 여행을 하고 나온다면 참 멋진 여행이 될 것 같다.

피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냄새가 어떻게 맡아지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소중한 내몸으로 건강하게 하려면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것은 많이 먹지 않아야 겠다고 생각한다.

또 TV에서 위험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소중한 눈이나 귀를 다치는 것을 보았는데 안전한 놀이를 하고 항상 조심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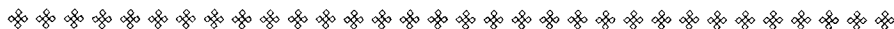
내가 읽은 옛 이야기 발표해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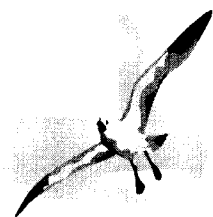
매송초등학교 2학년 4반
김현우

어린이 독서회에서 내가 읽은 옛 이야기 발표를 했다.
친구들은 흑부리영감, 의좋은 형제와 놀부를 발표했다.
나는 교과서에 나온 ‘소금장수와 기름장수’를 발표했다. 교과서에는 짧은 내용만 나와서 그 뒤의 이야기는 내가 상상해서 발표했다. 소금장수와 기름장수가 지혜롭게 호랑이 뱃속에서 탈출했다는 이야기이다.

교실에 불을 끄고 촛불을 켜고 발표를 하니깐 더 재미있었다. 깜깜해서 무섭고 귀신 나오는 이야기를 발표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다. 깜깜하고 발표하는 친구 앞에만 환하니깐 그 친구만 보게 된다. 그래서 이야기가 더 잘 들리고 꼭 연극을 보는 것 같았다. 다른 친구들 이야기도 너무 재미있게 들었다.

다음에 발표를 할 때는 외워서 연극을 하는 것처럼 하면 신나고 재미있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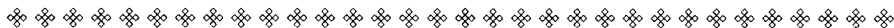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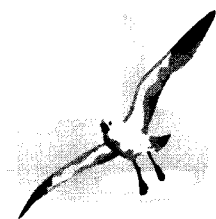


오줌 마려울 때

돌마초등학교 3학년
황희정

지금은 2교시 지금 선생님께서 공부를 가르치고 계신다.
앗! 앓! 앓! 이를 어쩌나?
방광이 부르르 부르르 떨리네...
나는 자신이 없어 선생님께 화장실 가겠다는 말을 못하겠네...
... 이젠 아예 말도 나오지 않는다.
오줌이 내 바지를 꼭 안아 버렸다.
나는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그냥 교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한 아이가 와서 내 바지를 보았다.
그 아이는 내게 바지를 갖다 주었다.
참 고마운 그 아이
고마웠다.
혹시
그 아이는 천사가 아니었을까?





산타 할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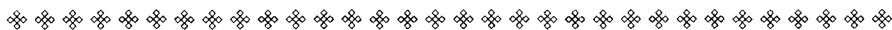
야탑초등학교 3학년
김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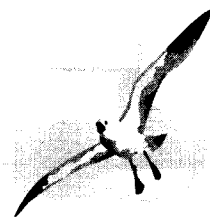
내 코끝이
빨개지는 계절이 오면
루돌프가 생각난다.

루돌프는
아주 반가운 손님을
테리고 온다.

오실 때마다
많은 선물을 한 아름 안고
나에게 달려오신다.

이번엔 어떤 선물일지
두근두근 정말 기다려진다.
내 코가 늘 빨갛으면 좋겠다.





경주 남산을 다녀와서

야탑초등학교 3학년
김민정

2006년 8월 26일 토요일

아침 일찍 우리 가족과 아는 아저씨네와 같이 경주 남산으로 갔다. 도착하니 점심때였다. 일단 점심을 먹으러 칼국수 집에 들어가보니, 등산하고 내려오신 분들이 많았다.

남산 안내 표지판을 보니 너무 높아서 올라가지 못할 것만 같았다. 더구나 돌산이라고 겁을 주셨다. 하지만 나는 자신감을 갖고 올라갔다.

산을 올라간 지 얼마 안 되서 능과 군데군데에 불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입술이 붉은 삼릉계곡 마애관음보살상을 보고 내려올 때는 길이 가파라서 무서웠다. 산을 오르기 힘들고, 물만 보면 먹고 싶고, 물가에서 놀고만 싶었지만 상선암 마애여래 좌상까지 올라갔을 때는 불상이 컸지만, 산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경치가 더 예뻐다. 그리고 바람이 어찌나 시원했던지 아직도 술술 불어오는 것 같다.

많은 불상 중 못난이 부처가 제일 인상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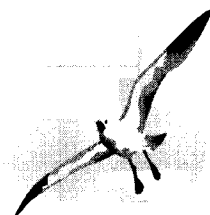
아래턱이 떨어져 나가서 보수해 놓은 부처인데, 엄마 말씀이 그 부분을 가리고 보는 것이 원래의 부처를 느낄 수 있다고 하셨다. 따라서 해보니 재미가 났다.

산을 내려오면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고, 아저씨와 “야호~!” 크게 소리 지르기 시합도 했고, 벌레가 가득한 대나무 숲을 지나는 모험도 했다. 등산이 너무 힘들었지만,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직접 보니 조상님들이 자랑스러웠다.

남산은 등산코스가 16가지란다.

다음에는 다른 코스로 오르고 싶다.





‘비’ 보다 우리 아빠를 더 사랑한 엄마 (나의 탄생 신화)

야탑초등학교 3학년1반
정혜정

저는 느티나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느티나무는 500년 된 나무였습니다. 제 생일은 13월 8일이었습니다. 나의 할아버지인 숲의 요정님은 내 생일인 13월 8일을 없애고, 12월 30일까지로 다시 고쳤습니다.

그래서 내 생일은 12월 25일이 되었습니다.

내 생일이 되면 사람들은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크리스마스를 만드셨습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은 산타할아버지가 아니라 숲의 요정인 저의 할아버지랍니다.

이번엔 저의 태몽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가수 ‘비’ 아시죠? 그 가수 ‘비’가 우리 엄마에게 데이트 신청을 한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의 엄마는 산책을 하러 공원에 갔습니다.

공원에 ‘비’가 있었던 것입니다.(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그래서 사인을 받으러 갔는데, ‘비’가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넓은 들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갑자기 ‘비’가 이상한 장치를 누르더니 예쁜 꽃이 나왔습니다.

그 꽃에는 “사랑해요”라는 글이 써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에게는 더 소중한 아빠가 있어서 아빠에게 뛰어가 꼭 껴안았다고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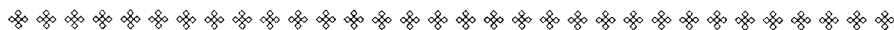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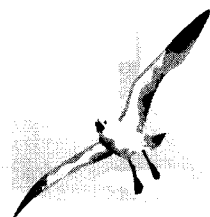


사 람

서현초등학교 4학년
문지원

어릴 때 ‘응애’ 하고
조금 크면 말하고
조금 더 크면 글을 쓴다.
매일매일 놀다가
점점 크고 나서
공부하고
어른이 되어 회사일 한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둘이서만.....
아들, 딸,
아이들 보고 싶고
심심해진다.





정 우 열

중탐초등학교 4학년

김광일

얼굴에 있는 큰 점은
불박이별 같다.
나머지 점들은
잔별이다.
웃으면
불우물이 생긴다.
모습이 대차다.
그래서 무겁다.
눈망울은 갈색이다.
자별한 내 친구 정우열은
곰살긋다.

* 불박이별 : 북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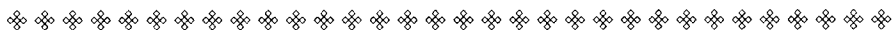
* 잔별 : 작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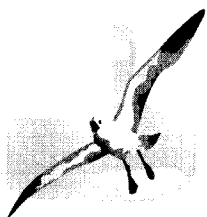
* 불우물 : 보조개

* 대차다 : 몸집이 아주 큼직하다

* 자별하다 : 인정이나 교분 따위가 남달리 특별하다

* 곰살긋다 : 성질이 부드럽고 다정하다





가을산에서

안말초등학교 4학년
이예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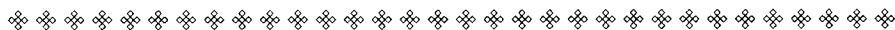
산들산들
산바람 부는
가을 산

낮에는
가을맞이하는
사람들이 많고,
밤에는
별뚱별, 미리내, 셋별,
불박이별, 꼬리별, 여우별,
잔별이 있다.

아이들은
산마루에 누워서
겨꿈내기로
별을 찾는다

많이 찾은 아이는
입아귀가 올라가지요.

- * 별뚱별 : 유성
- * 미리내 : 은하 또는 은하수
- * 셋별 : 금성
- * 불박이별 : 북극성
- * 꼬리별 : 혜성
- * 여우별 : 붉은 날 잠깐 났다가 사라지는 별
- * 잔별 : 작은별
- * 산마루 : 산의 정상
- * 겨꿈내기 : 서로 번갈아 하기
- * 입아귀 : 입의 양쪽 구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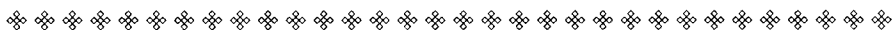
가을 산에서

안말초등학교 4학년
박상운

곰비임비 쌓인 낙엽과 아람
푸른 마루,
아라보다 예쁜 뒀에
가을이 왔다.

깨끗하고 상쾌한 뒀
산들산들 산바람
저녁 마루에 잔별이 가득하다.
그루잠에서 깨어
벗이랑
보송보송한 길 따라
끝끝한 마음으로
뒀을 내려옵니다.

- * 곰비임비 : 물건이 거둬 쌓이거나 일이 겹치는 모양
- * 아람 : 탐스러운 가을 햇살을 받아서 저절로
충분히 익어 떨어진 그 과일
- * 마루 : 하늘
- * 아라 : 바다
- * 뒀 : 산
- * 잔별 : 작은별
- * 그루잠 : 깨었다가 다시 든 잠
- * 끝끝하다 : 마음이 밝고 바르며 깨끗하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중탑초등학교 5학년
설예원

우리 할머니는 76세이며, 고향은 평양입니다.

할머니가 19세 때 6.25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북에서 남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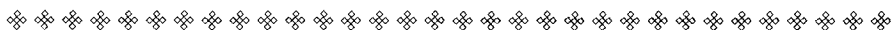
그 당시 할머니는 9남매였고, 할머니의 어머니께서는 41세였으며 막내 동생은 태어난지 2달밖에 안됐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이북에서 넘어 오실 때 어머니와 막내 동생, 그리고 오빠를 두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북에 두고 온 어머니 생각에 명절 때만 되면 통일 전망대에 갑니다. 통일 전망대에 가시면 할머니는 항상 북한쪽을 향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아마 북에 두고 온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해 달라는 기도겠지요.

할머니께서 피난을 내려오실 때 눈이 아주 많이 온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다리가 끊어졌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동생을 업고, 얼음이 둥둥 떠 있는 강물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고 나서보니 할머니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춥고 무서운 마음에 온몸이 얼음에 베인 것도 모르셨습니다.

북에서 남으로 오실 때는 1달 4일 동안이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힘든 피난길을 더 힘들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 올 때 동생이 신발을 잃어버렸습니다. 추운 겨울날씨에 맨발로 동생을 건네 할 수 없어서 할머니는 동생을 업고 오셨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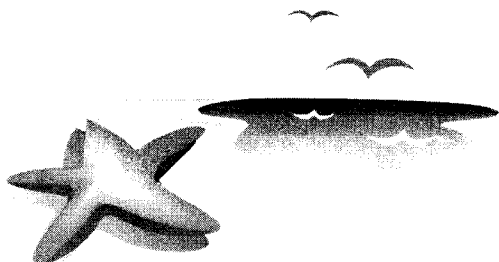
할머니는 북에서 돈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떡볶이 장사 등등 온갖 일을 닦치는 대로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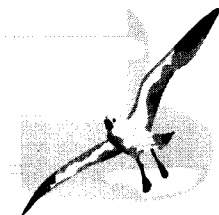


솔직히 나는 통일도 잘 모르고 전쟁을 직접 겪어 보지 않아서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을 보니 체육대회에서 북한 응원단이 “우리는” 하면 남한 응원단이 “하나다”라고 하고 또, 남한에서 “우리는” 하면 북한 응원단이 “하나다”라고 하며 “우리는 하나다”로 응원을 했을 때 진짜 하나인 것 같았는데, 우리 할머니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인데 왜 이복을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걸까?

우리는 한 민족이며, 한 나라인데 왜 둘로 나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통일은 우리 민족 모두가 결국 하나라는 마음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은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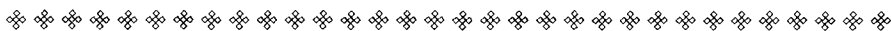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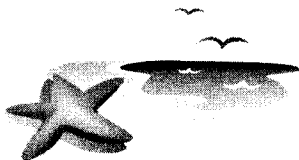
상탑초등학교 4학년
이예현

아줌마들이
은행나무를 흔드니
우두둑하고
은행이 떨어진다

근처를 지나가다
찍!!! 은행을 밟았다
화장실 냄새 풍기며 걸어간다

아이들이 코를 붙잡고
'이예현은 똥장수' 라고 놀린다

난 은행이 싫어!!!





꽃의 슬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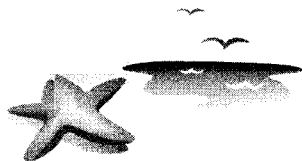
이에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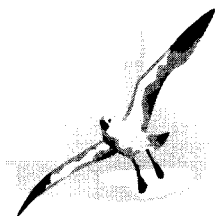
꽃은 누구에게 꺾일까봐
겁이나서 뿌리를
꼭 잡고 있다

하지만 사람의 힘은 너무 강해서
금방 끊어지고 만다

그럼 꽃은 언제나 시무룩하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시든 것처럼 보인다
그럼 사람은 버리게 된다

꽃은 어머니께 가고 싶지만
걸지 못하여
꺾인 꽃은 지금도 울고 있다





환경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 ‘씨앗을 지키는 사람들’을 읽고 -

돌마초등학교 3학년
이수경

이책에선 찬희라는 아이와 병곤이라는 아이가 미래에서 씨앗을 지키는데 자연을 아주 사랑하는 아이들 같다.

미래에는 씨앗이 아주 비싸다. 자연이 파괴되어서 비싼 것이다.

나도 이 두 아이처럼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겠다. 이 아이들은 조그만 씨앗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고통을 받으며 씨앗을 지켰다.

깨끗한 환경이 된다면 우리의 공기, 물, 자연이 모두 맑게 될 것이고 언젠간 나비와 벌들이 자유롭게 바람에 몸을 맡기고 부드럽게 나가기 바란다

나도 다른사람들을 위해서 자연을 지키겠다.

찬희는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것을 보니까 세제를 많이 쓰고, 샴푸를 많이 쓰고 그런 사람들이 자연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이제 알게 되었고, 환경을 지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를 약속하겠다.

또 전기도 많이 쓰는 그런 사람들도 눈꼽만한 씨앗이나 식물들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보존했으면 좋겠다.





외톨이 두더지에게 - ‘외톨이 두더지 우화’를 읽고 -

중탑초등학교 3학년

김난경

두더지야! 너는 친구가 없어서 참 쓸쓸하고 외로웠지?

네가 친구가 없는 이유는 친구들의 단점만 생각했기 때문이야. 아마 친구들의 장점만 생각했다면 너도 좋았겠고, 친구들도 좋았을 것 같아.

토끼를 처음 만났을 때 토끼가 너한테 친구하자고 했는데 너는 토끼가 몸이 너무 하얗고, 눈알은 또 너무 빨강다고 해서 토끼가 무안해서 도망갔잖아. 토끼의 좋은 점을 찾아주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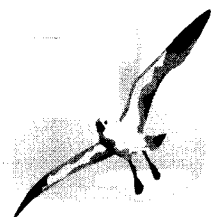
그리고 또.. 네가 멧새를 만났을 때 목소리가 참 곱다고 했지? 그 말은 좋지만 왜 돌맹이를 걷어챘어? 모두 너랑 똑같이 생겨야만 친구가 되는 건 아니잖아. 모두들 너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는데도 친구하자고 했잖아.

앞으로는 친구들의 장점을 많이 생각하면 친구들의 많이 사귄 수 있을 거야. 아참, 그리고 이름이 외톨이 두더지이니까 좀 쓸쓸하다.

내가 이름하나 지어줄게, 뽀뽀!

그럼 안녕.





아름답게 미친(?)사람들 -「미쳐야 미친다」를 읽고-

박선민(더불어독서회)

미쳐야 미친다?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제목이 주는 호기심에 이끌려 읽기 시작했다.

읽기 시작한 첫날부터 정민이라는 작가가 내뱉는 따뜻한 글 설명과 그 속에 쓰여 있는 아름다운 우리 옛사람을 하나하나 만나면서 책장을 넘기는 내내 감탄을 금치 않을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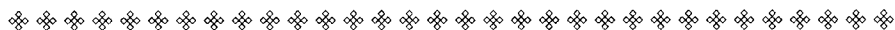
이 책에서는 조선시대 그야말로 무엇인가에 "미쳤던" 이들을 만날 수 있다.

천번을 읽지 않은 책은 읽은 것으로도 치지 않았던 독서광 김득신, 눈병에 걸려 눈을 뜰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실눈을 뜨고 책을 읽은 이덕무, 명철하지만 뛰어난 문장의 박제가, 조선에서 알아주지 않았던 천재 노궁, 이들을 만날수록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는 불광불급(不狂不及)의 뜻을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무엇인가에 미친 그들 옆에는 그들을 알아주었던 친구, 스승, 제자들의 따뜻한 우정과 공감과 기록이 있었기에 그들의 벽(癖, 버릇벽)이 그저 쓸데없는 자기 고집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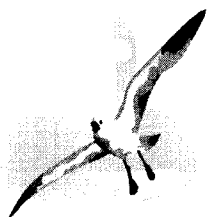
정약용과 황상, 세대를 이어가는 사제간의 우정과 홍대용이 그의 벗들과 함께 하는 거리음악회의 묘사는 눈물겹도록 아름답고, 정약용이 귀양간 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부인의 치마자락에 글을 써 딸에게 보내준 편지나, 막내아들을 잃고 쓴 제문을 읽고는 그 시대를 다시 생각하며 함께 울 수 있었다.

이런 '미친'사람들은 일상 속에서도 작고 소중한 낯선 것과 많은 글감들을 만들어낸다. 담배연기를 소재로 스님과 불교에 대해 공론을 펼치는 이육의 대사는 정말 담배연기처럼 공허하면서도 종교적이고, 등불 앞의



국화꽃 그림자를 같이 보기 위해 친구를 부른 정약용이나, 그것에 화내지 않고 같이 공감했던 친구 윤이서, 기행문을 통해 문장론을 기가 막히게 펼친 홍길주의 글은 감탄을 자아내고, 소낙비 오는 세검정을 보기 위해 일부러 폭우에 달려갔던 정약용과 그의 친구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도 흥겹고 기분 좋아진다.





‘지빠귀부리 왕’에 나오는 인물에 대한 성격과 이해

이선우(더불어독서회)

해피엔딩의 구조는 동화만이 가질 수 있는 즐거운 상상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다.

지빠귀 부리 왕도 예외는 아니다. 줄거리와 인물이 예정된 결론을 향하여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왕과 아름다운 딸, 그리고 부와 권력을 예감하는 또 다른 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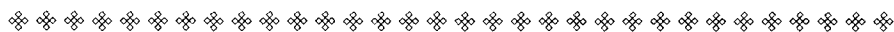
먼저 공주의 아버지인 왕은 폭군적인 권력지향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윗감을 손수 찾겠다는 의지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은 결혼할 만한 젊은이를 모두 한자리로 불러 모은 것과 큰 잔치를 벌인 것에서 볼 수 있다. 또 자신이 불러 모은 사윗감들을 공주가 모두 퇴짜를 놓았을 때, 불같이 화를 내며 딸의 미래에 대하여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은 사랑하는 딸에 대한 아버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결혼할 만한 젊은이를 모두 불러 모아 공주로 선택하게 한 것은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묘하게 위장한 것뿐이다. 이러한 독선적 의지의 관철은 본문의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려야 했습니다.’에서 볼 수 있다.

이런 아버지에 대한 반항이 공주를 오만하고 자존심 강하게 만들었으며, 결국 아버지가 불러 모은 젊은이들을 모두 퇴짜 놓는 것으로 아버지에 대한 적극적 반항의 표시를 하는 것이다. 또한 오만하고 자존심 강함은 공주의 narcissism적임과 ‘아, 가엾은 신세!~’라는 문장에서 자기연민에 빠져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한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행한 것은 공주가 수동적임을, 향아리 파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비웃을 것을 염려하는 것에서는 의지가 약한 것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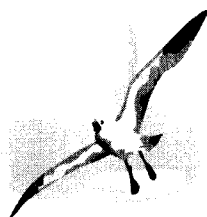
물론 이것은 폭군적인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으며 그런 이유로 공주의 남편도 공주를 쉽게 리드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지빠귀부리 왕은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 할 수 있다. 공주를 차지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에서 비열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에서 도전과 강한 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수동적인 공주에게는 잘 어울릴 수 있는 남편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당신의 콧대를 꺾고 당신이 내게 했던 무례한 행동을 벌하기 위한 것이었소’에서 공주의 아버지와 같은 폭군형임을 암시하고 권력지향형이라는 점에서도 공주의 아버지와 다를 바 없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한 치밀함은 왕으로서 백성을 치리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하겠다.

사족을 덧붙이자면 나는 남편감으로 지빠귀부리 왕은 사양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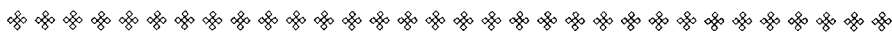


마당을 나온 암탉

과학샘독서회 김미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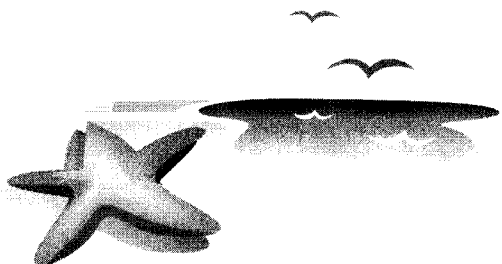
이 책을 처음 접할때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제목을 보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음 편하게 책을 들었다.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읽을수록 가슴은 초조해졌고 울컥해졌다. 하루종일 벅찬 감정과 나의 현재에 대한 회의때문에 혼란스러운 가운데 펜을 든다. 거친 바람,사나운 빗줄기를 견뎌내고 떨어져서는 거름이 되고 이듬해 봄 다시 초록색으로 태어나는 잎사귀. 그 모습이 좋아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잎싸이라고 지은 암탉의 이야기. 알을 품어서 병아리의 탄생을 보리라고 결심한 잎싸이 헛간 식구들에게 버림받고 떠돌아 다닐때는 마냥 그 모습의 초라함에 불쌍한 마음뿐이었다. 더 이상 알을 낳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가슴의 깃털까지 뽑아가며 정성스레 남의 알을 품을 때는 잎싸이 너무 처절하게만 느껴졌다.그러나 알에서 새끼가 나오고 그 새끼를 지키는 잎싸이는 강한 어미 그자체였다.그래도 한 순간도 안전할 수 없었던 떠돌이생활. 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모습을 볼때 나 자신도 그만 잎싸이 편안하게 안주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문득 나는 어떤 암탉의 모습으로 살아 가고 있나? 의문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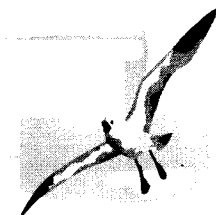
시간이 지나 오리의 우두머리가 잎싸이를 만나 이런 말을 한다."모양새는 그저 그렇지만 헛간의 암탉과는 다른 당당하고 우아한 무엇이 있다." 그리고 힘차게 날아오르는 초록머리를 보며 잎싸이를 존경의 눈으로 볼때 나도 잎싸이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럽기까지 했다. 결국 잎싸이의 꿈이었던 초록머리를 떠나 보내며 기꺼이 족제비새끼의 먹이가 되기를 자처하는 잎싸이의 죽음을 보며 죽음조차도 위대할 수 있다는 걸 느꼈다. 이제 자유로이 날으는 잎싸이.



우리에게 꿈이란 무엇인가?

꿈이란 기적을 만들고, 꿈이 있어 힘든 삶도 외롭지 않고 위대할 수 있다. 꿈이란 우리에게 그런 것이다.





책이 없는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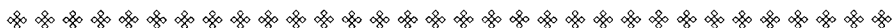
과학샘독서회 이 경 수

“책이 없는 나는 있을 수 없다”

나는 감히 이렇게 말을 한다. 그만큼 책은 나의 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다.

내가 언제부터 글을 읽게 되었으며, 제일 먼저 읽은 동화책의 제목이 무엇인지 생각은 안 나지만 나의 어린시절을 생각하면 시골 대청마루에 엮드려서 책을 읽던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 시골에서 책을 구하기는 어려웠지만 난 이유 없이 책에 끌렸다. 초등학교 때 삼촌과 언니들이 읽던 ‘부활’, ‘폭풍의 언덕’ 등의 책을 읽었다. 정확히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읽었다. 지금 만약 우리 아이가 이런 책을 읽는다면 당연히 말리겠지만 그때의 난 종이에 글만 인쇄되어 있다면 무조건 읽었다. 늦은 밤, (그때만 해도 내가 살던 시골에는 전기가 귀했다) 혼자 깨어서 책을 읽고 있노라면 아버지의 헛기침 소리가 몇 번 들렸다. 그 소리에도 내가 계속 책을 읽고 있으면 그 후에는 어김없이 아버지의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아마도 하지 말라는 것이었기에 난 더 열심히 책을 읽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느낌을 나만의 언어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나의 책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다.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고 글을 쓰는 것을 좋아했지만 영성함 그 자체였다. 내가 책을 옆에 두고, 또 항상 무언가를 적었기에 그 영향으로 아이들도 책을 좋아 했지만 엄마의 욕심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이왕 읽는 책, 보다 더 재미있게 읽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다. 그래서 몇 년 전 분당도서관에서 ‘자녀독서지도’ 수업을 듣게 되었다. 처음에는 아



이를 위해서 듣기 시작했지만 수업이 더해갈수록 그것은 나를 위한 공부였다. 나이를 먹어 아이들처럼 공부를 한다는 것도 재미있었고,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책과 관련된 것이었기에 더 재미있었다. 또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부를 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도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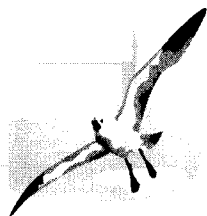
‘책 읽어’ 하고 말로만 하는 엄마에서 아이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책을 읽는 엄마가 되었다. 그러면서 난 또 공부라는 것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다. 학창시절에는 듣지도 못했던 ‘모범생’이라는 단어와 친해지게 되었다. 난 지각이나 결석을 하면 무슨 큰일이 나는 줄 알았고 숙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해야 되는 걸로 머릿속에 입력하기 시작했다. 그 덕분에 지금은 누구나 알아주는(?) 모범생이 되었다.

옛 말에 ‘잘 한다고 자꾸 칭찬을 하면 더 잘 한다’는 말처럼, 나는 다른 사람들이 인사말로 던지는 ‘잘 한다’는 그 말에 자신감을 얻었고 그래서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한다. 이것 저것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하는 후회 아닌 후회도 하면서, 또 며칠을 밤을 새며 수업 준비를 하면서 몸은 피곤하지만 나의 가슴에는 뿌듯함이 함께 한다. 그러면서 난 중요한 것을 느낀다.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에 얼마나 재미를 느끼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때도 우선 재미를 느끼도록, 스스로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기 위해 노력한다.

지금도 난 책과 씨름한다. 아니 ‘씨름’이라는 단어를 부치기엔 책에게 미안하다. 온 집안을 책으로 가득 채우고 싶을 만큼 욕심을 부린다. 도서관에 있는 책이 모두 나의 책이었으면 하는 가능하지도 않은 꿈을 꾸기도 한다.

책과 씨름하는 나, 책과 함께 하는 나. 이런 나의 모습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





어린이 독서회 1년을 마치며...

어린이 독서회 1학년
강사 이정진

3월,
유아의 어린 몸짓이 그대로 배어 나오는 초등 1년생들과 1학년 독서회가 시작되었다.

지금은 12월,
세월이 참 많이도, 빨리도 지나갔다.
이제는 2학년 책을 받았다고 성급하게 자신들이 2학년이 된 것으로 굉장한 착각을 하고 있는 여전히 귀여운 아이들.

하반기에 접어들수록 ‘선생님, 이 글자 어떻게 써요?’라는 질문이 줄기 시작했고 장난은 심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엄마와 같이 씩씩하게 도서관에 오는 모습을 보면 여간 대견하지가 않다.

처음부터 무척 점잖았던 성환이, ‘컴퓨터’를 꼭 ‘킴퓨터’라고 굴려 쓰는 성재, 언제나 씩씩한 창희, 더 이상 수줍쟁이가 아닌 경서, 책을 좋아하는 윤, 특공무술소년 진성이, 이것저것 아는 것이 참 많은 승현이, 영어도 한국말도 어렵다던 상우, 심한 감기로 많이 아파 살이 쏙 빠져 맘 아프게 했던 태현이, 간식 먹은 티를 꼭 냈던 동건이, 꼼꼼하게 모든 활동 잘하는 문경이, 허스키한 목소리가 매력적인 윤재, 항상 제일 먼저 끝내는 민중이, 어른스런 외모에 귀여운 목소리의 주인공인 혁이, 늦게 들어왔지만 참 열심히 한 하은이, 스마일 상을 주고 싶은 성완이, 발표 참 잘했던 민지, 이름과 얼굴 많이 헷갈렸던 그래서 미안했던 수인이와 연서, 정말 별 같이 반짝이는 은별이, 차분하게 이야기 잘하는 승우, 집중해서 글 쓰는 모습이 정말 매력적인 태원이, 또래보다 어른스러운 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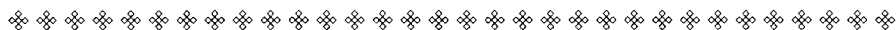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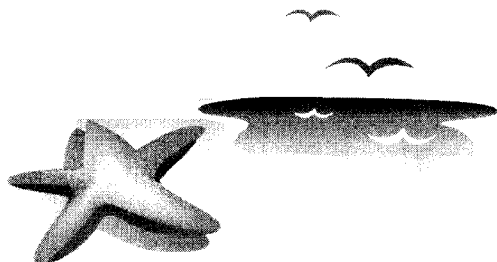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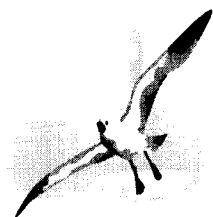
글씨를 아주 잘 쓰는 재형이, 다리 다쳐 깁스해도 여전히 활발했던 경준이, 제일 귀여웠던 동현이, 안 예쁜 데가 없는 태선이, 욕심 많아 맘 잡으면 진짜 열심히 했던 병찬이...

아이들 한명 한명을 알아가며 같이 수업 진행하며 이야기 나눴던 시간들.

1년 과정의 독서회가 끝나가면서 아이들에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나 생각해보게 된다. 아이들 입장에서 어려울 때도 있었고, 약간은 지루할 때도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가져가지는 못하겠지만 눈 초롱초롱하게 뜨고 책에 깊게 빠져있는 아이들을 보면 틀림없이 책을 사랑하는 아이로 성장하리라 믿는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수업에 참여했던 아이들과 더불어 그 아이들을 열심히 데려다주신, 특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챙겨주신 어머님들에게 박수를 보내 드리고 싶다.





도서관과 이야기 할머니의 만남

2학년 독서회
임경애

도서관에서 날마다 아이들을 만나는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과 미소를 보면 정말로 사랑스럽다. 그래서 나는 나의 직업이 마음에 든다.

각 도서관에 수업을 하러 다니다 보니 도서관의 활용과 참여에 대해서 가끔씩 생각해 본다. 담당사서 선생님들은 살아있는 도서관으로 만들기 위해 모두들 노력하신다. 그리고 꿈으로 가득 찬 아이들을 모아놓고 자원봉사 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셨는데 정말 존경스럽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를 찾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 하는 도서관이 많았다. 모두들 맞벌이에 바쁘고, 또 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는 현대 문명사회에 맞추어 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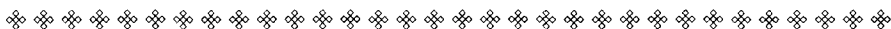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서울시에서는 <노년설계를 위한>사업으로 “이야기 할머니 교육”을 하였다. 이 교육을 받은 할머니들은 각 도서관이나 어린이집, 유치원등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

이야기 할머니 교육은 독서교육의 첫 단계로서 아이들에게 혹은 책에 흥미를 붙이지 못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림책을 읽어 주는 것이다.

이야기란 원래 할머니들의 전유물이어서 할머니들이 해줄 때가 가장 맛깔스럽다. 또한 이야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것이기에 아이들은 이야기의 세계로 독서의 세계로 빠져든다.

“노인네가 뭘~~~, 할머니가 어떻게~~~”하고 스스로 위축되었던 분들이 이 교육을 받으면서 제3의 인생을 산다고 말씀하셨다.

내 손주 손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림책을 읽어주고, 함께 책을



읽으면서 가족의 문화가 바뀌었다고 좋아하셨다.

바쁜 엄마 대신 이야기 해주고 책을 읽어 주면서 손주들에게 모든 지혜를 나누어 주고 싶다는 할머니의 말씀에서 이청준 선생님의 “할미꽃은 봄을 세는 술래란다” 라는 책이 생각났다.

교육을 마친 많은 할머니들이 도서관으로 봉사를 나가시는데 아이들이 “할머니 이야기 해 주세요~~~”라고 조르면 ‘그래 나도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생의 즐거움을 찾는다고 하신다. 그럼으로 인해 도서관은 훌륭한 자원봉사자를 얻고, 할머니들의 노후는 빛나고..... 이것이야말로 일석이조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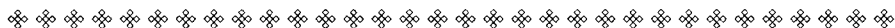
나는 성남 사람이다. 성남에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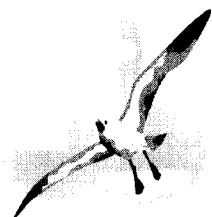
내 아이들은 성남이 고향이다. 성남에서 태어났고 성남에서 자라고 있다.

그래서 말인데 성남에 사시는 할머니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성남에 사는 어린이들도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껏 상상의 날개를 펼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할머니들의 노년에 화려한 삶을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지혜와 슬기와 사랑을 나누어 주고 보람을 찾는다면 좋겠다.

아인슈타인은 “어린이를 천재로 만들려면 수백만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하였다.”

할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란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세계의 주역이 되리라고 믿는다. 나도 할머니가 되면 도서관에 가서 이야기 봉사를 할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아이들과 만나는 나는 참으로 행복한 노년이 될 것이다.





저무는 해를 안고 있는 가을 단풍을 보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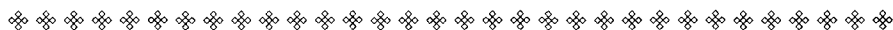
3학년 독서회
강사 정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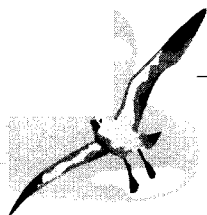
내가 처음 도서관에 발을 들인 것이 2003년 가을이었다.
문을 연지 얼마 안 된 도서관은 건물만 웅 하니 내 눈에 들어왔다. 주변의 나무들을 보면서 ‘빨리 커서 따뜻해 보이는 도서관이 되어줘’를 외치며 도서관을 왔다 갔다 했다. 자연은 정직하다고 누가 말했던가? 오존본 도서관의 가을은 내 마음을 뺏어가기 충분했다. 그냥 빨강고 노란색이 아닌 저무는 해를 안고 있는 가을 단풍의 모습은 내 발걸음을 더디게 하면서, 그리운 이에게 전화를 하게 하는 마력까지 발휘했다.

우리 아이들도 이 멋진 가을을 느낄까?
남편과 나는 두 아이들과 여행하는 것을 좋아한다. 도착해야 할 목적지도 좋지만 가는 길목 길목의 모습이 좋아서 남편과 나는 표현할 수 있는 감탄사를 모두 동원해서 아이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아이들은 ‘아빠, 엄마는 뭐가 그리 좋아서 그러지?’ 하면서 멀뚱하니 있을 때는, ‘왜 느낌이 안 오니?’ 하며 속으로 물어본다.

우리는 ‘아이들이 느끼면서 알아가는 것에 참으로 인색하지 않았나?’ 하고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아이가 감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기다려 주지 않았다. 아이 특유의 사물을 보는 법, 느끼는 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해주지 못했다.

학력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학벌과 학력을 위해서 진정한 의미의 교육을 포기하고 있다. 공교육의 위기가 거론되면서 학습지에 미술





두 친구

- 현덕의 <나비를 잡는 아버지>와
<군밤 장수>를 읽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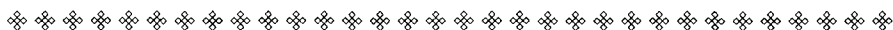
과학샘 독서회
우현주

1930년대를 이야기한 현덕의 작품 <나비를 잡는 아버지>와 <군밤 장수>는 모든 게 풍요로워 보이는 요즘엔 어딘가 낯설어 보일 것이다. 우리보다 앞서 살아간 세대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만큼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그러나 심정적이고 정서적인 면으로 다가가 보면 지금과 다를 것이 없다.

<나비를 잡는 아버지>에서 두 친구는 빈부의 차이만큼이나 자존심과 적대감이 두드러진다. 나비 때문에 벌어지는 두 친구간의 싸움은 단순한 나비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기 싸움이다. 바우에게 자신보다 공부와 머리로 뒤처지던 경환이의 서울유학이 곱게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가진 것 없이 남의 땅을 빌려 경작하는 일로 간신히 먹고 사는 주제에 자신에게 끝까지 굶히지 않는 바우 또한 경환에겐 달갑지 않은 것이다.

결국 집안 간의 문제로 확대되어 바우가 나비를 잡아 경환에게 주라는 압력이 온다. 그러나 바우는 모른 채하고 바우의 아버지가 혼자서 나비를 잡으려 애쓴다. 바우에게 있어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감동으로 다가 오지만, 예나 지금이나 빈부의 격차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굴욕을 느끼게 하는 면 또한 간과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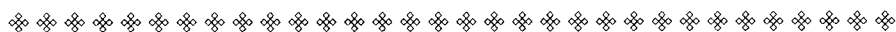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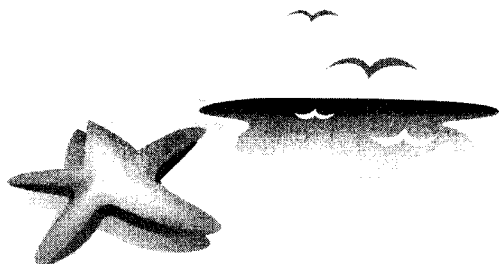
지금보다 1930년대에 훨씬 흔했던 일이지만, 같이 공부하던 친구 중에 가정형편상 상급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안일을 돕거나 생계를 위한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만 하는 상황은 늘 있어온 일이다. 단지 친구일 뿐이었는데 졸업 후 서로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친구라고 이야기하기에도 웬지 조심스럽다. 그러나 인생엔 언제나 반전이 있게 마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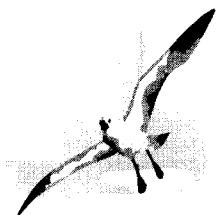


<군밤 장수>에서는 같은 상황에서 시작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다. 학교 때 공부와 그림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해 천재라고까지 인정받던 성만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살림이 궁색해져 군밤장수를 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기수는 성만을 돕기 위해 성만의 그림을 사거나 그림재료를 사다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친구를 돕는다. 기수는 어느 어른들보다 어른스럽고 훌륭한 인격을 보여준다. 나중엔 작은 아버지를 통해 취직을 시켜주기까지 한다. 어리지만 친구의 재능을 인정해 주는 마음이 <나비를 잡는 아버지>에서 보여주는 친구들 간의 알력다툼과 대조된다.

세상에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항상 같은 결과를 맞이하지는 않는다. 자신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위에서처럼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도 달라진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친구에 가까울까? 모든 것이 풍족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만도 않은 요즘, 어린 기수에게서 배워야 할 교훈과 인간미가 새삼스럽게 다가온다. 친구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볼 수 있는 여유가 아쉽다.





꿈을 심으며

5-6학년독서회
강사 정혜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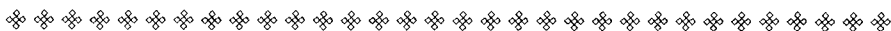
독서회 수업을 할 때면 초롱초롱 쳐다보는 5, 6학년 학생들의 눈빛에서 더욱 긴장감을 느끼고, 또 그 아이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어느 날 모자 열람실을 나오는데 누군가 인사를 한다. 작년에 나에게 독서회 수업을 받은 학생 이었다. 지금은 중학생이 되어 일 년 전에 봤던 그 옛된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선생님 왜 중학생은 독서회 수업이 없어요?”하며 물었다. “중학생은 바쁘잖아, 보현이 정말 오랜 만이네. 요즘도 도서관 열심히 다니니? 중학생 되니 많이 바쁘지.” 우린 도서관 사서 선생님의 눈치를 보며 밖으로 나왔다. 작년 독서회 수업 동안 결석도 안하고 정말 성실한 학생이었다. 토론 수업하는 것을 좋아하며 웃음이 많아 스스로 ‘깔깔 마녀’라고 소개하며 깔깔거리던 모습이 눈에 선했다. 예쁘게 크고 있는 모습에 마냥 흐뭇했다.

일 학기 때 한 학생이 연락 없이 결석해서 집에 전화를 했더니 엄마는 도서관에 간 줄 알고 그 학생은 쇼핑센터에 가서 쇼핑하고 아이들하고 돌아다녔다고 한다. 그 학생은 죄송하다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다.

힘든 시험 끝내고 해방감에 친구들과 돌아다니고 싶은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 하루 종일 학원 스케줄에 이끌려 다니는 학생들이 안쓰럽기도 했다. 하지만, 내 수업이 학생들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더 큰 짐이 되지 않았나, 나 자신을 되돌아본다.



학생들에게 포근한 휴식의 공간으로서 도서관을 생각하게 할 수는 없을까?

책을 통해서 감정의 정화를 느끼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과 호기심을 품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기억되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모두 내 책임인 듯, 학생이 쇼핑센터에 간 것이 내 잘못된 양 그 학생에게 도리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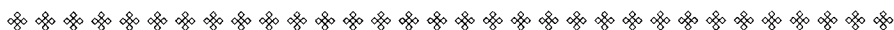
또, 장 지오노가 쓴 ‘나무를 심은 사람’이란 책에 나오는 양치기가 생각났다.

이 책은 장 지오노가 프랑스 지방을 여행하다가 한 특별한 노인을 만나면서 시작 된다. 혼자 살면서 여러 해 동안 끊임없이 나무를 심는 양치기였다. 그는 오랜 세월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묵묵히 해마다 나무를 심고 가꾸어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양치기는 자신의 노력이 헛벗은 대지와 그 위에 살아갈 사람들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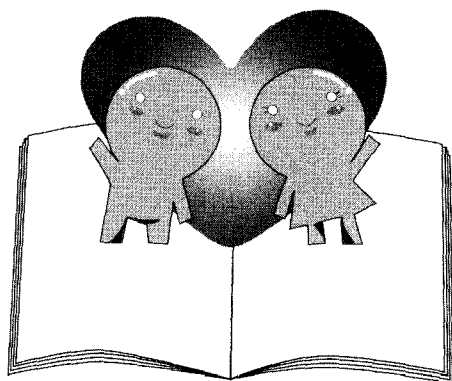
양치기가 도토리를 심듯 나도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다.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 기름진 옥토가 되고 참나무에 도토리가 탕글탕글 영글어가듯 그들에게 좋은 책을 권해 주어 책 속의 매력으로 폭 빠져 헤엄치고, 책과 더불어 성숙했으면 한다.

찬란한 별꽃이 흐르며 반짝이는 소중한 아이들의 눈동자 속에서 가슴 뿌듯함을 느낀다.

오늘도 나는 양치기처럼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문화교실 글모음





일본어 강의를 듣고 난 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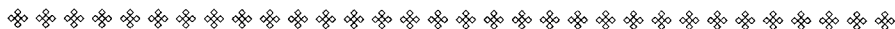
생활일본어반
이현선

나는 집에서 살림을 전업으로 하는 주부이다.
어느 날 지역신문을 보던 중 중앙문화정보센터에서 일본어를 가르쳐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고 일본어를 배우게 되었다.

50대 중반을 넘은 나이에 일본어를 배우다 보니 생소하게만 보였던 히라가나 가타가나를 읽고 쓰면서 배우는 즐거움을 느꼈다. 하지만 시작의 단계에서는 강의가 끝난 후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오면 금방 잊어버리고 책을 보면 문득문득 떠오르니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열심히 배워보자는 신념으로 복습도 하고 문자를 천천히 익혀나가다 보니 재미도 생기고, 일본어 선생님도 잘 가르쳐 주셔서 자신감을 가지고 배우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세계화가 되어가는 이 시대에 다른 나라의 말도 배워두면 유용하고, 딸아이의 일본인 친구가 집에 놀러 와도 인사와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늦게 시작한 제 2의 배움의 길이지만 용기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니 즐거움도 느끼고 뿌듯한 마음도 생긴다. 집에서 20분 거리에 위치한 문화센터에 다니다보니 체력단련에도 도움이 되고, 깨끗하고 조용한 도서관을 가까이 하다보니 정신건강에도 매우 좋다는 것을 느낀다.





생활중국어 수강생

이성재

성남시민을 위하여 성남시립중앙도서관에서 중국어 반을 개설 중국어 교육을 하므로 인하여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수강생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중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참가법위와 동기를 살펴보면 참석자 대부분이 여성으로서 자기계발을 위한 분과 자녀들의 중국어 공부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분, 중국 여행 때 활용하려는 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중국어 공부를 시작한분들 등 또 퇴진 후 국제화 세계화시대에 발맞추어 중국어 공부를 함으로써 시대흐름에 따라 갈 수 있는 것 같고 또 육체 및 정신적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계발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어 중국어공부를 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중국어 공부를 하기 전에는 중국 여행에도 상대방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여 불편하기는 하였지만 도리 없이 일방적 영어로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중국어공부를 시작한후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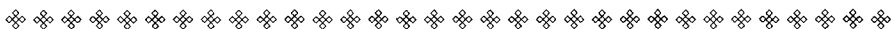
가. 힘들기는 하지만 중국어로 대화를 하려고 시도 노력하였으며,

나. 일주일 화목 2회 공부로는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되어 EBS와 방통대 중국어 강좌를 청취하게 되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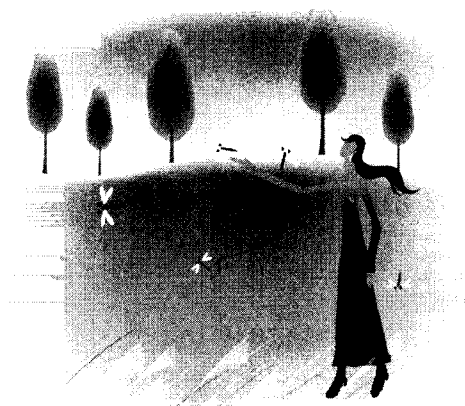
다. 내년학기(2007. 3월중)에는 방통대 2학년 편입할까 생각도 하고 있으며,

라. 중국에 여행갈 때마다 눈과 귀에 들어오는 것이 많아지는 것을 느끼고 본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어 너무나 기쁩습니다.

아무쪼록 교육기회도 늘려주시고 교육과정 수준도 조금씩 높여 중국어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마련해 주신다면 국제화,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되어 감히 욕심을 부려 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본인에게는 교양적인 측면에서나 건강측면에서도 너무나 좋은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거듭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생활일본어반을 수강하며

생활일본어반
강승희

제가 일본어 수업을 듣게 된 계기는 저희 오빠가 본사 발령으로 지금 현재 일본에 거주 중인데 일본어 밖에 할 줄 모르는 조카에게 전화를 하면 통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일본어 공부의 필요성을 점점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어 공부에 대한 생각만 있었지 실행에 옮기진 못하던 터에 마침 성남시립중앙도서관 문화교실의 초급 일본어 클래스 모집 공고를 접하게 됐고, 운 좋게 선착순 접수에 들게 되어서 히라가나도 모르던 제가 마침내 일본어 공부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하는 일본어 공부라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외우는데 한자 비슷하게 생긴 것 같으면서도 또 다르게 생긴 일본 글자 모양을 눈에 익숙하게 익히는것도 힘들었지만, 차차 신간이 지나고 일본어 글자가 눈에 들어오면서 꽤 일본어 문자가 귀엽고 예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회사 일로 수업에 참가하지 못해서 수업을 따라가기가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한주 한주 수업에 참여하며 공부양이 쌓임에 따라 조금씩 내가 서툴지만 일본어 글을 읽을 수 있고 간단한 문장도 만들어 말할 수 있게 되니 일본어에 재미가 붙어서 어느덧 일주일에 두 번 있는 일본어 수업 시간을 기다리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도서관에서 하는 무료강좌이기에 수업의 질에 대해선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막상 수업을 들어보니 학원에서 수강하는 것 이상으로 강의 질이 좋은 것에 매우 만족스럽게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를 가르치시는 일본어 선생님께서는 수업시간에 따분할 지도 모르는 주입식 강의를 하지 않으시고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유도하시며,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꼭 질문함으로 주중에 공부를 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셔서 그에 못 배긴 학생들이 조금 줄어드는 아픔(?)을 겪기



도 했지만 저는 오히려 선생님의 강의 방식에 감사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수업이 끝나고 집에 오면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을 테니까 말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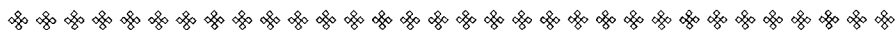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 중간 중간 일본 문화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수업 시간 외에 특강으로 일본의 지리와 재일동포 문제를 다뤄 주시기도 하셔서 대단히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 일본어 클래스는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연륜이 많으신 어르신들께서 수업 시간에 더 대답 잘 하시고 더 열심히 일본어를 공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든 불구하고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그 분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어제는 주말이라 일본에 있는 조카에게 전화를 걸어 그 동안 같고 닮은 일본어로 간단하게 통화를 했습니다. 물론 조카가 뭐라뭐라 하는 말은 못 알아들었지만 내가 조카에게 일본어로 얘기했다는 뿌듯함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계속 일본어를 공부해서 내년에 오빠가 있는 일본에 놀러 갈때는 현지에서 유용한 일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일본어에 무료로 입문할 기회를 제공해 주신 성남시립중앙도서관과 저희 일본어 클래스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생활일본어를 들으며

생활일본어반
임경미

일주일에 두 번 있는 일본어 수업을 들으러 도서관에 가는 일은 지난 몇 년 동안의 나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나의 4살짜리 딸(또는 5살 - 1월생 이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매일 엄마와 집에 있거나 문화센터에 가서 한 두 가지 수업을 엄마와 함께 하던 딸도 엄마가 일본어 수업을 하는 동안에 어린이 집에서 일주일에 두 시간씩 친구들과 선생님과 어울려 지내게 되었으니까 말이다. 처음에는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나름대로 그 시간을 즐기는 듯하다. 엄마는 그동안 일본어 공부를 한다는 것도 알고, 심지어 많이 배워서 자신에게 가르쳐 달라는 주문까지 한다. 아이를 키워본 분들은 알겠지만 아이가 양육자와 떨어지는 일은 크나큰 숙제이다. 그런데 딸아이와 나는 도서관을 이용함으로써 이 어려운 숙제를 수월히 해내었다. 생활 일본어 수업은 이렇게 나와 딸에게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대학원 다닐 적에 학교에 있는 언어교육원에서 일본어 과정을 마쳤었다. 그것이 벌써 8년 정도 된 일이다. 그 후에 딱히 일본어를 써먹을 일이 없었고 게다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일본어와는 담을 쌓게 되었다. 사실 언어교육원과정을 마쳤을 때도 아직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담까지 쌓고 살다보니 더 잘하고 싶다는 나의 희망과는 반대로 그나마 해 놓았던 것마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위기감마저 있었다. 그러던 차에 우연히 도서관 홈페이지를 보는데 수강생을 모집하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어린이 집에서 아이도 보아준다니 일석이조였다.

일단 신청을 하고는 2가지가 걱정되었다. 그래도 예전에 했던 것이니까 쉽겠지 하는 생각과 아이가 과연 나랑 잘 떨어져서 내가 수업에 계속 참



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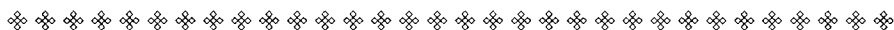
아이가 떨어지는 문제는 한 주 정도 고생하고는 무난히 이루어져서 출석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수업에 대한 걱정은 예상대로 예전에 했던 것들이 그래도 좀 기억이 나서 어렵지는 않았다. 그러나 첫날 수준을 알아보시려는 선생님의 테스트에 하라거나 50음도도 제대로 다 채울 수가 없었다. 어떤 글자가 갑자기 생각나지가 않았다. 한자도 쉬운 것도 쓰기가 되질 않고 머리에서 가물가물한 것이 잡히지가 않는 것이다. 역시 언어는 오래 쉬면 안 된다는 교훈을 체득하는 시간이었다.

9월부터 12월까지의 수업에서 벌써 반을 넘어갔다. 처음 시작할 때의 인원보다 훨씬 줄었지만 그 대신 알곡만 남았다고나 할까 나오시는 분들은 모두 열심이다. 일본어라 그런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그 공부에 대한 의욕과 노력에 고개가 숙여진다. 나도 저분들만큼 나이가 들어서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게 된다.

수업은 초급자 대상이라고는 하지만 정말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울 것 같다.

나는 그나마 옛날에 했던 기억을 더듬어 따라간다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 수업을 따라 간다는 것은 참으로 존경스러운 일이다.

개인적으로는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높다. 나는 잊혀져가는 일본어에 대한 감각과 자극을 주고 싶었고 그런 정도의 나의 목표에는 부합하였다. 좀 더 바란다면 그 다음 과정이 개설되면 금상첨화라고 하겠다.





일상에서의 의식 수준 변화에 대한 단상

안용주

봄이다.

연초록 새순이 뼈죽이 고개를 내밀며 기지개를 켜는가 싶더니 어느새 온 세상이 초록빛으로 싱그럽기만 하다.

내가 부모교육을 받기 시작한지도 벌써 두 달이 다 되어간다. 이상하게도 배우면 배울수록 부모역할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지 다시금 느끼게 된다. 오히려 아무것도 모를 때 보다 조금 알고 나니 행동하는 모든 것들에 브레이크 장치가 된 듯 주춤주춤 하는 내 자신의 모습과 자주 맞닥뜨리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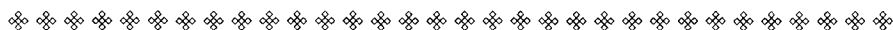
지난 어느 수요일 학교를 마친 아이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엄마,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어떤 것 먼저 듣고 싶으세요?” 하고 큰 소리로 질문을 던진다.

“글쎄, 이왕이면 좋은 소식 먼저 들을까?”

하는 내 말에 아이는 신이 나서 학교에서 발표를 잘해서 칭찬을 받았다는 말을 전한다. 정말 기쁘겠다며 안아주는 나에게 아이는 쭈뼛쭈뼛하며 나쁜 소식이라며 다른 나머지 소식을 전한다.

“나쁜 소식은요. 과학 시험 문제 반도 못 풀었다는 거여요.”

목소리마저 기어들어가며 말하는 아이의 얼굴에 걱정이 그득하다. 잠시 나도 조용히 생각에 잠긴다. 어제 공부한다며 책을 들여다보고 해서 칭찬도 들었는데 어째서 문제를 다 풀지 못 했을까? 순간 갈등이 생긴다. 따져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묻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빙빙 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나의 브레이크가 발동하면서 난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 이유를 물었다. 아이는 시험지를 늦게 받았



으며 친구들과 장난을 치느라 시험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말을 한다.

세상에나 시험 시간에 충실해도 다 맞추지 못하는 법인데 장난이라니....

답답하고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아직 저학년이어서 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일까?

어제 공부한 것을 제대로 다 실력 발휘하지 못해서 속상하겠구나 하면서 아이의 반응을 살폈다. 아이는 조그마한 목소리로 그렇다고 대답하더니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한다.

학교에서 듣는 원어민 영어 시간이 다 되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시간이 촉박하여 저녁때 다시 이야기를 나누려고 마음먹고는 아이에게 네가 한 행동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줄 것을 부탁하고는 학교로 보내려 했다.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오늘 영어 수업을 빠지고 싶단다.

아마도 단어시험을 본다고 했던 것이 좀 부담스러웠나 보다. 아이에게 시험은 못 보아도 괜찮지만 그것 때문에 빠진다는 것은 안 좋은 것 같다고 했다. 징징거리는 아이를 달래서 시험시간에 아는 것만 쓰고 오라고 네 현재의 실력이 좋은지 나쁜지 알아야 네가 그 다음에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도 했다. 아이는 내키지 않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문을 나섰다.

아이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머리까지 지끈지끈 아파온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떻게 말해야할까? 부모교육 선생님은 이런 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일단 상황이 파악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에 친분이 있는 아이 친구 엄마에게 전화를 했다. 마침 아이가 전화를 받는다. 같이 장난치느라 시험문제를 둘 다 못 풀었다는 말이 생각나서 인사말 후에 “오늘 과학시험 다 못 풀어서 너도 많이 속상하겠구나?” 하고 말을 붙였다. 그런데 아이 말인즉 자기는 먼저 다 풀고 놀았다고 하고, 또 우리 아이는 만화책까지 보느라 그랬을 것이라는 말을 한다. 아니 우리 아이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 순간 학교생활에 대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한참을 망설이다 담임선생님께 전화를 드렸다. 아무래도 수업시간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너무 걱정이 되었다. 그런데 선생님 말씀



이 오늘 시험시간에 우유를 쏟고 시험지를 바꾸고 뭐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 평소에 수업태도는 좋다고 말씀하시며 시험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한다. 다행히 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모양이다. 하지만 아이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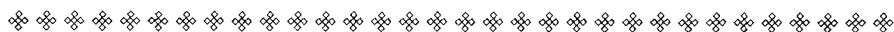
아이는 밝은 얼굴로 집에 와서는 다른 아이들은 자기보다 단어도 더 모르는 것 같았다며 학교가길 잘했나? 내가 바란 것은 이런 상황이 아닌데...

평소 아이가 좋아하는 스파게티를 먹고 날도 좋으니까 산책을 하자고 했다. 아이는 흔쾌히 따라 나와서 기분이 좋은지 팔랑팔랑 뛰어다닌다.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학교생활이 재미있냐고 물었다. 아주 재미있단다. 그래서 좋아하는 책이 무엇이나 만화는 어떤 것을 좋아하는냐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끝에 시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아이는 야단치려고 그러나 하는 듯 그 이야기는 안하면 좋겠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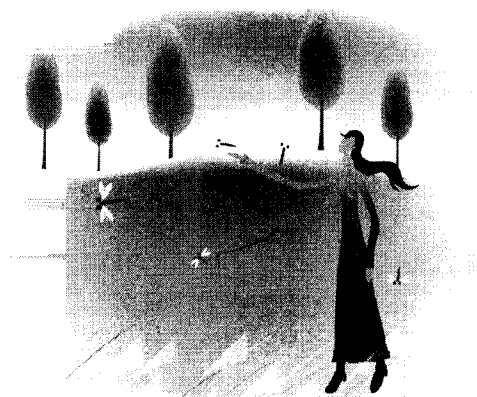
그래서 엄마 학창 시절이 떠올라서 그렇다면서 없는 이야기까지 지어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미 아이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된 것인 줄 안다. 그리고 솔직하게 나에게 이미 말을 했었다. 더 이상의 질문은 아이에게 별로 득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시험이 어떤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했다. 시험은 타인과의 비교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대결임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아니 내 아이가 어떻게 이럴 수가 하는 무기력의 마음에서 슬픔이라는 감정을 거쳐 실망스러워하는 욕망의 마음이 들었었다. 또한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분노도 잠시 일어났으며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자존심의 단계에도 머물렀었다. 그러다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며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다보니 잘 할 것이라는 용기도 생기고 솔직하고 밝은 아이의 모습에서 만족하는 중용의 마음이 들었으며 마침내는 아이를 믿어주고 용기를 북돋워 주어야겠다는 자발성의 의식수준 단계까지 도달했다.



자녀교육관 정립 시간에 배웠던 의식의 지도라는 것이 아직은 많이 낯설어서 억지로 끼워 맞춘 퍼즐처럼 영 어색하기만 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의식의 지도라는 것에서 추구하는 이상에 도달하려면 아직도 가야할 길이 한참이나 멀었다는 것이다. 결국 내가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자각만이 또렷하게 각인되었다. 하지만 그 길이 멀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길은 우리 미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므로...





나의 사랑하는 생활 -행복과 감사-

허경옥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을 떨며 종종 거렸다. 하루 종일 이런저런 일들을 보며 드디어 알타리 김치를 담갔다.

발갡게 버무려진 알타리 무를 보며 신랑이 한입 먹어보고, 매운 것을 좋아하는 아들도 한입 먹어본다. 매운 것이라면 질색을 하는 작은 딸도 덩달아 먹어보겠다고 나선다. 모두 맛있다고 한 번 더 한번만 더 한다.

갓 담은 알타리 무가 뭐가 그리 맛있으랴, 덜 익어 아직 매운맛이 강한 무 일텐데... 한 통 그득 담긴 김치 통을 보며 나도 모르게 내가 예쁘고 마음이 부자가 된 듯 행복했다. 그리고 맛있다고 말해주는 내 가족이 있어 난 더 행복했다.

늦은 저녁 아이들을 재우려 책을 한권 집어 들었다. ‘주만지’-오늘따라 책이 더 재미있나보다. 책 속에 푹 빠져들어 상상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한없이 귀엽고 사랑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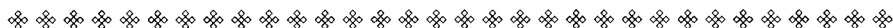
나는 책들에게 항상 감사한다. 부모로서 채워주고 싶지만 채워 줄 수 없는 것들을 책들은 가득가득 아니 넘치도록 채워준다.

이런 책들을 도서관에서 언제든지 빌려 볼 수 있다는 것 또한 감사하고 행복하다.

듣고 싶은 강좌를 듣기위해 새벽부터 줄서고, 컴퓨터 앞에 앉아 수강 신청하는 긴장감과 즐거움을 주는 도서관이 있어 좋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나 자신을 찾기 위해, 아이들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길을 찾는 곳에 도서관이 있어서 행복하다.

내일 아침은 날씨가 춥다한다. 베란다 밖에 걸어 놓은 화초들을 더 늦기 전에 안으로 들여왔다.



“가을이 왜 이리 덥지?” 했더니 단풍을 채 느끼기도 전에 가을이 저만치가 버리고 겨울이 왔다.

집안으로 들어 온 화초들을 보며 난 또 행복에 젖었다. 여름내 밖에서 자라서 화초들이 더 싱싱하고 튼튼했다. 대견한 것들- 너무 예뻐다.

사람들은 날 보고 꽃만 보면 눈빛이 달라 보인다고들 한다. 내가 생각해 도 그런 것 같다. 꽃가게에 있는 화초들을 다 우리 집에 옮겨 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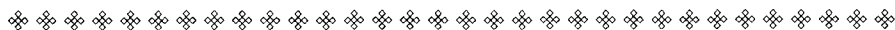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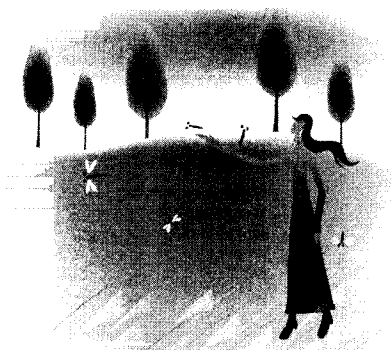
‘째깍째깍’ 시계 바늘 소리가 귀에 들어온다.

포근한 잠자리가 그리워지는 시간이다. 그런데 신랑은 맥주한잔 하자며 맥주와 안주거리를 준비해 온다.

히~~ 이런 자상한 남편이 있어 난 너무 행복하다.

오늘 하루도 이렇듯 행복하고 감사하게 끝나간다. 이런 사랑하는 생활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도 드려본다. 음~~~ 난 이런 나의 생활을 너무 너무 사랑한다.

정 · 말 · 로...!





‘가르치려고’ 만 애썼던 날들

박미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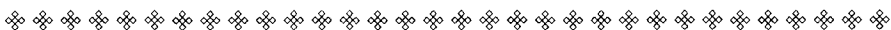
‘백화점에 아이를 데리고 가면 아이들은 사고 싶은 욕구에 불평불만을 가득 안고 문을 나서고 서점에 아이를 데리고 가면 아이들은 지식을 채운 보람에 해맑은 웃음을 안고 문을 나섭니다’

독서교육에 남다른 열의를 지닌 남미영 박사가 하신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아 지금까지 지침으로 삼으며 자녀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지침을 더 추가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20여 년 가까이 ‘교육’이라는 일을 하면서 몸에 배인 타성에 젖었지요. 내 아이들을 낳아 기르면서 ‘가르치려고’ 만 애썼던 부분들에 생각을 바꿔야함을 깨달았습니다.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는 수많은 울림들이 제 것으로 다가왔지요. 그러면서 나에게도 변화가 왔고 아이들 또한 조금씩 변화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가르치려 애쓰지 말고, 엄마인 나를 잘 표현하고, 솔직해지는 것’ 이것이 공부하면서 느끼고 알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를 기르고 싶었던 엄마의 바람은 충분한 감정 읽어주기가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

논술교실
김두복

내 나이 40이다.

나는 오래사는 것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한 후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대학 때 성악을 전공했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계속 전공을 살리지 못했다. 증권회사에 계속 다녔지만 내 길이 아니었다.

올 해 수내동에 어린이 전문 논술학원을 내고 관리일을 하면서 3월에는 모짜르트 탄생 250주년 음악회에 용인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하였다. 내 사진이 들어간 포스터를 용인 시내에 붙이면서 발가락에 물집이 생겼지만 아픈 줄도 모르고 이거저곳에 붙였다. 그리고 세실 솔리스트 앙상블이라는 성악 연주단체를 만들고 내년 봄 창단 공연 준비를하고 있다. 나는 이 단체를 통하여 그 동안 이루지 못했던 내 꿈들을 이루고 싶다.

언젠가 오페라 전막을 올리고 싶은 꿈 말이다.

전혀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지만 기쁘다. 그 동안 소홀히 했던 음악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싶다.

나는 한 동안 내 인생의 공백시간이 있었지만 지금은 길을 찾았다. 그리고 내가 찾은 길 위에 서서 달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 나는 행복하다.

아침에는 탄천을 걸으며 하루의 일을 계획하고 저녁에는 운동으로 하루의 피로를 푼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서 하기에 그런가 보다.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고 내 인생을 단막극으로 비유하자면 1막 2장은 해피엔딩으로 마치고 싶다.



어린이 논술 2

북한 핵보유는 용납 되어서 안된다

이 현기
북한이 드디어 핵실험 성공을 강행했다. 지난 9월 서해 발사된
대포동 미사일의 비탄 새워치와 비슷한 함경 북 도안변군
무수단리 가축장되고 있다. 북한은 핵실험 뒤 60년대부터
핵을 보유하려고 하였다. 70년대 끝 무렵엔 5MW급 원자
로를 건설했다. 그러나 북한이 원하는 핵을 얻으려면 5MW급의
40배인 200MW급이 필요했다. 그러나 80년대에
김일성이 핵관련 학자를 모두 감옥에 집어넣었다. 이는 북의
핵개발에 큰 영향을 미쳐서, 김정일도 '아버지 때문에 북의 핵개발
이 10년은 늦어졌다'고 개탄할 정도였다. 설상가상으로 90년대
에 NPT에 가입해 모든 핵 활동을 공개 하여야 했다.

이러한 정세가, 90년대 중반,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를 운반할 미사일은
사거리 70km의 프로그, 사거리 300, 400, 500km의 스커드계열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대포동은 실패하였다.

핵무기가 있는데 그것을 재하는 미사일이 없으면 무용지물
이다. 핵실험 후 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1차 핵실험의

특성상, 그 결과 발한 나라들은 10킬로톤 이상에 실험지역에
지형/지표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변화가 없다. 인도는 1974년에
1차 실험에 성공하고 그 지역이 핵을 되었다. 이것과 비교해보면
북핵실험의 강도가 미약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나는 북한의 핵보유를 허용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항상 전쟁의 위험에서 살아야 한다.

이 상태에서 경제제재를 가하면 꼭 핵을 개발한다는
선명하게 개발을 중지시킬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려면 적절하고 근거리와 중거리, 표적화적, 인명 등을 통해
핵을 포기시켜야 할 것이다.

단위풀어 = MW 메가와트, 전력량 단위

km = 거리 단위 중 하나

어린이 논술 1

절의 예술품 아마벨

김민희

로라 전. 서울 삼성역의 포스트 센터 앞에는 여러가지의 절로 만들어진 '아마벨'이 있었다. 온갖 무늬는 절로 이루어진 아마벨은 오직 절로만 구성된 예술품이었다. 아마벨이 서울 삼성역 포스트센터앞에 세워지자 사람들은 아마벨을 보고 미적으로 훌륭이라 생각하는 사람들과 매 평범은 예술품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로 나뉘게 되었다. 사람들이 절로 만들어진 아마벨을 좋게 생각했다면, 저급한 사람들의 산거하다는 시선을 받으며 서울 삼성역 포스트 앞에 그대로 세워져 있을 것이다. 아마벨이 '공공의 품'라고 생각하는 필자와 달리 아마벨이 '공공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이 작품에 포용성을 갖고 그 의미를 해석하려 들지 않는바라.

아마벨은 세계적인 미술작가 프랭크 스텔라의 작품으로 절친한 친구의 딸이 비행기 사고로 요절해 그 비통한 마음을 예술로 형상화시킨 것이다. '아마벨'이란 작품명은 바로 친구의 딸의 이름이다. 이것으로만 해도 예술가의 안타깝고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 날카롭고 차가운 절로 만들어진 아마벨은 당연히 보는이의 관점에 따라 훌륭하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공공 미술품인 아마벨이 참소된 근본적인 뜻을 알게 된다면 다른 시각으로 이 작품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작품을 절로 만들었다는 점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환경 파괴의 원인이 될수 있는 비행기 잔해가 작품의 의미를 한층 살려주는 재건이 되어주었다. 사람들이 아마벨의 진정한 작품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겉으로만 보아 아마벨을 비판한다는게도 옳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아마벨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여 없어진다면, 거의 독이한 구조나 재물로 만들어진 전시물들은 만들어지기 어렵고 전시하게 만들어진 전시물에 대해 사람들이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 어떤 전시물이라도 사람들은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길거리에 새로생긴, 두껍게 만들어진 전시물에 대해 조금씩이라도 관심을 가져보자. 전시물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안식과 평화를 줄 것이다. 전시물을 보았을 즐거보도록 하자!



우리 할머니

독서치료반
김혜영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에겐 같이 살고 있는 친할머니가 계셨다.
이름은 최말선... 옛스러운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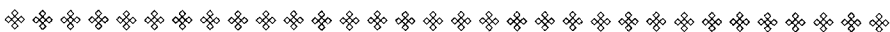
서당은 다녔다는데 내가 확인할 길은 없고 그 당시 풍습대로 스무살이 되기전 시집와 아이 여섯을 낳았는데 둘은 일찍 죽고 아들 둘, 딸둘만 남았더라. 그후 마흔이 넘어 남은 우리 아버지는, 큰아버지가 6.25전쟁 때 돌아가셨기에 막내에서 바로 장남자리로 승격되었고 공부를 잘해 할머니에게 큰 기쁨을 주었고, 고생만 시키다 일찍 돌아가신 할아버지 대신 할머니에게 당연히 소중한 존재였단다.

반면 그 막내에게 시집온 우리 엄마 그 자식을 뺏은 죄로 혹독한 시집살이를 당했고, 효자아들 덕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가끔 트집도 많이 잡혔음)내외 모두 무릎꿇고 잘못했다 빌었고, 외출 한번 제대로 할 수 없었으며 아침 저녁으로 장독대를 닦아야 했고 외식한번 제대로 못하면서 조식으로 따스한 밥에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를 올리는 정성을 24년 동안 계속했었다.

엄마에게 할머니 정말 미운 존재로 할머니 돌아가신 제사 날이 바로 엄마의 음력생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엄마는 최씨성을 가진 며느린 절대 얻지 않겠다 선언을 하기도 했지만 어찌랴 지금의 며느리 둘다 최씨인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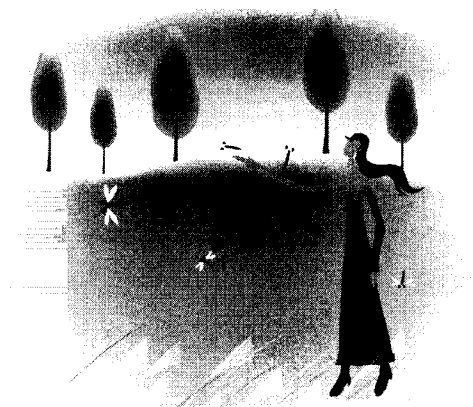
하지만 할머니는 나에겐 정말 보고픈 사람이다.

엄마에게 못했지만 우리들(나와 내 남동생 둘)에겐 정말 끔찍이 잘해준 할머니였기 때문이다. 할머니들의 절대적인 사랑,,, 동네 놀이터에 나가도 할머니만 있으면 우리들은 언제나 대장이었고 엄마에게 매를 맞다가도 할머니의 치마폭으로 달려가면 더 이상의 혼남은 없었으며 밤에 오줌



이 마려우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오강에 뉘여주던 할머니...
돌아 가시던 날 저녁 틀니좀 닦아달라 했는데... “알았어...” 그러곤 뭉그
적 거리다 헤드리지 못한게 아직도 마음에 걸린다. 집에서 장례식이 끝
나고 판이 나가던 날 새벽, 내꿈에 찾아와 내 얼굴을 어루만지고 간 할머
니...

벌써 나는 엄마가 되었는데...
내가 시집가는 것만 보고 죽으면 좋겠다던 우리 할머니,,
오늘은 무척 생각난다.
할머니 천국엔 가있는거유?





엄마 왜 그래요?

독서치료반
장효진

도서관에서 만든 칭찬상장을 들고 집으로 들어가면서, 한편으론 머쓱해 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고 생각하니 웃음도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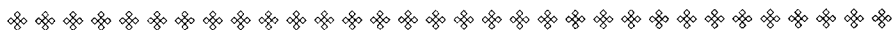
상장을 받아 들곤 부끄럽게 웃는 딸아이와는 다르게 아들 녀석은 역시나 예의 그 장난스런 표정으로 “이 상장 10개 모으면 조종하는 자동차 살 줄 거야?” 하고 물어, 순간 나를 당황시켰다. 뜻밖의 반응에 다소 실망스러워 나는 단호하게 “아니!” 하고 뒤돌아보니 냉장고에 상장을 붙이며 뿌듯한 표정으로 “내가 엄마에게 준 상장보다 내것이 더 멋있다” 하는 게 아닌가? 녀석의 녀스레에 공연히 화를 낸 것 같아 미안하기까지 했다.

정말 칭찬은 배신하는 법이 없는가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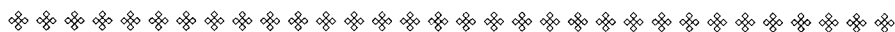
이 기회에 언제나 배우고 읽고, 듣고 하는 모든 일들이 그 순간이 지나면 그대로 사장되어지는 나의 절대 실천 불감증을 극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은 반드시 억지로라도 아이들의 칭찬거리를 찾아 그 상황이 닦혔을때 놓치지 않고 넘치도록 칭찬해주리라.

우선 점심 먹느라 늦게 온 엄마를 대신해 동생을 데리고 온 것에 대해 들킨 칭찬을 해주고, 숙제부터 하고 놀겠다는 다짐 또한 칭찬받아 마땅했고, 쟁반대고 과자 먹는 모습도 놓치지 않고 칭찬해 주었다. -평소 때 같았으면 ‘공부만 하려면 과자가 먹고 싶지?’ 하며 한 소리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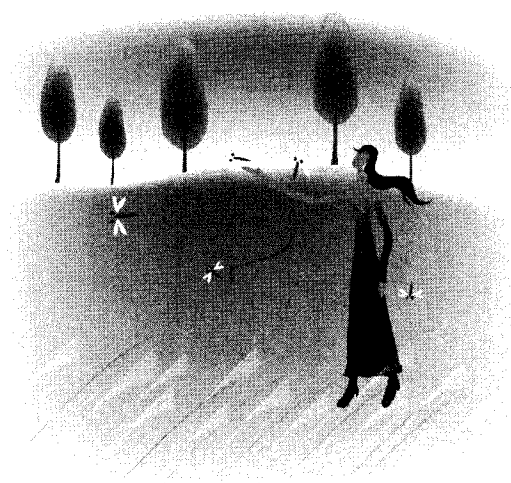
딸아이 또한 신발정리한다고 풀썩거리는 모습도 칭찬받고-물론 늘어놓고 엄마 구두 신고 논 시간이 더 많았지만-오빠 레고 정리해 준다며 오빠가 애써 만든 작품을 부수는 행위마저도 칭찬받고 자기방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 데도 ‘오빠 공부하는데 방해 안하고 잘 노네’ 하고 칭찬받았다.
 이쯤 되니 아이들도 눈치가 있는지라 이상한 기운을 못 느낄리 없다.
 “엄마 근데 왜 그래요?” 아들 녀석이 미심쩍은 표정으로 나의 과장된 행동에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도 둘 다 엄마의 칭찬이 싫지만은 않았던지 한층 더 고무되어 잘 안쓰던 존대말까지 꼬박꼬박 써가며 좋은 일 하기에 앞장섰다.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었다.
 중학교 2학년때였던가? 부모님의 불화로 한창 예민한 사춘기를 정말 불쌍사납게 보내던 나에게 교생으로 오셨던 선생님의 “너 문학적 감수성이 풍부한거 같다. 훌륭한 작가가 될 기질이 있어”라는 한마디가 마음을 다잡고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칭찬 한 마디가 한사람의 인생을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익히 경험한 나로서는 칭찬의 중요성을 모를 리 없건만 왜 그동안 우리들에게는 유독 칭찬에 인색했던 것일까?
 아이들에게 칭찬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아이들을 바라보니 모든 행동들이 그저 아이들 다운 모습들뿐이었다.
 아이들이니까 실수도 하고 장난도 치고 싸우기도 하고 해야 할 일보다 하고 싶은 일부터 하고 싶고, 하기싫은 일 할 땐 짜증도 내는 것을...왜 그동안은 그 모든 것들을 지적하고 욕박지르고 훈계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을까?
 그동안 난 마치 사회에서 인정하는 KS마크라고 박기위해 틀에 잘 맞춰 키우는 것이 엄마의 일이라 여겼던 것은 아니었던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로스테스의 침대처럼 어른들의 기준으로 길면 자르고 짧으면 늘리려는 태도로 아이들을 대하고 보니 불만스럽기 짝이 없고, 늘 모자라고 과해보이기만 했던것 같다.
 아이를 아이답게 아이의 기준에서 생각해주고 이해해주면서 결과보다는 노력을 중시하고,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한 모습에 일등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게, 그렇게 응원해주고 북돋아 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몫이 아닐까?
 깊어가는 가을 속에 나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저 쓸모없이 떨어져버리는



잃사귀가 아니라 두고두고 땅 속 깊이 사그라져 거름이 되는 낙엽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평생을 살아가는 데 꺾이지 않을 소중한 자신감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서른여덟살의 가을

독서치료반
이경혜

가을이 어느덧 깊어가고 있다.

어느해 보다 높고 파란 하늘과 청명한 날씨가 이 가을을 가을되게 하는 것 같다.

매일 오고가는 놀이터 공원에서 온갖 울긋불긋한 나무들을 보며...

‘나의 인생의 5월의 푸른계절은 지났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어느 분의 말이 30대는 부모를 위하여 살고, 40대는 자식을 위하여 살고, 50대가 되어서야 나의 인생이 주어진다고 하시면서 조금씩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날 갑자기 공허해 진다고 한다.

푸른 나뭇잎이 하나. 둘 자기 색을 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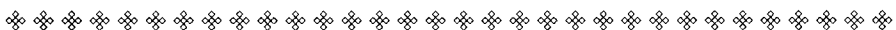
각기 제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뽐내기라도 하듯이 그래 이제 내안의 아름다움을 들여다 보고 싶다.

그리고 한껏 드러내야겠지... 지금은 내가 좋다 되도록 바쁘지 않게 정신차리며 살려고 한다. 아이들 커가는 것이 섭섭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다.

지난주 가까운 분이 봉사하시는 곳에 함께 간 적이 있었다. 그곳의 목사님은 원래 의사셨는데 자기의 재산을 모두 정리해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을 20여명 돌보고 계셨다. 그런데 그곳의 아이들과 목사님의 얼굴이 너무나 평안하다. 언제나 내 아이 내 가족만 챙겼던 내가 참 부끄럽다. 그래 나만을 위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다른 연약한 이웃도 함께 할 수 있는 인생이 되고 싶다.

그리고, 아낌없이 다 한 후에는 좋은 거름이 되어야겠지.

정말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고 싶다.





내 마음의 거울

독서치료반
장혜영

한두명도 아니고 여기저기서 말썽도 피우고, 요구도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유치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을 보면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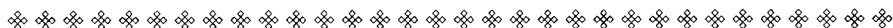
내 자식이니까 키우지... 아이들 교육은 참으로 힘들고 기나긴 여정 같다. 낳기만 한다고 부모가 되는게 아닌데, 부모로서의 수양과 자질도 갖추지 않고서 자식으로서의 의무와 책임만 강조하면서 살아오진 않았는지 모르겠다. 그러기에 일주일에 세시간씩 이지만 독서치료를 통해서 나와 우리 아이들을 다시금 되돌아 보는 이 시간이 참으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다.

우리 아이들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려고 노력하는 나의 모습에 가끔씩 놀라기도 하면서...

이제껏 조그만 실수라도 화를 참지 못하고, 아이들 뿐만 아니라 나에도 고통이 됨을 알면서도 그 순간을 참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반성하며 참으로 부족한 엄마였다는 걸 많이 느낀다.

결혼하자마자 가져서 그 다음해 태어난 우리 아들 ‘지호’는 나에겐 참 벅찬 아이였다.

첫애라 육아법을 제대로 몰라 더더욱 힘들었지만 얼마나 별스러웠으면 우리 시어머니께서 첫손주임에도 이제 애는 그만 낳아라 하실 정도였다. 유난히 활동적이고 숫자를 좋아하다 못해 사랑하며 계산기를 장난감으로 노는 우리 아들! 진눈깨비가 흩날리던 추운 3월의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 날 이름표를 목에 걸고서 자기 반 줄에 의젓하게 서 있는 모습에 왜 그리 눈시울이 붉어지던지...



자식 가진 부모 마음 다 그렇지만 언제나 품안의 애기 같은 녀석이 언제 저리 컸나 하고 대견스러웠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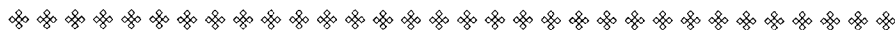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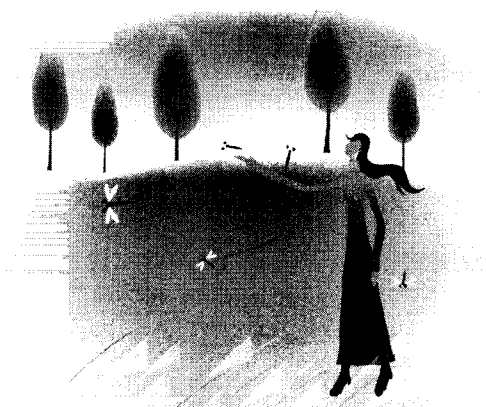
그리고 눈이 넣으면 아플 것은 같지만 그래도 너무나 예쁜 우리 막내 딸 ‘진아...’ 오빠인 지호와 달리 애교가 넘치고 여성스러움이 지나쳐 오빠가 공주병이라 놀리지만 내 눈에는 어느 공주보다 예쁘다.

둘이서 싸우기도 잘하고 말썽도 많이 부리지만 사이 좋게 서로를 챙기는 모습을 볼 때는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팔불출 엄마라고 놀리겠지만 자고 있는 모습은 영락없는 천사들이다.

이 사랑스러운 둘을 통해서 나를 좀 더 나은 나로 변화시킬 필요성을 느끼며, 부족하지만 엄마를 믿고 따르는 내 마음의 거울들을 보면서 실천은 힘들지만 오들도 열심히 책을 읽고 다짐한다.

“좋은 엄마”가 되자고---





세월 속의 삼대(三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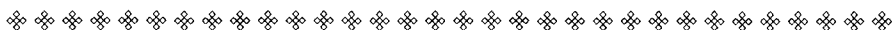
독서치료반
반정혜

지난 주말 단풍구경삼아 남한산성을 갔었다. 아파트 단지 구석구석에도 단풍 길이 있건만, 단풍을 핑계 삼아 일상을 한번 벗어나고 싶었나 보다. 7살 큰딸은 놀이터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것이 못내 못마땅한 듯 투덜거렸다.

맘 같아선 설악산, 치악산 등등... 유명한 명산을 가고 싶었지만, 두 아이를 데리고 차를 오래 타는 것조차 힘든 일이기에 가까운 남한산성으로 기꺼이 결정했다. 하지만 그 곳도 투덜거리는 큰 딸을 데리고 가기에는 가깝지만도 않았다. 결국 도착할 무렵 무슨 일인지도 모를 일상적인 일로 큰 딸은 엄마인 내게 꾸중을 듣고 빠졌다.

아! 현명하게 욕아를 해보려고 독서치료를 다니는 이즈음에도 항상 이런 일이...내심 나도 씩씩했다. 냉랭히 굳은 내 표정을 풀어준 건 푸근한 자연도 때 이른 단풍도 아닌 큰 딸의 귀엣말 이었다. “엄마 이번일 미안해 화나게 해서” 순간 나도 씨~익 웃었다. ‘어유 못난 어미 같으니라고...’

그 옛날 친정엄마랑 있었던 일이 생각났다. 언제 쯤 일까? 초등학교 고학년 쯤 되었을까? 무슨 일로 엄마랑 언쟁을 한 적이 있었다. 그 당시 기억으로 논리적인 나를 엄마가 감당하기 버거운 듯 했다. 나도 엄마도 서로 타협점을 못 찾고 각자의 공간으로 화가 나서 사라졌었다. 그리고 얼마 후 내가 먼저 엄마에게 가서 별 용무도 없이 “엄마”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불렀다. 그러면 부모들은 풀리는 줄 알았다. 그런데 엄마는 아직 못 다스려 굳은 얼굴에 대답도 없이 나물을 다듬고 계신 거였다. 분명 화가 나있었다. 난 다시 한번 “엄마~” 하고 어린애처럼 불러보았다. 마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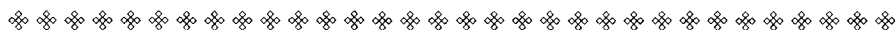


못해 대답하는 목소리, 화를 담고 있는 짜증난 목소리 “오~” 나는 그 순간 ‘치 어른이 저게 뭐야? 어린 나보다 못하구만!’

부모는 다 너그럽고 자식에게 마냥 베푸는 완벽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 순간 엄마는 어린 딸과 말다툼에 빠진... 그래서 딸이 먼저 내민 화해의 손도 잡지 못하는... ‘어린이 보다 못 하구나’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문득문득 그 일이 떠오른다. 그래! 부모도 부모이기 전에 미성숙한 인간인 것을...이제와 자식을 키우며 그 시절 엄마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남한산성 굽이굽이 성벽을 따라 오르면서 산속에 드러나 보이는 성벽길이 우리네 삶처럼 앞선 이의 발자취를 따라 걷게 되어 있었다. 그래 저 멀리 보이는 성벽을 따라 걸어가 보자!!

한발 한발 정성을 다해. 그 시절 부족했던 부모의 모습에 성숙한 부모의 자세를 조금씩 담아 보태어 먼 훗날 내 딸에게는 ‘그래도 엄마는 나를 키우는데 노력하는 모습이였다.’는 추억이 서리게 한 발짝씩 정성을 다 해보자. 내 사랑하는 두 딸과 신랑이 모두 건강한 이 가을,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가을 하늘아래 하루를 보냈다.





행복

독서치료반
나순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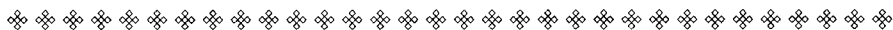
어느덧 남편과 내가 결혼한 지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우리는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가졌고 남들처럼 신혼의 즐거움을 만끽하기도 전에 출산과 육아에 신경써야만했다.

남편은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아이들 돌보는 일도 잘하는 자상한 남자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심술부리고 투정부리는 나를 한없이 이해해주고 때론 사랑의 표현도 칭찬도 아끼지 않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그런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괜시리 툭툭거리기만 하는 무뚝뚝한 아내이다.

회사에서 일 때문에 늦게 퇴근한 남편에게 독서치료에서 해본 ‘결혼생활 진단 테스트지’를 내밀었다. 나의 테스트결과는 예상대로 꽤 높은 점수가 나왔다. 남편은 어떨까? 궁금해졌고 내심 걱정이 되었다.

나는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남편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왜 일까? 요즘 들어 남편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다. 얼마 전 남편의 회사 창립일이라 회사에 가지 않는 날이 있었는데 남편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다. 그날은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독서치료를 가는 날이라 안 된다고 그냥 집에서 쉬라고 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 “나는 1년에 딱 한번 쉬는 날인데...”하는 게 아닌가. 순간 남편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 그러지 뭐. 아이들 없이 우리끼리만 보낼 수 있는 일년에 딱 한번 있는 날인데”하며 영화관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날 남편이 참 안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중엔 회사에서 일에 시달리고 주말에는 놀아달라는 아이들, 어디든 나가자는 내 등살에 하루도 편안히 쉬지 못하니 말이다. 남편의 테스트 결과는 예상외로 나보다도 더 높은 점수였다.



“배우자를 신뢰합니까?”라는 질문에 남편의 답은 “모든 것을 신뢰 한다”였다.(나의 답은 “대부분 믿는다.”이다)나는 내가 항상 행복하다고 느끼며 사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남편의 나에 대한 믿음 바로 그것이었다.

우리 집의 행복을 책임지는 사람은 바로 나이다. 아내의 말, 엄마의 말 한마디가 남편, 아이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어느 책 제목처럼 나는 내 남편 내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나는 내 남편 내 아이들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고 도움이 되리라 다짐해본다.

오늘은 남편에게 하지 못한 감사와 사랑의 편지를 써볼까 한다.





주류와 비주류

독서치료반
김혜경

벌써 가을의 끝!

비록 화려한 단풍여행을 떠나진 못했지만, 가로수마다 나비가 춤을 추듯 떨어지는 나뭇잎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의 36번째 가을은 행복했다.

도서관으로, 아이들 학원으로, 마트로... 어디론가 향해가는 자동차 속의 지루함도 아름다운 가을 풍경 앞에 사라지고 없었다. 또 하나, 운전 중 들을 수 있는 라디오와 음악들은 큰 즐거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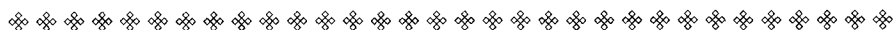
몇 주 전의 일이다. 라디오에서 “나는 비주류다”라고 느낄 때는 언제인지 사연을 받고 있었다. 세상이 얼마나 빨라졌는가! 애청자들의 의견은 금새 문자, 인터넷을 통해 도착했다. “검단 지구 아파트를 한달 전 팔았어요, 저 비주류 맞죠?”

“거의 보이지 않는 1%대 시청률의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모든 사연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저마다 다수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했다.

‘주류’의 뜻을 보니 ‘강의 가장 큰 줄기가 되는 흐름, 단체나 집단 등, 사회활동 중에 중심이 되고 기본이 되는 줄기’라고 되어 있었다. 참 좋은 뜻이라 생각되었다.

재미있는 사연들로 웃음이 나왔지만, 한편 우리 사회의 서글픈 모습도 들어있는 것 같았다. 사연속의 주인공들의 대부분은 ‘비주류’라는 그 사실을 안타까워하는 것 같았다.

‘주류’는 뜻처럼 매우 근사한데 반대로 ‘비주류’가 되어버리면 이사회에서 우리는 ‘주류’처럼 근사하게 살아 갈 수 없는 걸까?



‘난 어떤 모습인가?’ 스스로 질문해 보기 시작했다. ‘난 주류일까 비주류일까?’

‘그런데 왜 주류?비주류를 나눠야 하지?’

그 순간 ‘아’ 하는 소리가 저절로 흘러 나왔다. 그래 난 모두가 중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쫓아가느라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나. 그 라디오를 듣는 순간도 아이를 피아노 학원에 데려다 주느라 바빴으니까, 그래서 아이가 물어보는 질문에는 대답할 여유도 없이 또 다른 계획을 머릿속으로 세우고 있었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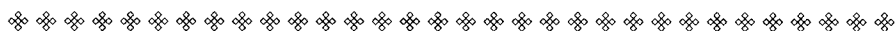
전국이 부동산 광풍이라는 지금, 가진 게 없어도 유행을 쫓아 집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 불안감으로 하루를 보내기도 했다.

주류’를 꼭 따라가야 할 이유는 없었는데 말이다. 나는 가장 나답게 살고 있는 걸까?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들을 당당하게 보고, 말하고 취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저 남과 다르게 비쳐지기 싫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잘 해낼 수도 없는 일들을 쫓아 두 눈에 힘이 풀린 채 끌려 다니는 건 아닌지...

그 순간 또 한번 ‘아’ 하고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래, 그거였다. 누군가 나를 비주류라고 낙인찍고 무시할까봐 내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도 굳이 가고 싶지 않은 곳인데도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도 허둥지둥 부여잡고 있었다. 그래서 시간은 흘러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허전함이 있었나 보다.

그 사연들 중에는 외모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는데 한 젊은이의 말인즉, “장동건, 김희선이 주류가 아니라 우리(mc를 포함했음)가 주류입니다.”라고 당당히 말했다. 그래, 주류? 비주류의 구분은 어쩌면 자기 자신을 진실 되게 사랑하지 않은 걸 거다. 주류? 비주류는 언제든 변화할 것이고, 비주류라 놀림을 당해도 당당하게 스스로 행복하다 느끼면 만사 ok 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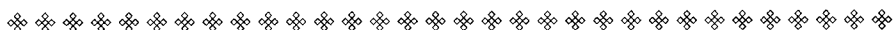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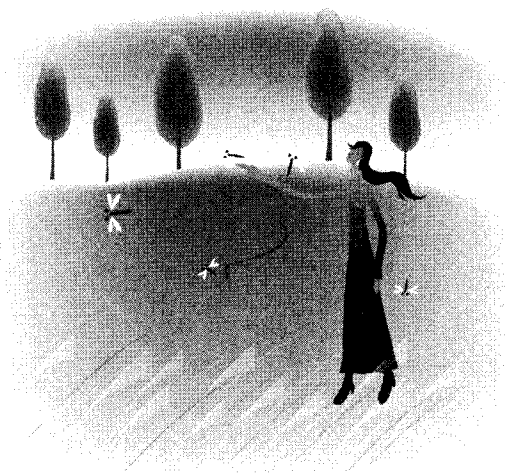
친한 언니의 고등학생 아들은 인문계에서 전교1~2등을 다룬다. 꿈은 작가이다. 하지만 그 언니는 ‘의사’라는 주류를 쫓아 ‘차라리 검정고시를 보게 할까’ 고민했었다. 지금은 아들의 꿈을 받아들였지만...몇 달 전까지 내 딸아이의 장래 희망은 경찰관이었다. 도둑을 잡는다고...(지금



은 바뀌었지만)

‘수빈아, 의사 같은 걸 해야지...’ (말해 놓고도 부끄러웠던 경험이었다.) 그리고 7살 딸아이는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다. 학원 선생님이 딸아이에 “너는 직업이 없구나” 라고 하셨다.

딸아이는 그냥 씩씩 웃어버렸다. 자기만의 순수한 눈으로 세상을 보는 아이들에게까지 너무 일찍 주류? 비주류의 어두운 면만을 보여주면 안 될 것 같다. 서로 다르지만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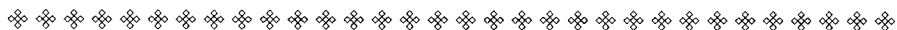


버림받는 일이 없는 세상

철저하게 망가진 물골로 길거리를 배회하는 전직 애완견을 가끔 본다. 오랫동안 빗질을 하지않아 엉겨붙은 털과 눈 주변으로 골져 내린 눈물자욱, 등 아래 쪽 털은 솟제 물과 흙 범벅의 딱지가 되어 달랑거린다. 몸은 잘 먹지 못해 뼈가 드러날 정도로 비쩍 말라있다. 주인에게 사랑을 듬뿍 받았을 때는 낯선 사람만 봐도 당당하거나 거만한 눈빛으로 크르렁 거리고 양칼지게 짖어대던 개였을텐데... 사람을 봐도 흰자위가 드러날 만큼 결눈질을하며 흠칫 놀라 달아나고 만다. 불쌍한 마음이 들어 한 때 사랑 받았던 흔적조차 찾아 볼 수 없는 개의 달아나는 뒷모습을 보면 개 역시 같은 생각인지 가던 길을 멈추고 저 만치서 돌아보고 있다.

버림받는 일은 처참한 흔적을 몸과 마음에 짙어지는 일이다. 짐승이건 물건이건 사람이건 버리지않는 세상을 꿈꾼다.

마광수는 ‘내 운명은 내가 만든다’라는 책에서 자신이 성에 집착하는 글을 쓰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다. 성불균형 문제로 아내와 이혼한 그는 자신의 아키텔스건이 된 성 문제를 다시 생각하고 남녀 간의 성생활을 연구하며 성에 집착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나 역시 30대 초반 남편으로부터 유기당하는 처지가 되자 인간 관계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며 ‘버림받는 일’에 민감해지기 시작했다. 어렸을 때부터 무엇이건 잘 버리지않던 나는 오래된 물건도 버리지않고 쌓아두는 편이었는데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변하지않고 얼마나 오래가느냐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였고 변심할 기미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했다. 상대가 아무리 듣기좋은 말을 해도 변절의 기미를 꼭 찾아내고 여간해서 믿으려 들지 않았다.



너무 가벼워보이거나 변덕이 심한 사람은 상대를 하지 않았고 상대가 변할 것같은 눈치를 보이면 내 마음이 앞질러 매도를 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곤 했다.

남녀 관계에서 누가 누구를 버리고 버림을 받느냐는 문제는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의 이야기다.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여자들의 경우를 끌려가는 입장이다가 상대가 싫증을 내는 눈치가 보이면 그 때부터 자신 안에 있는 비겁함과 싸우며 굴복적인 관계를 이어가든지, 또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나든지 해야 한다. 남자의 발이나 뉘아주며 비겁하게 사느니 차라리 고독하게 있겠다고 침거하다가 절대 변하지 않을 것같은 남자를 사귀는 적이 있다. 나는 오로지 그의 성실함과 충절을 존경하며 따랐지만 그는 나의 맹목적 기대감이 부담스러웠었나보다. 어느날 그는 자신의 변한 마음을 보이지않으려 애써 뒷걸음질치며 떠났다.

나는 아직도 무엇이든 버리는 일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 남은 음식은 상할 때까지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버리기 일쑤다

학교 운동장으로 석탄을 주우러 동네 언니들을 따라 다니고 고무신 뒤축을 잘라 석유에 채워 지우개로 쓰던 시대를 살았기 때문일까. 디지털 사회가 되면서 고가의 테크노 제품들을 수시로 바꾸느라 집안 곳곳에는 쓰지않는 물건들이 쌓여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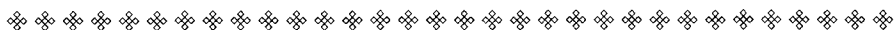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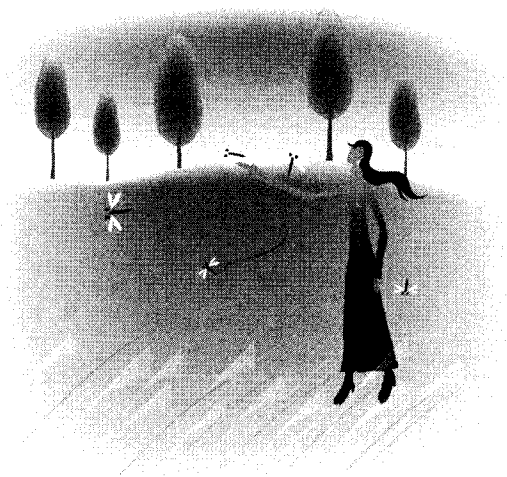
미국 여행 길에 샀던 워크맨, 시디 플레이어, 야날로그니콘 카메라, 소니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97년산 노트북, 버리지 못한 헌 컴퓨터 몇 개, 다섯개가 넘는 프린터기기, 휴대폰과 충전기기, 결혼할 때 주고 받았던 예물시계, 만년필 등 한 시대를 풍미했던 물건들이 퇴물이 되어있다.

디지털 시대는 버리는 일을 부추기고 있다. ‘아무 것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사서 읽으면서까지 버리는 일에 현명하려 애쓰지만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순종하는 딸로 자란 나는 무엇이든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것 같아 망설이고 만다.

전에 꽤 괜찮았다던 한 남자의 그림자를 본다. 첫번째 여자와 두 아이를 버렸다가 돌아온 지 10년이 되어가지만 그 역시 가족을 버렸다는 비



난을 받으며 몰두했던 여자로부터 버림받은 일이 상처로 남았는지 낮이 나간 채 생기를 잃고 늙어있다. 그를 보면 매미껍질이 떠오르고 홍시 빨아먹듯 안 쪽의 달콤한 과육을 쭉 빼먹고 내 남자를 버린 그 여자를 생각한다. 그 여자는 지금도 남자 버리는 일을 서슴지않고 있을까. 책임질 일도 없이 남의 집에 달린 홍시 훔쳐다가 쭉 빨아먹고 버리기를 반복하는 여자와 ‘이번에는 내가 그에게 버림받는 고통을 줄까, 말까’ 그런 고민만 이십 년 넘게 하고사는 여자가 한 남자의 가슴에서 그네를 타고 있다.





책이 주는 치유의 힘

독서치료 강사
장영진

어느 날 몸이 마음에게 물었다.

“넌 아프면 어떻게 하니? 난 병원에 가는데...”

마음은 대답했다.

“난 아파도 갈 데가 없어. 나 혼자 치료해야 돼.”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플 때 노래를 하고, 어떤 사람은 춤을 추고, 어떤 사람은 책을 읽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지. 난 아침 일찍 일어나 빵을 구워. 빵 굽는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지. 이 얼마나 매력적인 일인가?

우리들 기억 속에 잊혀져 가는 ‘삼순이’라는 드라마에서 극중 빠띠세였던 삼순이의 독백으로 들었던 대사다. 삼순이에게는 빵 굽는 일이 천직이자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일이기도 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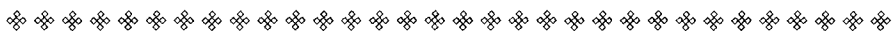
사람들에겐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방법들이 있다. 그 방법들은 다양한 ‘치료’라는 이름으로 불려진다.

독서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향기치료 등이 그것이다.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전, 물질적 풍요 뒤에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불안감과 위기감으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독서치료는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 정서적 갈등과 부적응, 일상생활에서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보조요법으로 등장하였다.

고대 그리스 테베의 도서관 입구에는 ‘영혼을 치유하는 곳’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책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약이 될 수 있는 것은 책이 지닌 치유의 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책 속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모습, 느낌, 감정 등을 만나고, 문제를 겪는 사람이 자신만



이 아픔을 깨닫게 된다. 또한 자신의 경험의 한계와 사고방식을 뛰어넘어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인생의 문제에 대응하는 힘을 기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독서치료는 삶과 연결된 책읽기이며, 우리 앞에 놓인 고통, 어려움, 실패, 고독, 좌절에 대한 예방주사가 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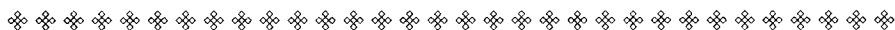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은 상황에 맞는 책을 함께 나누면서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은 고민과 고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거부감과 저항감을 최소화하면서 책속 이야기를 통하여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게 된다. 다음은 자신의 마음을 보살펴주는 이야기를 통하여 자기 내면에 있는 작은 변화의 의지와 치유의 힘을 발견해 내고 생활에 적용하는 실마리를 찾게 되는 것이다.

독서치료 프로그램에서 함께 나눈 책 중 ‘화(틱 낫한)’를 예로 들어보자. 화는 예기치 못한 큰 일로 인해 생길 수도 있지만 대개는 일상에서 부딪히는 작은 문제들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많다. 화가 생겼을 때 우리는 당장 화에 휘둘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괴로워하기보다 화난 우리들의 마음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 화를 억지로 참지도 말고 애써 태연한 척 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화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고 차분하게 표현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신을 이야기 한 후 도움을 요청하라고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행복만 나눌 게 아니라 고통도 함께 나눔으로서 신뢰와 존중을 쌓을 수 있다고 한다. 우리가 화를 다스릴 수 있을 때 미움, 시기, 절망과 같은 감정에서 자유로워지며, 타인과의 사이에 얽혀있는 모든 매듭을 풀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화의 노예가 되기보다 화를 다스려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참여자들과 이 책을 읽고 나서 생활에서의 작은 실천들을 다짐하게 되었는데, 한 참여자는 “예전엔 화가 나면 몸이 지칠 때까지 청소를 하며 나를 괴롭혔지만, 이제는 따뜻한 차로 몸을 녹이며 나를 달랠 수 있는 책을 읽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화의 원인을 외부에서만 찾고 원망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일이 더 중요하며 상대의 말이나 행동이 자신을 화나게 하려는 의도



에서 나온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도 된다.

또 다른 책 ‘인생수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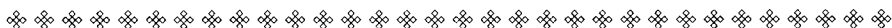
‘당신이 아름다운 정원에 앉아 있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고통 속에 있다면, 만일 당신이 상실을 경험한다면, 그리고 만일 당신이 머리를 모래에 묻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아주 특별한 목적으로 당신에게 주려는 선물로 여긴다면 당신은 성장할 것이다.’

책 속에서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신체마비로 생활 반경이 거실에 있는 환자용 침대와 그 옆 의자로 제한된 후에야 비로소 지금까지 당연시 해 온 것들이 아직 곁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아직은 화장실에 혼자서 갈 수 있고, 혼자서 목욕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도 감사하고 있다고 얘기한다.

우리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목말라하고 안타까워하며 많은 시간을 보낸다.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모든 여유로움은 나오고,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다. ‘폰더씨의 위대한 하루’에서 안네 프랑크는 전쟁의 공포 속에 다락방에서 숨어 지내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매일 매일을 웃음과 감사로 시작한다. 또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선택한다. 이런 감사의 마음은 전쟁의 공포와 어둠속에서도 절망의 구름을 순식간에 없애 버리는 힘을 가졌다. 우리는 안네 프랑크를 통하여 감사를 삶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인생수업’에서 생의 작별을 앞둔 101명의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말한다. ‘지금 이 순간을 살라고, 삶이 우리에게 사랑하고, 일하고, 놀이를 하고, 별들을 바라볼 기회를 주었으니까...’ 오늘 우리가 헛되이 보낸 시간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갈망했던 내일이라는 어떤 시의 한 구절이 떠오른다. 우리들이 일상속의 순간 순간이 행복을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음을 다잡으면 어려운 상황도 대개는 호전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되돌아 볼 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의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히 살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



이며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을 때 행복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가가 아니라 일어난 일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달려 있다는 소중한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에게 삶의 소중한 지혜를 주는 책 중에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에서는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의 지하묘지에 있는 한 영국 주교의 무덤 앞에 적혀있는 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주교는 처음에 세상을 변화시키려 했었고, 다음엔 나라를 변화시키려 했었고, 가족을 변화시키려 했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주교는 죽음을 앞두고 문득 깨달았다. 만일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고 내 나라와 세상이 변화되었을 것이라는 걸...

작은 변화는 항상 내안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여자 한분의 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책을 많이 접하지만 그 내용을 생활에 적용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독서치료를 통하여 남편, 아이들과의 갈등, 나의 욕심 등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문제를 보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나의 노력과 변화가 우리 가족을 성장시키고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참여자들과 행복한 동행을 한다. 그들과 함께 책속에서 마음을 열고, 울고 웃으며, 함께 느끼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책속 여행길을 함께 가는 것이다. 괴테는 “문학은 우리를 가르치지 않는다. 다만 감동을 통해서 변화시킬 뿐이다.”라고 하였다. 세상의 모든 책이 문제를 해결해 주진 못하지만 잘 선택되어진 한권의 책이 우리들 마음에 위안이 되고, 삶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해 줄 수도 있다.

일상이 힘든 무게로 다가올 때, 크고 작은 상처로 인해 마음이 아플 때 책을 만나자.

좋은 책은 자신을 다시 만나게 해 주는 거울이며, 인생의 길동무요, 친절한 치료자가 되어 줄 것이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영어동화구연 강사
정수현

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두 번 꼬박꼬박 시청각실에 들러 매트도 살피고, 칠판도 한번 더 깨끗이 지우고, 가져온 물건들을 정리하며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멀리서 조그만 발자국 소리들이 어지럽게 들리기 시작하고 곧이어 “Hello”하는 큰소리와 함께 환하게 웃으며 들어서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두 번 시청각실에서 만나는 영어동화를 좋아하는 그리고 선생님을 더 좋아해주는 우리 친구들입니다.

처음 영어동화를 접했을 때에는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은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그냥 영어동화책이 너무 재미있어서 시작한 공부가 제 자신을 선생님이로 서게 만들었습니다.

맛깔 나게 한글 동화책을 아이에게 읽어주는 것처럼 재미난 동화책을 영어로 맛깔스럽게, 신나게 읽어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와글와글 자기들만의 이야기로 시끄럽다가도 “자, 이제 시작할까”하는 소리에 두 눈을 반짝이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까’하는 얼굴로 자리에 앉습니다. 자못 진지한 얼굴로 선생님의 행동 하나 노래 소리 하나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영어로만 진행하는 탓에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전달받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 굴하지 않고 친구를 보면서, 그리고 선생님을 보면서 열심히 같이 행동합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어 드는 걸 모르듯 오늘, 내일, 하루하루 조금씩 영어동화책의 세계에 빠져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그림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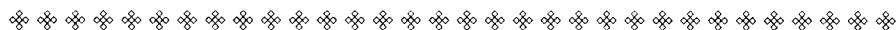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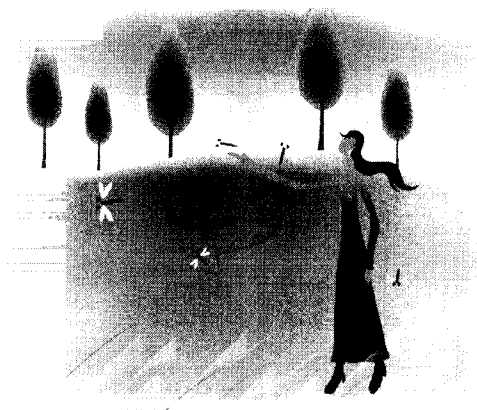


보고, 이야기를 듣는 우리 아이들의 상상의 세계는 무한정일 것입니다.
이렇게 무한정인 아이들의 상상의 세계에 좀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픈 마음으로 아이들과 늘 함께 하려고 합니다.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그리고 오후 3시...

아이들과 제가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고 있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그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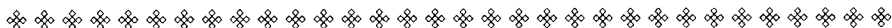
생활 일본어 시간에 뭘 배워요?

일본어 강사
김종필

정보문화센터에 생활 일본어 과목을 개설한지 2년, 현재 4회째 수업을 하고 있다. 개강 첫 날 강의실에 들어가면 수강생들이, “생활일본어 시간에 뭘 배워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한다. 일본어의 알파벳이라 할 수 있는 히라가나, 가타카나부터 시작하여 회화를 포함한 기초 일본어를 주로 하면서 짬짬이 일본문화에 대한 소개도 곁들인다고 설명해 준다. 일본문화 얘기가 나오면 수강생들은 “일본수상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것을 한국과 중국에서 왜 문제 삼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어느 나라나 그 나라의 국립묘지가 있고, 이에 정치인이 참배하는 것은 당연한데 라면서.

야스쿠니 신사는 원래 메이지 유신에 공적을 세운 일본인을 추모하기 위하여 세워졌으나, 일본이 청일, 노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군국주의의 길을 걸으면서 이곳은 군국주의의 상징처럼 되어, 해마다 일왕과 국민들이 여기에 참배하고 군인은 죽어 이곳에 봉안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여기에 봉안된 240만위의 넋들이 거의 대부분 한반도와 관련되어 있으며, 패전 후 신사참배는 금기시 되었다. 그러던 것이 일본의 경제력과 국제적인 지위 향상, 그리고 우경화에 힘입어 수상이 이곳을 참배를 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침략전쟁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그리워한다는 것은 미래의 일본, 그리고 동아시아와 일본과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설명을 듣고 나서야 고개를 끄덕인다.

일본을 여행하고 싶어 하는 수강생을 위해 관광지 몇 곳을 소개해 주기도 한다. 타테야마 쿠로베 알펜루트는 일본을 자주 여행한 사람도 잘 모르는, 그러나 일본인들도 꼭 한번 여행하고 싶어 하는 최고의 여행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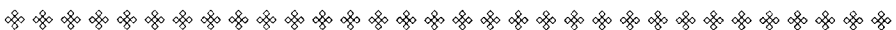
손꼽히는 곳이다. 일본의 지붕, 재팬 알프스라 불리 우는 이곳은 토야마현의 타테야마 산맥을 중심으로 뻗어나간 중부산악지대를 일컫는다. 기후현, 토야마현, 나가노현 등에 걸쳐 있는 재팬 알프스의 알펜루트 길이가 95km에 이르며, 그 중에서도 타테야마 쿠로베 알펜루트가 하이라이트 구간으로 꼽힌다. 스위스 알프스에 견주어도 좋을 만큼 3000m급 연봉이 이어지는 산봉우리와 울창한 산림, 아찔한 협곡사이에 댐 높이 186m의 웅장한 쿠로베 댐, 고산특유의 청량감과 고산식물, 지표에서 솟아오르는 유황 화산지대 등 볼거리와 대자연의 숨결을 느끼게 해 주는 곳이다. 작년 가을, 수강생 몇 명이 며칠 결석하더니만 여길 다녀왔다는 구나. 일본에서 단풍이 유명하다는 몇 군데를 가보았지만 가장 인상적인 단풍구경을 하고 왔다고 하면서.

2005년 작년은 1905년 을사조약이 맺어진지 100년, 광복60주년, 한일수교 40주년이 되는 해였다. 굴절된 우리 근대사, 순치의 관계라는 애증의 한일 관계. 어려운 한 시대를 보내고 우리도 일본에 버금가는 경제력과 국제적인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시공은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듣기 싫고 보기 싫어도 나라밖의 소식을 들어야 하며,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지구촌 시대이다. 지나간 과거의 한일관계를 생각해 보면 누구나가 언짢겠지만, 우리가 손해 보지 않으려면 이웃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들과 대화하고 때로는 설득해야 한다.

년 간 2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오가는 교류의 문화가 활짝 열려 있으며, 민간외교가 정부간외교에 버금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을 인식하면서 대한민국을 리더 하는 성남시민들께서도 이웃나라의 말과 문화를 익히는데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생활에 다가와 있는 중국어

중국어 강사
이선화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은 그 동안 역사적으로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로인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언어에 한자를 이용하고 있다. 다른 외국어에 비해 거부감이 덜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어 배우다 보면 실제로 뜻과 발음이 우리의 말과 거의 일치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의 단어는 대부분이 발음은 우리의 말과 약간 다를 지라도 뜻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뜻과 많이 다르지 않다. 중국어로 자기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으려면 대략 3000자가 필요하다. 다른 외국어에 비해 일상적인 대화에 필요한 단어가 많지 않아도 된다.

중국은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와 지금보다 밀접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고 또한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여 동북아에 영향력을 행사하리라고 본다. 인접국인 우리는 중국어를 배우는 일이 필수적이 되었다. 중국어를 배우으로써 중국의 문화를 알 수 있고 또한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면 사업상 또는 그들과의 인간관계를 맺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그들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다.

근래 들어와 중국어를 배우려는 학생 그리고 사업상 필요로 배우려는 분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이 중국어를 배우기에 가장 적당한 시기로 보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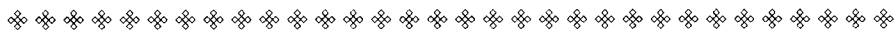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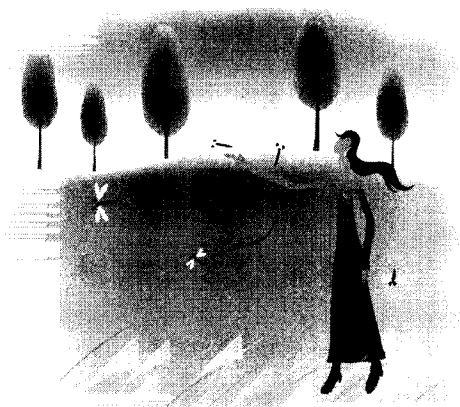
중국은 기회의 땅으로 다가 오고 있다.

중국의 13억이나 되는 인구가 우리의 이웃이며 우리의 시장이다. 그러나 선불리 중국과 사업을 벌였다가 낭패를 보거나 아니면 사기를 당해 돌아오는 분들이 많다. 그들은 우리보다 장사를 잘 알고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대적하려면 기본적으로 중국어를 구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기본적인 언어가 구사될 때 그들의 생각과 속내를 간파할 수 있고 거래에서 나의 것을 취할 수 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세계의 중심무대가 될 동북아의 주역이 될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해야한다. 기회는 준비한 자의 것이다. 중국어를 배워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저 광활한 중국대륙에 펼쳐 보이기 바란다.





귀여운 학생

생활영어 강사
조혜숙

유 선생님, 정 선생님, 이 선생님, 진 여사님, 정 여사님...

우리 생활영어반의 학생들이다. 나이가 강사인 나보다 이십세에서 삼십세 이상 많으신 이 분들은 언제나 눈빛을 반짝이며 강사의 한 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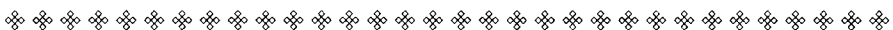
전쟁을 겪느라고 영어할 기회를 놓치신 분, 중·고등학교 때 회화 공부를 해 볼 기회가 없어서 오신 분, 아이들 가르치며 영어 공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나오는 분, 우리 영어반의 열기는 매 시간 뜨겁다.

어린 아이들은 아직 철이 없어 부모의 강요에 못 이겨 영어를 배우지만 성인들은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너무나 필요성을 느껴 공부하기 때문에 선생님인 나 자신이 그 분들을 존경할 정도로 그들의 모습은 뜨겁다.

첫 시간에 강사가 어떤 사람일까 학생들은 어떨까 호기심과 경계심에서 시작한 수강생들은 “회화 중심의 수업으로 가능하면 수업시간에 영어를 많이 하도록 하겠다.”는 소개에 긴장한 모습들을 보인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해 낼 수 있을까 각오를 다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잘 외우고 준비했다가도 강사가 물어보면 얼굴이 빨개지며 더듬거리고 머리 속이 하얘진단다. 차라리 모르는 외국인이라면 다시 볼 일은 없을 테니까 용감히 말하겠는데 영어 선생님이 외국인 보다 더 무섭다나...

생활 영어 과목의 특성상 우리는 자신의 생활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게 되므로 때로는 영어로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들에 대한 사랑 또는 불만을 이야기한다. 그러다보면 한 달, 두 달이 지나 어느 덧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어 연세 드신 분들은 어머니, 아버지처럼 느껴지고 젊은이들은 자식이나 며느리 같은 모습이 되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언제 두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게 수업시간이 지나간다.



때로는 수강 기간 도중 머느리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기도 하고 친정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형편 때문에 수강을 포기해야 하는 사정이 생기기도하고 우리는 울고 웃으며 하나가 되어간다.

성격에 따라 강사가 놀랄 정도로 영어가 성장하는 분도 있지만 내성적이고 수줍어하는 성격은 잘 늘지 않는다. 그럴 때면 ‘콩나물의 자람’을 비유로 설명하며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지만 어느새 콩나물은 자라있는 걸 보며 우리의 영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것 같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니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한다.

우리 반 학생 중 70세가 넘으신 유 선생님이라는 분이 전에는 영어할 엄두를 못 내셨는데 생활영어를 수강하고 외국에 여행할 기회가 있어 나가셨다가 영어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틀리든 맞든 당신이 하고 싶은 표현을 하게 됐다며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입을 굳게 다물고 있던 분들이 선생님이 시켜주지 않아 서운해 하기도 한다.

우리 수강생 중에 어떤 분은 은퇴하신 남편과 저녁 늦은 시간까지 송편이나 만두를 빚어 하나, 하나 포장해 쉬는 시간에 수강생 전부에게 간식을 제공하기도 해서 우리를 감동시키기도 한다.

우리 반에 ‘이 선생님’은 연세가 70이 넘어 머리가 아주 하얀데 얼마나 선생님 질문에 대답을 열심히 하는 지 그 모습이 너무나 귀여워 죄송하지만 ‘귀여운 학생’이라고 부른다.

생활영어 시간은 감동과 행복과 보람이다.

우리에게 넘지 못할 산은 없다.





사랑은 오래 기다리고....

부모교육강사
김영자

몇 년 전 딸과 함께 뉴욕 맨하탄에 있는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을 관람할 기회가 있었다. 소장된 수많은 유물과 미술품에 놀라고 감탄하면서 박물관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내가 정말 감탄한 것은 전시된 미술작품들에 대한 딸의 설명이었다. 그림, 조각, 건축 등 다양한 전시품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나를 감동시켰고 지금까지 내가 잘 몰랐던 딸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공과는 무관한 미술공부를 언제 한 것일까 궁금하여 딸에게 넌지시 물어보았다. “너는 언제부터 이 분야에 관심이 있었니?” 딸은 이렇게 대답했다. “고등학교시절 담임선생님과 의 갈등으로 학교도 공부도 싫었을 때 친구와 함께 그림을 보러 다니곤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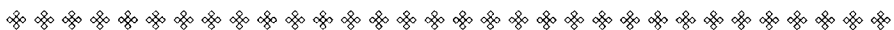
그것이 인연이 되어 오늘까지 미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성적은 떨어지고 선생님은 내게 문제가 있다고 여러 차례 엄마에게 말씀하셨지만 엄마는 저를 믿어주셨지요.

그때 ‘너는 학교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기에 선생님께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듣느냐? 그리고 매일 어디를 그렇게 쏘다니느냐’라고 끊임 없이 잔소리를 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잠시 20년 전 딸의 방황하던 모습에 가슴이 저려왔다. 모든 사람이 대학진학을 걱정할 때에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우선 고등학교를 순탄하게 졸업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의 기도를 하는 일이었고 대학진학은 차후의 문제였다.

그래서 나는 가슴줄이며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싶고, 선생님이 자신을 믿어 주기를 갈망하던 딸아이에게 펼





질문에 대한 답변, 답변에 대한 의문

자녀독서지도강사
최영옥

... I ...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가 시험지를 펼럭이며 상기된 얼굴로 들어섭니다.

“엄마, 나 오늘 올 백 맞았는데 뭐 해줄 거예요?”

“우리 아들, 정말 잘 했구나. 엄마랑 네가 좋아하는 초밥 먹으러 가자”

“에이 겨우 초밥? 올 백인데!”

세상을 다 얻은 듯한 아이는 너무나 의기양양합니다. 엄마랑은 초밥 먹고, 아빠한테는 게임카드를 사달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게임카드는 엄마가 더 이상은 안 된다며 아이의 요구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올 백에 감동한 아빠는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무슨 걱정입니까? 올 백을 맞을 수 있는 아이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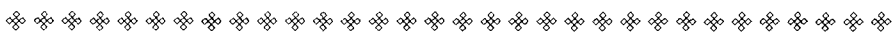
....

— 선생님, 우리 아이 게임카드 사줘도 될까요?

— 아이가 그렇게 당당히 요구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아이에게 100점은 ‘최고의 선’이 되어 버렸을 지도 모릅니다. 100점을 받아왔을 때보다 친구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보였을 때 더 많이 칭찬해 보세요. 이웃들과 기쁨을 나누는 아이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세요. 아이는 엄마가 어떤 것들을 귀하게 생각하는지를 배우게 되겠지요.

... II ...

앞으로는 ‘논술이 대세’라고들 합니다. 신문 지면을 가득 메운 논술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 논술학원에 대한 각종 유인물들이 부모들을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논술을 잘 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데 아이는 도무지 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기회만 되면 오락하는 시간을 벌기위해 이런 저런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주중에는 한 시간, 토·일요일에는 두 시간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임에 늘 갈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이와 협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책 100권 읽으면 내가 원하는 것 다 들어줄게”

“엄마,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 사 주세요”

“그래 좋아. 그 대신 약속은 꼭 지켜야 해. 책도 잘 읽고 오락하는 시간도 잘 지켜야 해”

“네!”

아이는 자신있게 대답하지만 엄마는 불안합니다.

...

— 선생님, 책 읽게 하려고 게임기 사줘도 될까요?

— 아이에게 책 100권 읽기는 게임기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앞으로 책 읽게 하는 것보다 오락 못하게 하는 것이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읽어내기 위한 책 읽기’에 책 읽는 즐거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게임이 자리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협상을 재고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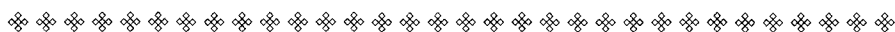
...III...

아이가 학교에서 가져온 도서목록을 펼쳐보았습니다.

다음 달에 있을 독서퀴즈를 위한 책 이름들이 빼곡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 학년을 1-3학년, 4-6학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참고도서가 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학년인 우리 아이에게 그 책들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에게 그 책들을 읽어보라고 했지만 옆으로 밀쳐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책들을 보며 마냥 즐거워합니다. 걱정이 된 엄마는 책을 읽어주기까지 하지만 아이는 관심도 없습니다.



- 선생님, 그 책들을 아이에게 억지로 읽혀야 할까요?
 - 상을 타기 위해, 점수를 잘 얻기 위해서 아이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빼앗지 말았으면 합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책을 읽을 때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때가 되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그 책들을 가까이 하게 될 것입니다.
- 기꺼이 상을 포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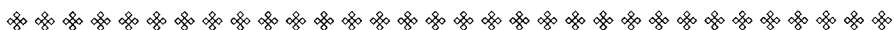
독서를 매개로 여러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이런 저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만화만 읽는 아이, 역사나 과학 같은 특정 분야의 책만 읽는 아이, 반대로 생활동화 같은 이야기에만 빠져 있는 아이, 여러 유형의 독서습관을 바로잡아 주고 싶은 부모님들의 바람에서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나름대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일 것이라 생각되는 답변을 하지만 매번 의문이 생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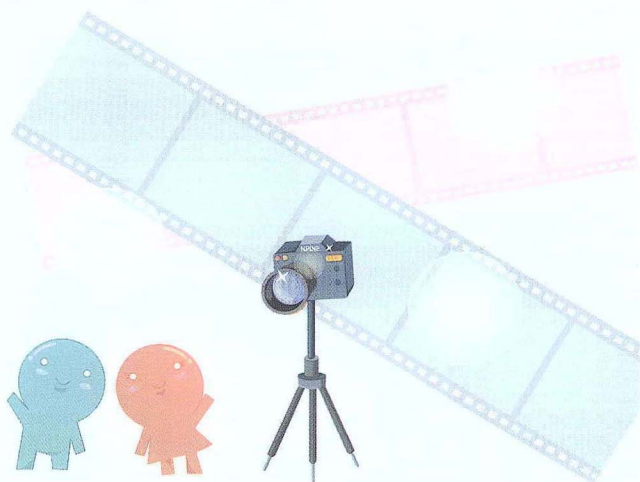
‘경우에 따라서...’

참 편리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이들마다 모두가 특성이 다르기에 한 가지 처방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도(正道)는 없습니다. 부모는 다만 아이들이 잘 자라주었으면 하는 바람만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이들 자신입니다. 아이들이 가는 길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합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이라는 시집 제목을 떠올려 봅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질문하신 분들께 ‘답변’이라는 명분으로 대신해 봅니다.



도서관 이모저모



도서관 주간행사



▲ 도서관 주간 특수학교 견학



▲ 책나무 붙이기



▲ 탁본체험



▲ 독후활동



▲ 우수도서 삽화 전시회

독서교실



▲ 독서교실 개강식



▲ 무대책 만들기



▲ 옛이야기 듣고 동시쓰기

독서의 달 행사



▲ 채인선 아동작가와 만남



▲ 이우고등학교 도서관 도서관 견학



▲ 성남의 들꽃 그림책 사진전



▲ 인형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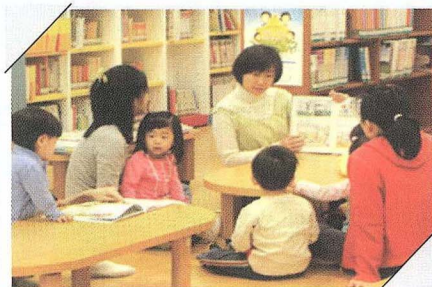
독서의 달



▲ 국제결혼 적응프로그램



▲ 관내 청소년들의 실력을 뽐내는
꿈나무 백일장



▲ 유아를 위한 동화읽어주기



▲ 유아를 위한 동화구연

독서회



▲ 1학년 독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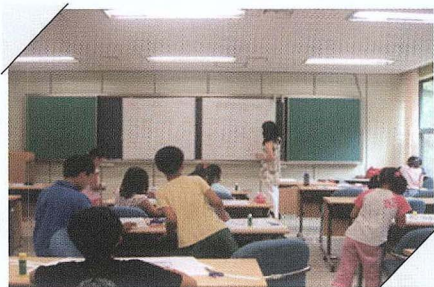
▲ 4학년 독서회



▲ 2학년 독서회



▲ 5·6학년 독서회



▲ 3학년 독서회

문화교실



▲ 부모역할 훈련



▲ 생활일본어



▲ 어머니 손술교실



▲ 생활중국어



▲ 한자교실



▲ 엄마와 함께 영어를 (4, 5세반)



▲ 엄마와 점토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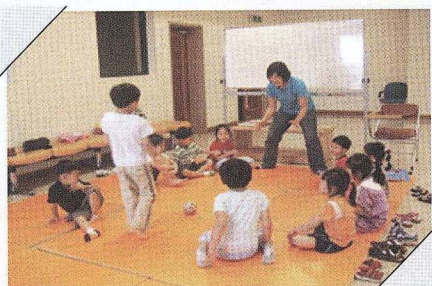


▲ 새내기 글쓰기

문화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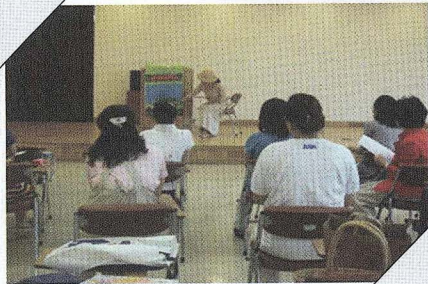
◀ 어린이 글쓰기



▲ 유아 영어동화구연



▲ 플라워 아트



▲ 어머니 동화구연

겨울독서교실
(2006년 1월 3일~1월 7일)



▲ 벽신문 만들기-모듬 친해지기



▲ 벽신문 만들기-모듬 친해지기



▲ 주인공에게 상장주기



▲ 주인공에게 상장주기

분당도서관 행사 사진 및 작품



▲ 책표지 만들기



▲ 책표지 만들기



▲ 작은 신문 만들기



▲ 작은 신문 만들기

2006년 여름
(2006년 7월 25일~7월 28일)



▲ 책속 보물찾기



▲ 도서관에서 할수 있는 일



▲ 정지화면 만들기

분당도서관 행사 사진 및 작품



▲ 정지화면 만들기



▲ 원고작성법 & 독후감상문 작성법



▲ 좋은 책 고르기

분당도서관 행사 사진 및 작품



▲ 나만의 책 만들기



▲ 독서신문 만들기



▲ 나만의 책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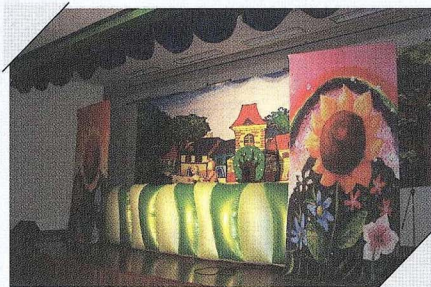
▲ 나만의 책 만들기

분당도서관 행사 사진 및 작품

분당도서관 인형극 공연사진



▲ 6월 - 구두장이 행복찾기



▲ 10월 - 빨간모자



▲ 동화구연



▲ 동화구연



▲ 도서관 희망나무 만들기



▲ 우수도서 전시회



▲ 책과 친구하기



▲ 원화삽화전시회

분당독서 사진자료



▲ 독서교실 작품전시회



▲ 탁본체험



▲ 책과 친구하기



▲ 인형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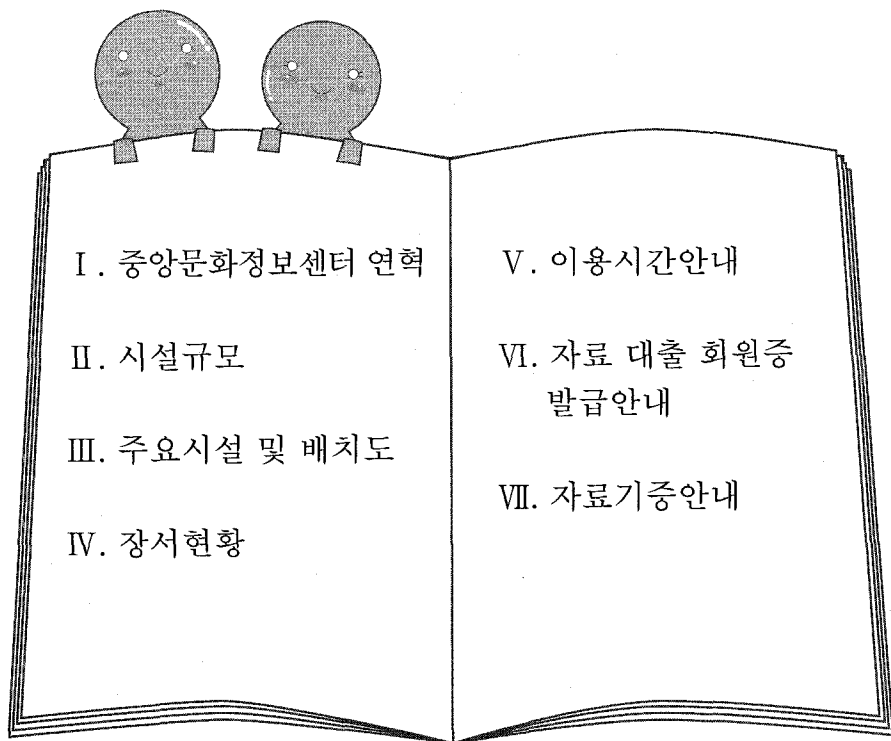


▲ 작가와의 만남



▲ 작가와의 만남

중앙문화정보센터 (중앙 분당도서관)이용안내



I. 중앙문화센터 연혁

▼ 중앙문화정보센터

- 중앙도서관, 여성문화회관
- 1997. 10. 6 착공
- 2001. 8. 29 준공
- 2001. 11. 10 직제운영
- 2001. 11. 13 중앙문화정보센터 개관

▼ 분당분관

- 1999. 8. 31 준공
- 1999. 9. 1 직제운영
- 1999. 10. 27 분당문화정보센터 개관

II. 시설규모

▼ 중앙도서관

- 부 지 : 58,586m²
- 건 물 : 13,018,16m²
- 층 수 : 5층(지하1층, 지상4층)
- 좌석수 : 3,500석

▼ 분당도서관

- 부 지 : 4,052m²
- 건 물 : 8,525m²
- 층 수 : 6층(지하1층, 지상4층)
- 좌석수 : 2,006석

Ⅲ. 주요시설 및 배치도

▼ 중앙도서관

4층	제 3, 4열람실(432석)				
3층	컴퓨터 교육실 (37석)	시청각실 (220석)	문화교실 (66석)	세미나실 (24석)	제1, 2 열람실 (432석)
2층	전자정보실 (142석)		제 1문헌정보실 (241석)	제 2문헌정보실 (241석)	
1층	어린이·모자 열람실 (144석)	장애인 열람실 (62석)	독서치료 상담실 (70석)	사무실	
지층	식당 및 매점 (318석)				

▼ 분당도서관

5층	제 3열람실 (100석)		사무실		
4층	제 1, 2 열람실 (390석)				
3층	문헌정보실 (245석)				
2층	전자정보실 (111석)	어학실 (48석)	전시실	세미나실 (13석)	문화교실 (88석)
1층	어린이·모자 열람실 (100석)	장애인 열람실 (17석)		연속 간행물실 (44석)	
지층	시청각실 (172석)		식당 및 매점 (228석)		

N. 장서현황

▼ 도서자료

• 중앙도서관

2006. 11. 30 현재 단위(권)

분 류	계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어학	문학	역사
계	182,329	11,901	8,135	6,740	33,532	11,666	14,858	10,787	10,992	60,741	12,977
일 반	128,862	7,662	7,494	5,478	26,258	4,473	13,951	9,227	7,865	38,761	7,693
아 동	49,480	3,866	630	1,251	6,821	7,034	835	1,492	2,279	20,279	4,993
서양서	3,623	342	7	10	322	157	44	56	847	1,607	231
이미지	278	31	0	0	128	2	28	11	1	18	59
접 자	86	0	4	1	3	0	0	1	0	76	1

• 분당도서관

2006. 11. 30 현재 단위(권)

분류	계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어학	문학	역사
계	196,722	11,696	8,339	6,305	42,506	11,819	20,288	12,788	10,046	60,848	12,087
일 반	146,531	8,568	7,559	5,219	35,949	5,265	19,297	11,324	7,315	38,251	7,784
아 동	44,071	2,974	664	895	5,909	6,388	718	1,340	1,853	19,180	4,150
서양서	2,590	111	10	4	327	115	3	53	857	1,106	4
이미지	86	16	0	0	26	0	1	9	0	10	24
접 자	3,444	27	106	187	295	51	269	62	21	2,301	125

▼ 비도서자료

2006. 11. 30 현재

구분	계	CD	DVD	CDROM	Video	Cassette/tape	지도	독서자료	연속간행물	
									잡지	신문
계	9,749	1,423	4,042	1,519	1,653	358	73	41	551	89
중앙도서관	5,353	733	2,446	901	653	238	34	41	266	41
분당도서관	4,396	690	1,596	618	1,000	120	39	0	285	48

V. 이용시간 안내

▼ 이용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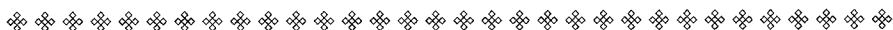
실 별	운영내용 비치자료	이용시간	
		평일	토/일요일
일반열람실	개인학습공간 (공부방)	07:00~22:00	07:00~22:00
제 1문헌정보실	일반도서, 참도서	09:00~22:00	09:00~17:00
제 2문헌정보실 (분당관은 없음)	문학도서, 연속간행물	09:00~22:00	09:00~17:00
어린이·모자 열람실	유아도서, 아동도서	09:00~18:00	09:00~17:00
전자 정보실	인터넷, 원문자료, 비도서자료	09:00~18:00	09:00~17:00
장애인 열람실	녹음도서, 문자확대기, 점자프린터기	09:00~18:00	09:00~17:00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단, 중앙 - 둘째, 넷째

분당 - 첫째, 셋째 월요일은 일반 열람실 개방

신정, 설날연휴, 추석연휴(다른 공휴일은 일반 열람실 개방)



Ⅵ. 자료 대출 회원증 발급안내

▼ 자 격

- 성남시가 주민등록지이거나 성남시에 직장 및 학교가 있는 초등학교 이상

▼ 구비서류

- 도서대출회원 가입신청서 1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
(어린이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의료보험증과 부모님 신분증)
- 직장이 성남시일 경우 재직증명서, 학생일 경우 학생증
- 증명사진이나 반명함판 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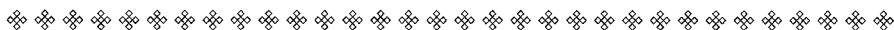
▼ 발급장소

- 초등학교 : 어린이 열람실
- 중/고등학교 및 성인남녀 : 문헌정보실

▼ 대출권수 및 기간

- 1회 3권까지 14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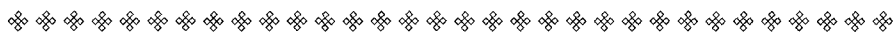
- ♣ 관외대출은 가입신청 당일 가능하며 대출 회원증은 발급 신청 7일후에 발급됩니다. 또한 대출증은 관내 4개 도서관(중앙, 분당, 수정, 중원)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며 도서관별로 각3권씩 14일간 대출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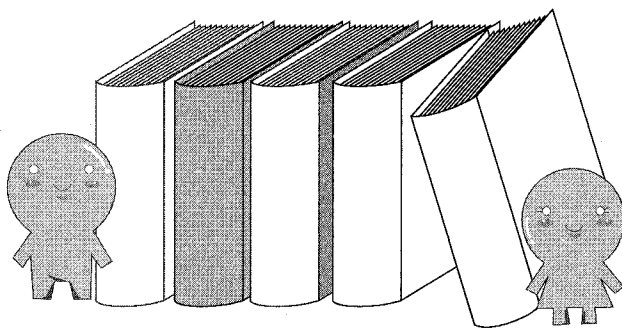
Ⅶ. 자료기증 안내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도서는 선별하여 열람실에 소장하여 이용하거나 재기증, 도서교환전 등의 행사를 통하여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 있으시기 바랍니다.

- ▶ 기간 : 연중(지속적 접수)
- ▶ 대상자료 : 도서, 향토자료
- ▶ 기준
 - 일반도서 : 4년 이전 출판물
 - 법률도서 : 당해연도 출판
 - 문학적 가치가 있거나 보존 활용가치가 있는 향토자료
 - 문학류 등 기타상태가 양호한 도서는 출판년도와 관계없음
- ▶ 문의 : 중앙도서관 (☎ 729-4876)
분당도서관 (☎ 718-5915~7)



우수도서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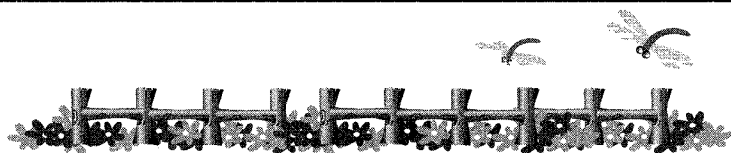


연번	서 명	저자/역자/편자	출판사명	대상분류	분야	가격
1	책으로 보는 KBS 생로병사의 비밀 3	KBS 제작팀	가치창조	일반 실용	기술 과학	13,000
2	한국의 산삼	김홍대	김영사	일반 교양 과학	기술 과학	33,000
3	곰탕이 건강을 말아먹는다	황성수	동도원	일반 실용	기술 과학	9,500
4	일반인과 최초반응자를 위한 응급처치	박상규	라이프 사이언스	일반 전문	기술 과학	18,000
5	아름답고 새로운 도로공학원론	손원표	반석기술	일반 전문	기술 과학	45,000
6	작은세계 기술 나노의세계	노승정 외	북스힐	일반 교양	기술 과학	13,000
7	과학사의 유쾌한 반란	하인리히 찬클 /전동열 외	아침미술	일반 교양 과학	기술 과학	10,000
8	멘토, 지식경영시대의 새로운리더	마이클J.마퀴트 외 /원은주	이른아침	일반 전문	기술 과학	10,000
9	영국의 플라워 쇼와 정원문화	윤상준	조경	일반 전문	기술 과학	24,000
10	우리 과학의 수수께끼	신동원	한겨레출판	청소년	기술 과학	13,000
11	우리 몸은 채식을 원한다	이광조	현암사	일반 교양	기술 과학	9,500
12	맛있는 우리음식	이정희, 이애자	효일	일반 요리	기술 과학	20,000
13	소설 퇴계 이황	김성한	가람기획	일반 소설	문학	9,000
14	데르수 우잘라	블라디미르 K.A /김육	갈라파고스	일반 산문	문학	12,800
15	아가씨, 대중문화의 숲에서 희망을 보다	정여울	강	일반 예술 대중 문화	문학	12,000
16	재주 많은 여섯 쌍둥이	박지나 외	강원대학교 출판부	일반 교양	문학	20,000
17	가난의 비밀	정연희	개미	일반 교양	문학	9,000
18	라모의 조카	드니 디드로 /황현산	고려대학교 출판부	일반 전문	문학	9,000
19	다빈치 코드와 숨겨진 역사	린 피코넷 외 /권인택	교문사	일반 교양	문학	19,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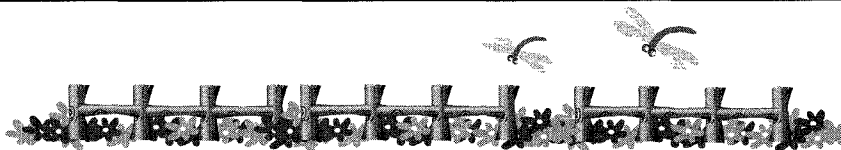


연번	서 명	저자/역자/편자	출판사명	대상분류	분야	가격
20	엄마에게는 괴물 나에게는 선물	길지연	국민서관	아동	문학	7,000
21	괜찮아, 보이는 게 전부 아니야	젍 테르 하르 /이미옥	공리출판	청소년	문학	8,000
22-1	옥루몽 1	남영로/김풍기	그린비	일반 교양 고전	문학	8,500
22-2	옥루몽 2	남영로/김풍기	그린비	일반 교양 고전	문학	8,500
22-3	옥루몽 3	남영로/김풍기	그린비	일반 교양 고전	문학	8,500
22-4	옥루몽 4	남영로/김풍기	그린비	일반 교양 고전	문학	8,500
22-5	옥루몽 5	남영로/김풍기	그린비	일반 교양 고전	문학	8,500
23	피주머니 뱃속에 차고 계수나무에 간 달아놓고	장재화	나라말	청소년	문학	8,500
24	나를 격려하는 하루	김미라	나무생각	일반 교양 산문	문학	9,800
25-1	핀투여행기 상	페르낭 멘데스 핀투/이명	노마드북스	일반 교양	문학	27,000
25-2	핀투여행기 하	페르낭 멘데스 핀투/이명	노마드북스	일반 교양	문학	27,000
26	지붕 위의 시인 로니	재클린 우드슨 /김윤희	다른	청소년	문학	8,500
27	떠도는 혼	허버트 J. 바트 /이문희	다른우리	일반 소설	문학	8,500
28	학교로 간 터줏대감	전다연	대교출판	아동	문학	7,500
29	내 동생 싸게 팔아요	임정자	대한교과서	아동	문학	7,500
30	수목장-에코 다잉의 세계	변우혁	도솔	일반 전문	문학	11,000
31-1	거제도1	손영목	동서문화사	일반 교양 소설	문학	9,800
31-2	거제도2	손영목	동서문화사	일반 교양 소설	문학	9,800
32	당신은 이미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이승우	마음산책	일반 교양	문학	9,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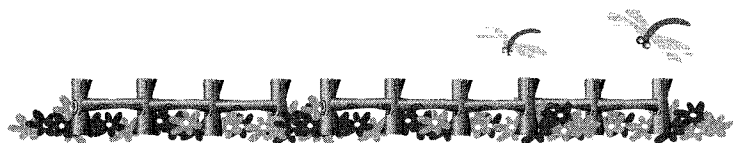
연번	서 명	저자/역자/편자	출판사명	대상분류	분야	가격
33	아리랑 시원설 연구	김연갑	명상	일반 전문	문학	25,000
34	살구 씨, 몇만 년	신현득	문원	아동	문학	7,500
35	아빠는 한 걸음 뒤에	이혜영	문원	아동	문학	7,500
36	연못에 놀러온 빗방울	서향숙	문원	아동	문학	7,000
37	도둑계	김이정	문이당	일반 소설	문학	9,000
38	연리지가 있는 풍경	김종성	문이당	일반 소설	문학	9,500
39	자두	홍양순	문이당	일반 소설	문학	9,500
40	꽃과 숨기장난	서상영	문학과 지성사	시집	문학	6,000
41	보이지 않는 손	복거일	문학과 지성사	일반 소설	문학	9,000
42	무덤 속의 그림	문영숙	문학동네	아동	문학	9,500
43	분홍색 흐느낌	신기섭	문학동네	시집	문학	7,000
44	빛의 제국	김영하	문학동네	일반 소설	문학	9,800
45	약혼	이응준	문학동네	일반 소설	문학	9,500
46	달의 영토	박현술	문학사상사	시집	문학	7,000
47	봉지	김인숙	문학사상사	일반 소설	문학	9,500
48	연적	문형렬	문학세계사	일반 소설	문학	9,800
49	오늘은 이 산이 고향이다	이종만	문학세계사	시집	문학	6,000
50	초록 목시록	김여정	문학 아카데미	시집	문학	6,000
51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어!	박경진	미세기	아동	문학	9,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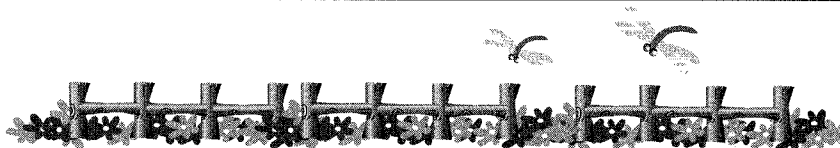
연번	서 명	저자/역자/편자	출판사명	대상분류	분야	가격
52	나비를 태우는 강	이화경	민음사	일반 교양 소설	문학	9,000
53	인디오 여인	곽효환	민음사	시집	문학	7,000
54	리언이야기	리언 월터 킬리지 /배경내	바람의 아이들	아동	문학	6,800
55	소녀 안네 프랑크 평전	멜리사 월러 /박정미	바움	청소년	문학	25,000
56	인생의 동반자들	제인 비더/박웅희	바움	일반 에세이	문학	9,800
57	낮짚이 간다	김송이	보리	아동	문학	8,800
37	도둑계	김이정	문이당	일반 소설	문학	9,000
38	연리지가 있는 풍경	김종성	문이당	일반 소설	문학	9,500
39	자두	홍양순	문이당	일반 소설	문학	9,500
40	꽃과 숨기장난	서상영	문학과 지성사	시집	문학	6,000
41	보이지 않는 손	복거일	문학과 지성사	일반 소설	문학	9,000
42	무덤 속의 그림	문영숙	문학동네	아동	문학	9,500
43	분홍색 흐느낌	신기섭	문학동네	시집	문학	7,000
44	빛의 제국	김영하	문학동네	일반 소설	문학	9,800
45	악혼	이응준	문학동네	일반 소설	문학	9,500
46	달의 영토	박현솔	문학사상사	시집	문학	7,000
47	봉지	김인숙	문학사상사	일반 소설	문학	9,500
48	연적	문형렬	문학세계사	일반 소설	문학	9,800
49	오늘은 이 산이 고향이다	이종만	문학세계사	시집	문학	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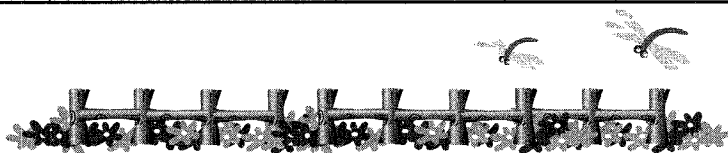
연번	서 명	저자/역자/편자	출판사명	대상분류	분야	가격
50	초록 목시록	김여정	문학 아카데미	시집	문학	6,000
51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어!	박경진	미세기	아동	문학	9,000
52	나비를 태우는 강	이화경	민음사	일반 교양 소설	문학	9,000
53	인디오 여인	곽효환	민음사	시집	문학	7,000
54	리언이야기	리언 월터 킬리지 /배경내	바람의 아이들	아동	문학	6,800
55	소녀 안네 프랑크 평전	멜리사 월러 /박정미	바움	청소년	문학	25,000
56	인생의 동반자들	제인 비더/박웅희	바움	일반 에세이	문학	9,800
57	넛짱이 간다	김송이	보리	아동	문학	8,800
58	달걀 한 개	박선미	보리	아동	문학	8,000
59	고슴도치 아이	카타지나 K /최성은	보림출판사	아동	문학	8,000
60	우리 가족입니다	이혜란	보림출판사	아동	문학	9,000
61	핵 폭발 뒤 최후의 아이들	구드룬 파우제방 /함미라	보물창고	아동	문학	9,500
62	스토리텔링	조은하 외	복스힐	일반 교양	문학	18,000
63	꽃도 십자가도 없는 무덤	클로드 모르강 /조광희	북하우스	일반 교양	문학	9,000
64	내 생각은 누가 해줘?	임사라	비룡소	아동	문학	8,000
65	생일	장영희	비채코리아 북스	일반 교양	문학	9,500
66	노근리, 그 해 여름	김정희	사계절 출판사	아동	문학	8,000
67	몽구스 크루	신여랑	사계절 출판사	청소년	문학	8,500
68	바르톨로메는 개가 아니다	라헬 판 코에이 /박종대	사계절 출판사	아동	문학	8,500



연번	서 명	저자/역자/편자	출판사명	대상분류	분야	가격
69	꿀잠	송경동	삶이 보이는 창	시집	문학	6,000
70	도깨비가 준 보물	서정오 외	삼성출판사	아동	문학	6,200
71	가만가만 사랑해야지 이 작은 것들	이철수	삼인	교양 일기 편지	문학	9,800
72	죽은 시인들의 사회	우대식	새움	일반 문학론	문학	9,800
73	그 산을 넘고 싶다	한점마	샘터사	일반 교양 예술	문학	10,000
74	엄마가 사라졌다	수 코벳/고정아	생각과느낌	아동	문학	8,800
75	애들이 단오가자	이순원	생각의 나무	아동	문학	8,500
76	미국 흑인문화와 그 전통	천승걸	서울대학교 출판부	일반 전문	문학	12,000
77	내 몸 위로 용암이 흘러갔다	한명희	세계사	시집	문학	6,000
78	선사시대 앞에서 그녀를 기다린다	장무령	세계사	시집	문학	6,000
79	슬픈 거짓말	김남길 외 6명	세상모든책	아동	문학	8,000
80	붓끝으로 부사산 바람을 가르다	남옥/김보경	소명출판	일반 전문	문학	22,000
81	와신상담의 마음으로 일본을 기록하다	원종거/박재금	소명출판	일반 교양	문학	19,000
82	하얀 마사이	코리네희프만 /두행숙	솔출판사	일반 교양	문학	11,000
83	상계동 11월 은행나무	강세환	시와 에세이	시집	문학	8,000
84	지역문화와 주변부적 시각	구모룡	신생	일반 전문	문학	15,000
85	탐독 - 유목적 사유의 탄생	이정우	아고라	일반 철학	문학	13,000
86	셰익스피어의 여인들1	안나 제임슨 /서대경	아모르문디	일반 문학론	문학	14,000
87	비버족의 표식	엘리자베스 G. S. /김기영	아침이슬	청소년	문학	9,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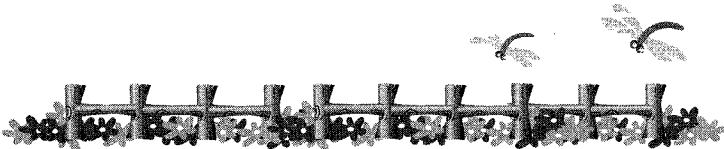


연번	서 명	저자/역자/편자	출판사명	대상분류	분야	가격
88	자전거도둑	신현정	애지	시집	문학	7,000
89	나무소녀	벤 마이켈슨 /홍한별	양철북	청소년	문학	8,500
90	두 친구 이야기	안케 드브리스 /박정화	양철북	청소년	문학	8,500
91	로쿠베, 조금만 기다려	하타니 G. /햇살과나무꾼	양철북	아동	문학	8,500
92	허수아비의 여름 휴가	시게마츠 기요시 /오유리	양철북	일반 교양	문학	9,500
93	문신공방 하나	정과리	역락	일반 산문	문학	12,000
94	김정환의 할 말 안할 말	김정환	열림원	일반 교양 대중문화	문학	9,500
95-1	한국 전후 문제시인 연구 01	김학동 외	예림기획	일반 전문	문학	40,000
95-2	한국 전후 문제시인 연구 02	김학동 외	예림기획	일반 전문	문학	40,000
95-3	한국 전후 문제시인 연구 03	김학동 외	예림기획	일반 전문	문학	40,000
95-4	한국 전후 문제시인 연구 04	김학동 외	예림기획	일반 전문	문학	40,000
95-5	한국 전후 문제시인 연구 05	김학동 외	예림기획	일반 전문	문학	40,000
96	사랑은 가고 과거는 남는 것	문승묵	예옥	일반 문학 전집	문학	35,000
97	거대한 뿌리	김종미	우리교육 검동소	일반 소설	문학	9,000
98	인사동	이생진	우리글	시집	문학	6,000
99	붉은 리본	전경린	웅진씽크빅	일반 산문	문학	9,800
100	어둠의 숲에 떨어진 일곱 번째 눈물	정지아	웅진씽크빅	아동	문학	8,500
101	생성의 시학	이연승	월인	일반 전문	문학	12,000
102	시향-2006	미주한국시문학회	월인	시집	문학	7,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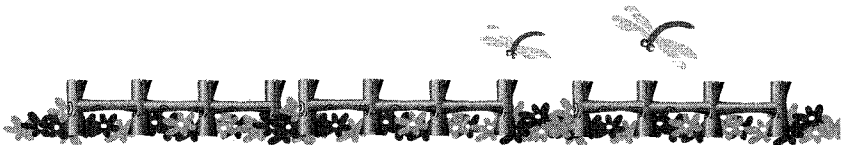


연번	서 명	저자/역자/편자	출판사명	대상분류	분야	가격
103	차이나 리포트	최명철	월인	일반 교양	문학	16,000
104	100권의 금서	니컬러스 J.K. 외 /손희승	위즈덤 하우스	일반 교양	문학	22,000
105	접동새 이야기	오정희	이가서	아동	문학	8,900
106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최복현	이른아침	일반 교양	문학	8,800
107	얼씨구 절씨구 풍년이 왔네	원동은	재미마주	아동	문학	13,000
108	열정을 기억하라	알베르트 슈바이처 /심재관	좋은생각 사람들	일반 자기개발	문학	9,000
109	옛이야기와 어린이문학	이지호	집문당	일반 전문	문학	13,500
110	산속 어린 새	김명수	창비	아동	문학	8,000
111	새는 새는 나무 자고	전래동요	창비	아동	문학	9,500
112	애벌레를 위하여	이상권	창비	청소년	문학	12,000
113	캄캄한 날개를 위하여	전성호	창비	시집	문학	6,000
114	일본 하이쿠 선집 —책세상문고 세계문학 034	마쓰오 바쇼 외 /오석윤	책세상	일반 교양	문학	5,900
115	밥이나 먹자, 꽃아	권현형	천년의시작	시집	문학	6,000
116	김수영 시의 수사학	장석원	청동거울	일반 전문	문학	15,000
117	돌아온 삼사리 꿈이와 몽이	임인학	청어람 미디어	아동	문학	9,800
118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	임동화	코나투스	일반 이론서	문학	25,000
119	우리시대 현대시조 100인 선	이지엽 외	태학사	시집	문학	10,000
120	작은 것의 아름다움	남공철/안순태	태학사	일반 교양	문학	9,000
121	전기-초월과 환상, 서른한 편의 기이한 이야기	배형/최진아	푸른숲	일반 교양	문학	1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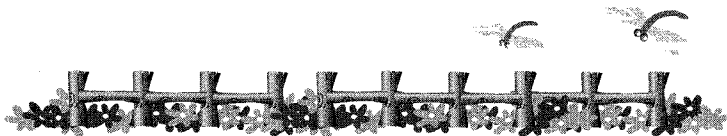
연번	서명	저자/역자/편자	출판사명	대상분류	분야	가격
122	길 위의 책	강미	푸른책들	청소년	문학	8,800
123	밤티 마을 봄이네 집	이금이	푸른책들	아동	문학	7,800
124	요한의 선택	한스-게오르크 N /모명숙	풀빛	청소년	문학	9,500
125	여우야 여우야 뭐 하니	조영아	한겨레출판	일반 소설	문학	9,000
126	디지털 텍스트와 문화 읽기	김진량	한양대학교 출판부	일반 이론	문학	12,000
127	간찰, 선비의 마음을 읽다	심경호	한얼미디어	일반 교양	문학	13,000
128	세계문학의 거장을 만나다	김준태	한얼미디어	일반 문학기행	문학	15,000
129	옛길을 가다	김재홍 송연	한얼미디어	일반 교양 여행	문학	15,000
130	악마의 사랑	임노월/방민호	향연	일반 소설	문학	9,300
131	산해경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동양고전)	미상/장수철	현암사	청소년	문학	15,000
132	시인박물관	손현숙/우찬제	현암사	일반 예술 사진	문학	18,000
133	참하고 소박한 우리 밥상 이야기	이영미	황금가지	일반 실용	문학	15,000
134	소멸하는 순간	박유하	황소자리	일반 소설	문학	10,000
135	검은 마법사와 쿠페빵	모리 에토/박미옥	휴먼앤박스	일반 교양	문학	9,500
136	근대문학의 종언	가라타니 교진 /조영일	b	일반 이론	문학	20,000
137	(그림으로 이해하는)경제사상	홍은주	개마고원	일반 교양	사회 과학	10,000
138	(그림으로 이해하는)정치사상	김만권	개마고원	일반 교양	사회 과학	10,000
139	그 순간 대한민국이 바뀌었다	김옥	개마고원	일반 교양	사회 과학	10,000
140	오리엔탈리즘의 새로운 신화들	성일권	고즈원	일반 전문	사회 과학	11,800



연번	서 명	저자/역자/편자	출판사명	대상분류	분야	가격
141	청개구리 길들이기	로버트 J. 매켄지 /이순호	교양인	자녀교육	사회 과학	12,000
142	시장경제원리로 읽는 경제상식의 허와 실	한국경제연구원	굿인포 메이션	일반 경제경영	사회 과학	11,000
143	新 국부론	좌승희	굿인포 메이션	일반 교양	사회 과학	15,000
144	주제와 변주	인디고 서원	공리출판	청소년	사회 과학	18,000
145	상식지존, 뇌를 깨워라	송정림	글로세움	일반 상식	사회 과학	9,800
146	열정 깨우기	용혜원	나무생각	일반 자기개발	사회 과학	9,500
147	한 가지만 알아도 쉽게 풀리는 남녀 대화법	이정숙	나무생각	일반 교양	사회 과학	10,000
148	녹색의 상상력	박병상	달팽이출판	일반 교양	사회 과학	10,000
149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이민규	더난출판	일반 자기개발	사회 과학	10,000
150	일본 문화의 힘	윤상인 외	동아시아	일반 교양	사회 과학	12,000
151	21세기 한중일 삼국지	우수근	두리미디어	일반 교양	사회 과학	15,000
152	후지쯔 성과주의 리포트	조 시계유키 /윤정원	들녘출판사	일반 경제경영	사회 과학	9,000
153	함께 크는 삶의 시작, 공동육아	이부미 외	또하나의 문화	자녀교육	사회 과학	12,000
154	핀란드 들여다보기	이병문	매경출판	일반 교양	사회 과학	12,000
155	CO2 전쟁	조현재 외	매경출판	일반 경제경영	사회 과학	12,000
156	내가 춤출 수 없다면 혁명이 아니다!	최세진	메이데이	일반 인문	사회 과학	12,000
157	간디, 나의 교육철학	마하트마 간디 /고병현	문예출판사	일반 전문	사회 과학	10,000
158	스토킹의 심리학	이규환	미토	일반 전문	사회 과학	10,000
159	민족신화와 건국영웅들	임재해	민속원	일반 전문	사회 과학	19,500



연번	서 명	저자/역자/편자	출판사명	대상분류	분야	가격
160	중국의 기업 산업 경제	이근 외	박영사	일반 전문	사회과학	29,000
161	대학이 변하고있다	이훈구	법문사	일반 전문	사회과학	15,000
162	한국의 부농들 : WTO 시대의 희망 농업 보고서	박학용 외	부키	일반 교양	사회과학	12,000
163	암호 이야기	박영수	북로드	청소년	사회과학	11,000
164	독일문화읽기	황성근	북코리아	일반 교양	사회과학	11,000
165	30년만의 휴식	이무석	비전과 리더십	일반 교양 명상	사회과학	12,000
166	싱글 마케팅	이연수	비즈니스 북스	일반 경제경영	사회과학	12,000
167	화해를 위해서: 교과서, 위안부, 야스쿠니, 독도	박유하	뿌리와 이파리	일반 교양	사회과학	10,000
168	한국산업의 발전비전 2020	산업비전2020 연구팀	산업연구원	일반 전문	사회과학	20,000
169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조지 레이코프 /유나영	삼인	일반 정치	사회과학	10,000
170	미래기업의 인재코드	최병권	새로운 제안	일반 경제경영	사회과학	13,000
171	그래도 자식은 희망입니다	박경애	시그마 프레스	자녀교육	사회과학	9,800
172	인터넷중독 완전정복	이형초, 심경섭	시그마 프레스	일반 자녀교육	사회과학	11,000
173	좋은 부모 되기 위한 10계명	로렌스 S. 버그 /신민섭	시그마 프레스	자녀교육	사회과학	9,800
174	남북의 청소년	조정기 외	시대정신	청소년	사회과학	12,000
175	교육정책의 나비효과를 꿈꾸며	한석수	아르케	일반 전문	사회과학	10,000
176	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주성수 외	아르케	일반 전문	사회과학	15,800
177	디지털미디어와 예술의 확장	피종호 외	아카넷	일반 전문	사회과학	15,000
178	애들아! 산책가자	임재택 외	양서원	일반 교육	사회과학	8,000



연번	서 명	저자/역자/편자	출판사명	대상분류	분야	가격
179	미래의 소비자들	마틴 레이먼드 /박정숙	에코리브르	일반 경제경영	사회 과학	18,500
180	우리 시대의 지식인을 말한다	전상인	에코리브르	일반 컬럼	사회 과학	10,000
181	환경경영 리포트	양인목 외	에코리브르	일반 교양	사회 과학	15,000
182	협력적 통치	이문영	열린책들	일반 전문	사회 과학	29,000
183	중국 속에 일떠서는 한민족	차한필	예문서원	일반 교양	사회 과학	15,000
184	열정의 중심에 서라	백정균	오늘의책	일반 자기개발	사회 과학	10,000
185	칭기즈칸리더십	신광철 외	오늘의책	일반 교양	사회 과학	12,000
186	17살 경제학	한진수	웅진씽크빅	청소년	사회 과학	10,000
187	논리적이면서도 매력적인 글쓰기의 기술	강미은	원앤원북스	일반 교양	사회 과학	12,000
188	왼쪽으로 가는 나 오른쪽으로 가는 너	노주선	원앤원북스	일반 자기개발	사회 과학	11,000
189	직장인을 위한 생존경제학	최성환	원앤원북스	일반 자기개발	사회 과학	14,000
190	홍보 리얼리티	금석호	이서원	일반 전문	사회 과학	12,000
191	슬로 석세스	김정하	이코북	일반 자기개발	사회 과학	12,000
192	건축, 우리의 자화상	임석재	인물과사상	일반 교양	사회 과학	12,000
193	대중문화의 겉과 속 3	강준만	인물과사상	일반 교양	사회 과학	10,000
194	머리를 감기 전에 생각부터 감아라	안상헌	즐거운상상	일반 실용	사회 과학	12,000
195	슬픔은 흘러야 한다	윤정은	즐거운상상	일반 산문	사회 과학	14,000
196	꼭 알아야 할 시사 교양 대한민국 트렌드	조영경 글	지경사	일반 교양	사회 과학	12,000
197	당신은 아들에게 어떤 아버지입니까?	스테판 B. 플터 /이원기	지식의날개	일반 자녀교육	사회 과학	1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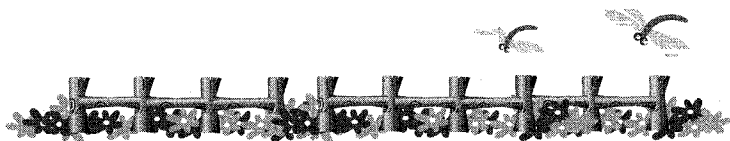


연번	서 명	저자/역자/편자	출판사명	대상분류	분야	가격
198	엑소더스 코리아	엄경영 외	집사재	일반 경제경영	사회 과학	15,000
199	세계는 평평하다	토머스L. F. /김상철 외	창해	일반 교양	사회 과학	26,000
200	에드워드 사이드 다시 읽기	김상률 외	책세상	일반 전문	사회 과학	15,000
201	광고, 상품, 쇼핑의 노예들	전영우	청년사	일반 전문	사회 과학	10,000
202	지혜로운 부모의 멘토링	김중환	파미르	자녀교육	사회 과학	10,000
203	세계화 이후의 민주주의	컨터 그라스 외 /이승협	평사리	일반 교양	사회 과학	12,000
204	지리 교사들, 남미와 만나다	지리교육연구회 지평	푸른길	일반 교양 여행	사회 과학	18,000
205	안면도가 우리 학교야	김용성 외	푸른디딤돌	청소년	사회 과학	12,000
206	거짓말하는 사회	볼프강 라인하르트 /김현정	플래닛 미디어	일반 전문	사회 과학	13,000
207	서울대 김신일 교수의 교육생각	김신일	학지사	일반 교육학	사회 과학	9,000
208	당신들의 대한민국 2	박노자	한겨레출판	일반 교양	사회 과학	9,500
209	중국의 13억 경제학	한우덕	한국경제신문 한경BP	일반 교양	사회 과학	12,000
210	피터 드러커의 위대한 혁신	피터 드러커 /권영설 외	한국경제신문 한경BP	일반 경제경영	사회 과학	11,000
211	세종시대 ‘家’와 ‘國家’	이한수	한국학술 정보	일반 전문	사회 과학	20,000
212	21세기 아침의 사색	리영희	한길사	일반 교양	사회 과학	22,000
213	담론의 발견	고명섭	한길사	일반 전문	사회 과학	22,000
214	미디어로 여는 세상	강정훈 외	한나래	일반 전문	사회 과학	8,800
215	신화의 추락, 국익의 유령	원웅진 외	한나래	일반 교양	사회 과학	15,000
216	디자인 혁명	조동성 외	한스미디어	일반 전문	사회 과학	1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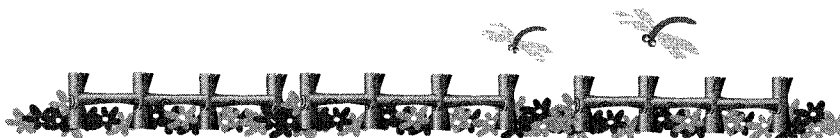


연번	서 명	저자/역자/편자	출판사명	대상분류	분야	가격
217	그래도 농촌이 희망이다	박진도	한울	일반 교양	사회과학	13,000
218	보스턴 일기	윤진호	한울	일반 교육일반	사회과학	16,000
219	통계와 함께 배우는 경제학	노택선, 김종렬	해남	일반 전문	사회과학	15,000
220	월든투	B.F 스키너 /이장호	현대 문화센타	일반 교양	사회과학	15,000
221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꽃 세밀화	이성아	현암사	일반 교양	사회과학	12,000
222	그래도 희망은 노동운동	하종강	후마니타스	일반 전문	사회과학	10,000
223	조봉암과 진보당	정태영	후마니타스	일반 역사	사회과학	19,000
224	침묵과 열광 - 황우석사태 7년의기록	강양구, 김병수, 한재각	후마니타스	일반 교양	사회과학	13,000
225	(그림으로 이해하는)우주과학사	혼다 시케치카 /조영렬	개마고원	일반 교양	순수과학	10,000
226	산학서로 보는 조선수학	장혜원	경문사	일반 전문	순수과학	20,000
227	암호론	김기항	경문사	일반 전문	순수과학	4,000
228	새로운 인문주의자는 경계를 넘으라	이인식 외	고즈원	일반 과학	순수과학	11,000
229	소리를 질러봐	최준곤 외	동아 사이언스	아동	순수과학	12,000
230	숲은 더 큰 학교입니다	최소영	랜덤하우스 코리아	청소년	순수과학	12,000
231-1	교양으로 읽는 과학의 모든 것1	강봉균 외 93명	미래M&B	청소년	순수과학	16,000
231-2	교양으로 읽는 과학의 모든 것2	강봉균 외 94명	미래M&B	청소년	순수과학	16,000
232	혼혈파워	앨런 지브/윤재석	부글북스	일반 교양	순수과학	10,000
233	에덴의 웅	칼 세이건/임지원	사이언스 북스	일반 과학	순수과학	15,000
234-1	세계명작 속에 숨어 있는 과학1	최원석	살림출판사	청소년	순수과학	9,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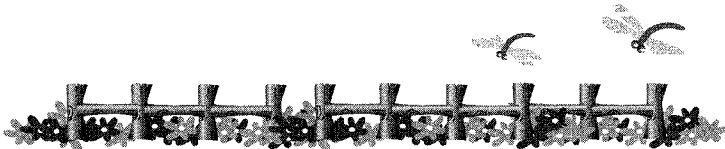
연번	서 명	저자/역자/편자	출판사명	대상분류	분야	가격
234-2	세계명작 속에 숨어 있는 과학2	최원석	살림출판사	청소년	순수 과학	9,800
235-1	놀랍다! 위대한 과학자1	레슬리 L. H. 외 /박영준 외	생각의 나무	청소년	순수 과학	8,300
235-2	놀랍다! 위대한 과학자2	레슬리 L. H. 외 /박영준 외	생각의 나무	청소년	순수 과학	8,300
235-3	놀랍다! 위대한 과학자3	레슬리 L. H. 외 /박영준 외	생각의 나무	청소년	순수 과학	8,300
235-4	놀랍다! 위대한 과학자4	레슬리 L. H. 외 /박영준 외	생각의 나무	청소년	순수 과학	8,300
235-5	놀랍다! 위대한 과학자5	레슬리 L. H. 외 /박영준 외	생각의 나무	청소년	순수 과학	8,300
235-6	놀랍다! 위대한 과학자6	레슬리 L. H. 외 /박영준 외	생각의 나무	청소년	순수 과학	8,300
235-7	놀랍다! 위대한 과학자7	레슬리 L. H. 외 /박영준 외	생각의 나무	청소년	순수 과학	8,300
235-8	놀랍다! 위대한 과학자8	레슬리 L. H. 외 /박영준 외	생각의 나무	청소년	순수 과학	8,300
235-9	놀랍다! 위대한 과학자9	레슬리 L. H. 외 /박영준 외	생각의 나무	청소년	순수 과학	8,300
235-10	놀랍다! 위대한 과학자10	레슬리 L. H. 외 /박영준 외	생각의 나무	청소년	순수 과학	8,300
236	시크릿 하우스	데이비드 보더니스 /김명남	생각의 나무	청소년	순수 과학	14,000
237	행성 이야기	데이바 소벨 /김육진	생각의 나무	일반 교양 과학	순수 과학	11,000
238	과학은 예술이다	보리스 카스텔 외 /이철우	아카넷	일반 전문	순수 과학	12,000
239-1	한 번은 꼭 읽어야 할 과학의 역사 1	존 그리빈 외 /최주연	에코리브르	청소년	순수 과학	15,000
239-2	한 번은 꼭 읽어야 할 과학의 역사 2	존 그리빈 외 /최주연	에코리브르	청소년	순수 과학	15,000
240	살아있는 유전자	크리스티아네 뉘슬 라인폴하르트/김기은	이치	청소년	순수 과학	15,000
241	스포츠 속에 과학이 쏙!!	손영운 외	이치	일반 교양	순수 과학	10,000
242	아름다운 우리 몸 사전	최현석	지성사	일반 교양 과학	순수 과학	28,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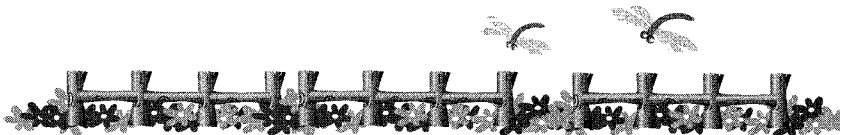
연번	서명	저자/역자/편자	출판사명	대상분류	분야	가격
243	철없는전자와 파란만장한 미토콘드리아&인류씨	서형	지성사	청소년	순수 과학	15,000
244	한국의 늑	강병국, 최종수	지성사	청소년	순수 과학	15,000
245	지구의 삶과 죽음	피터 워드 외 /이창희	지식의숲	일반 교양	순수 과학	13,900
246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실험 열 가지	로버트 P. 크리즈 /김명남	지호	일반 과학	순수 과학	15,000
247	췌! 바다의 비밀을 말해줄게	권수진 외	토토북	아동	순수 과학	8,500
248	느끼는 뇌	Joseph LeDoux /최준식	학지사	일반 전문	순수 과학	15,000
249	옛날 옛적에 아직 우주가 태어나기도 전에……	로버트 길모어 /이충호	한승	청소년	순수 과학	13,000
250	줄기 세포	크리스토퍼 T. 스콧/이한음	한승	청소년	순수 과학	13,000
251	뭐라고, 이게 다 유전자 때문 이라고?	리사 S./김소정	한얼미디어	청소년	순수 과학	12,000
252	내 DNA를 가지고 대체 뭘 하려는 거지?	데이비드 E. 던컨 /김소정	황금부엉이	일반 교양	순수 과학	13,500
253	아이들은 어떻게 말을 배우나	월리엄 오그레이디 /박경자	고려대학교 출판부	자녀교육	언어	15,000
254	역사가 새겨진 우리말 이야기	정주리 외	고즈원	일반 교양	언어	11,500
255	생각이 마음의 발을 가는 한자놀이	팽철호	글누림 출판사	일반 교양	언어	10,000
256	글쓰기의 전략	정희모, 이재성	들녘출판사	일반 인문	언어	13,000
257	재미있는 한국어 이야기	김진호	박이정 출판사	일반 교양	언어	17,000
258	우리말에 대한 예의	이진원	서해문집	일반 교양	언어	11,900
259	다른 듯 같은 듯	사이토 아케미	소화 출판사	일반 전문	언어	8,500
260	좋은 글, 좋은 말을 위한 우리말 활용사전	조항범	예담	일반 교양	언어	17,000
261	광고, 커뮤니케이션, 문화 마케팅	최용호 외	인간사랑	일반 전문	언어	2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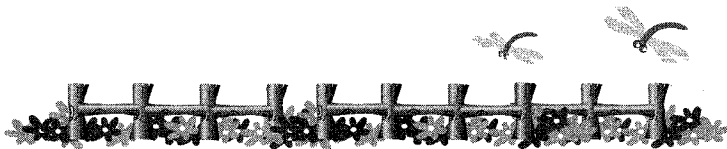
연번	서 명	저자/역자/편자	출판사명	대상분류	분야	가격
262	언어 속으로 : 장영준의 우리말 산책	장영준	태학사	일반 교양	언어	12,000
263	바른말 고운말2	KBS 한국어연구회	한국 방송출판	일반 교양	언어	12,000
264	통역 · 번역 핵심가이드북	김난미 외	현학사	일반 전문	언어	12,000
265	조선시대의 음식문화	김상보	가람기획	일반 역사	역사	15,000
266	역사를 아는 힘	한영우	경세원	일반 교양	역사	12,000
267-1	김병모의 고고학여행 1	김병모	고래실	청소년	역사	12,500
267-2	김병모의 고고학여행 2	김병모	고래실	청소년	역사	12,500
268	한국사, 나는 이렇게 본다	이이화	길	일반 교양	역사	18,000
269	가로세로 세계사 1	이원복	김영사	아동·청소년	역사	11,900
270	고구려의 역사	이종욱	김영사	일반 교양	역사	28,900
271	서동과 처용이 삼국유사를 박차고 나오다	전경원	꿈이있는 세상	일반 교양	역사	9,800
272	의산문답	홍대용/이숙경 외	꿈이있는 세상	일반 교양	역사	9,000
273	21세기 천황제와 일본	박진우	논형	일반 교양	역사	15,000
274	또 하나의 유산	정진해 외	놀와	일반 교양 역사	역사	15,000
275	문중양 교수의 우리역사 과학기행	문중양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	13,000
276	배움과 가르침의 끝없는 열정	국사편찬위원회	두산동아	일반 전문	역사	24,000
277-1	불의 기억1	에두아르도 G. /박병규	따님	일반 역사	역사	18,000
277-2	불의 기억2	에두아르도 G. /박병규	따님	일반 역사	역사	17,000
277-3	불의 기억3	에두아르도 G. /박병규	따님	일반 역사	역사	17,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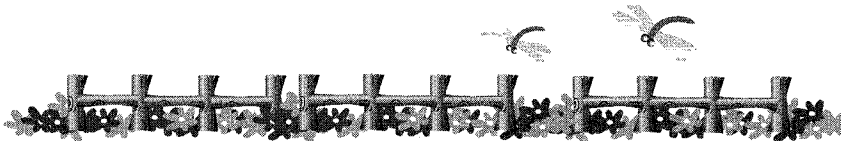
연번	서명	저자/역자/편자	출판사명	대상분류	분야	가격
278	천재 파티시에, 프랑스 요리의 왕	이안 켈리/채은진	말글빛냄	일반 교양	역사	18,000
279-1	마주 보는 한일사 1	전역교, 역교협	사계절 출판사	청소년	역사	12,000
279-2	마주 보는 한일사 2	전역교, 역교협	사계절 출판사	청소년	역사	12,000
280	서양- 위대한 창조자들의 역사	이바르 리스너 /김동수	살림출판사	일반 역사	역사	34,000
281	발해고	유득공/정진현	서해문집	일반 인문	역사	8,500
282	청소년을 위한 택리지	이중환/김홍식	서해문집	청소년	역사	8,500
283	로마가 만든 영웅들	플루타르코스 /천병희	숲	일반 역사	역사	15,000
284	만해 한용운 평전	김삼웅	시대의창	일반 교양	역사	16,500
285	혁명과 웃음	천정환 외 2인	앨피	일반 교양 역사	역사	14,800
286	동아시아 역사교과서는 어떻게 쓰여 있을까?	나카무라 사토루외 13명	에디터	일반 교양 역사	역사	12,000
287	중도의 길을 걷은 신민족주의자	김인식	역사공간	일반 교양	역사	10,000
288	역사용어 바로쓰기	역사비평 편집위원회	역사비평사	일반 전문	역사	12,000
289	위대한 양심	지그프리트 P. P. /김수은	열대림	일반 교양	역사	18,000
290	위대한 패배자	볼프 슈나이더 /박종대	을유문화사	일반 교양	역사	15,000
291	콜럼버스와 그 아들들의 세계	주느비에브 포스터 /남경태	이론과실천	아동	역사	12,800
292	커피견문록	스튜어트 리 앨런 /이창신	이마고	청소년	역사	17,000
293	한국과 중국, 오해와 편견을 넘어	이종민 외	제이앤씨	일반 교양	역사	16,000
294	주은래와 등영초	리홍 외 /이양자, 김형열	지식산업사	일반 교양	역사	18,000
295-1	항일노동운동의 선구자 서정희(상)	이성규	지식산업사	일반 전문서	역사	18,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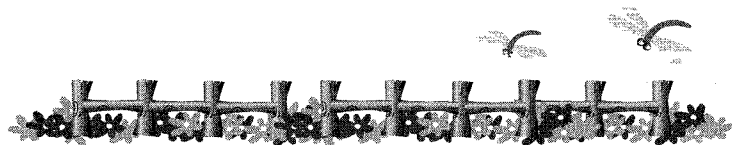
연번	서명	저자/역자/편자	출판사명	대상분류	분야	가격
295-2	항일노동운동의 선구자 서정희(하)	이성규	지식산업사	일반 전문서	역사	18,000
296	콜럼버스가 바꾼 세계	앨프리드 W. C. /김기윤	지식의숲	일반 교양	역사	19,800
297	귀족의 은밀한 사생활	이지은	지안출판사	일반 교양	역사	19,800
298	차 한잔에 담은 중국의 역사	강판권	지호출판사	일반 교양	역사	18,000
299-1	한국속의세계(상)	정수일	창비	일반 교양	역사	13,000
299-2	한국속의세계(하)	정수일	창비	일반 교양	역사	13,000
300	너는 누구냐? --신분 증명의 역사	발렌틴 그뢰브너 /김희상	청년사	일반 교양 역사	역사	18,000
301	도기 자기 도자기 우리 그릇 이야기	이지현	청년사	일반 교양 역사	역사	9,000
302	그래서 나는 김옥균을 쏘았다	조재곤	푸른역사	일반 인문	역사	14,500
303	서양의 역사에는 초야권이 없다	김응중	푸른역사	일반 역사	역사	15,000
304	앙코르와트의 모든것	이우상	푸른역사	일반 교양 여행	역사	19,500
305	영남을 알면 한국사가 보인다	역사학자 48인	푸른역사	일반 역사	역사	15,000
306	중국사의 대가, 수호전을 역사로 읽다	미야자키 이치사다 /차혜원	푸른역사	일반 인문	역사	14,500
307	중세산책	만프레트 라이츠 /이현정	플래닛 미디어	일반 역사	역사	19,800
308	그때 그 일본인들	다테노 아키라 /오정환	한길사	일반 교양 평전	역사	17,000
309	부와 권력을 찾아서	벤저민 슈워츠 /최효선	한길사	일반 역사	역사	18,000
310-1	삼국유사 1	전일봉	휴머니스트	청소년	역사	12,000
310-2	삼국유사 2	전일봉	휴머니스트	청소년	역사	12,000
311-1	조선의 문화공간1	이종묵	휴머니스트	일반 교양	역사	20,000



연번	서 명	저자/역자/편자	출판사명	대상분류	분야	가격
311-2	조선의 문화공간2	이종묵	휴머니스트	일반 교양	역사	22,000
311-3	조선의 문화공간3	이종묵	휴머니스트	일반 교양	역사	23,000
311-4	조선의 문화공간4	이종묵	휴머니스트	일반 교양	역사	23,000
312	정복의 법칙	데이비드 데이 /이경식	휴먼앤북스	일반 역사	역사	18,000
313	어둠의 방	송태효	고려대학교 출판부	일반 예술	예술	15,000
314	나를 울린 한국전쟁 100장면	김원일 외	눈빛출판사	일반 교양 역사 사진	예술	15,000
315	영화, 그림 속을 걷고 싶다	한창호	돌베개	일반 예술	예술	18,000
316	한국의 美를 다시 읽는다	권영필 외	돌베개	일반 교양	예술	20,000
317	청소년을 위한 한국음악사 (양악편)	민경찬	두리미디어	청소년	예술	15,000
318	동양의 타이포그래피, 문자도	이명구	리디아	일반 교양 예술	예술	300,000
319	레니 리펜슈탈, 금지된 열정	오드리 설킬드 /허진	마티	일반 예술	예술	20,000
320	KBS FM 월드뮤직	장옥남 외	문학사상사	일반 예술 대중문화	예술	13,800
321	탄초테아터	수잔네 솔리허 /박균	범우사	일반 예술	예술	10,000
322	에로스와의 타나토스	조용훈	살림출판사	일반 예술	예술	15,000
323	내가 좋아하는 장소에게	이민아	샘터사	아동	예술	10,000
324	축제, 세상의 빛을 담다	김규원	시공사	일반 예술	예술	15,000
325	광대부 아트 -디지털 시대의 예술을 만나다	이광록, 여경환	아트북스	일반 예술	예술	15,000
326	한국연극전사	서연호	연극과인간	일반 전문	예술	20,000
327	현대일본희곡집 2	한일연극 교류협의회	연극과인간	일반 전문	예술	1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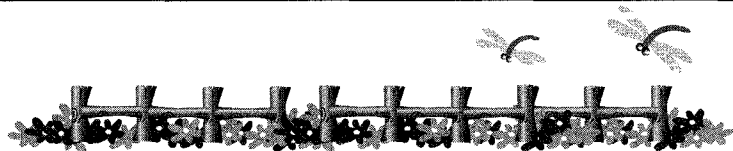


연번	서 명	저자/역자/편자	출판사명	대상분류	분야	가격
328	음악회에 대해 궁금한 몇 가지	크리스티아네 T. /함수옥	열대림	일반 교양	예술	12,500
329	미의 역사	움베르토 에코 /이현경	열린책들	일반 예술	예술	39,000
330	건축이란 무엇인가	승효상 외	열화당	일반 교양	예술	15,000
331	트뤼포: 시네필의 영원한 초상	앙투안 드 베크 외 /한상준	윌유문화사	일반 교양 평전	예술	30,000
332	세계명상음악순례	김진묵	정신세계사	일반 예술	예술	10,000
333	학교 안의 미술 학교 밖의 미술	제임스 엘킨스 /장호연	책세상	일반 전문	예술	15,000
334	바르바와 오단극단의 연극여정	유제니오 바르바 /장인숙	평민사	일반 예술	예술	18,000
335	획곡창작의 길잡이	이강백 윤조병	평민사	일반 전문	예술	10,000
336	왜 공공미술인가	박삼철	학교재	일반 예술	예술	20,000
337	90년대를 빛낸 명반 50	신승렬 외	한울	일반 교양	예술	18,000
338	당신의 서울은 어디입니까?	황두진	해냄	일반 예술 대중문화	예술	10,000
339	유명한 스타와 예술가는 왜 서로를 탐하는가	존 A. 워커 /홍옥숙	현실 문화연구	일반 예술 대중문화	예술	16,500
340-1	삼인삼색 미학오디세이 1	현태준 외	휴머니스트	청소년	예술	10,000
340-2	삼인삼색 미학오디세이 2	현태준 외	휴머니스트	청소년	예술	12,000
340-3	삼인삼색 미학오디세이 3	현태준 외	휴머니스트	청소년	예술	11,000
341	러시아 정교 - 역사 · 신학 · 예술	석영중	고려대학교 출판부	일반 종교	종교	17,000
342	선방에서 길을 물었더니	서화동	고즈원	일반 종교	종교	12,800
343	마음의 진보	카렌 암스트롱 /이희재	교양인	일반 인문	종교	20,000
344	불교의 향기, 그 다섯 아름다움	정동주	다른세상	일반 예술	종교	1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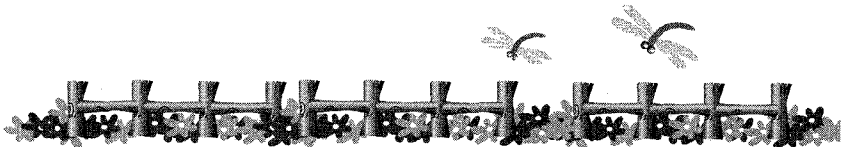


연번	서 명	저자/역자/편자	출판사명	대상분류	분야	가격
345	40년의 벽을 넘어	김남식 외 1인	대한 기독교서회	일반 종교	종교	8,000
346	동양신화 백과사전	레이첼 스톰/김숙	루비박스	일반 교양 신화	종교	28,900
347	숨겨진 복음서, 영지주의	일레인 페이지즈 /하연희	루비박스	일반 종교	종교	10,800
348	선화 - 마음이 단순해지는	김홍근	마음산책	일반 교양답사기	종교	12,000
349	자연과 사람 사이 절	윤제학	명상	일반 예술 절	종교	13,500
350	성書の 역사	크리스토퍼 D. H. /이종인	미메시스	일반 종교	종교	45,000
351	라틴아메리카 신화와 전설	박종욱	바움	전설 일반	종교	10,000
352	스페인 종교재판소	박종욱	부산외국어 대학교출판부	일반 종교	종교	8,000
353	우리 곁에서 만나는 동서양 신화	이경덕	세계절 출판사	청소년	종교	12,000
354	라인홀드 니버	이상원	살림출판사	일반 전문 평전	종교	10,000
355	초록의 공명	지율	삼인	일반 교양	종교	12,000
356	붓다, 나를 흔들다	법륜	산티	일반 종교	종교	10,000
357	구약성서, 명화를 만나다	키아라 데 카포아 /김숙	예경	일반 예술 종교	종교	18,600
358	이슬람 문명의 이해	공일주	예영 커뮤니케이션	일반 교양	종교	9,000
359	나의 선어99	홍사중	이다미미디어	일반 종교	종교	13,000
360	세계 종교의 문을 열다	류상태	인물과사상	청소년	종교	8,500
361	누구를 위한 종교인가 -종교와 심리학의 만남	권수영	책세상	일반 교양	종교	3,900
362	성경 왜곡의 역사	바트 어만/민경식	청림출판	일반 종교	종교	14,000
363	종교의 시작은?	실비 지라르데 /이효숙	초록개구리	일반 종교	종교	8,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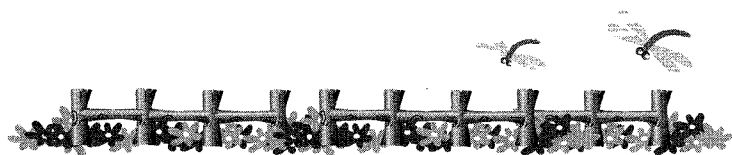
연번	서 명	저자/역자/편자	출판사명	대상분류	분야	가격
364	한국 교회 처음 이야기	이덕주	홍성사	일반 교양	종교	9,800
365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권창은 외	고려대학교 출판부	일반 전문	철학	9,000
366	공자 속의 붓다, 붓다 속의 공자	박민영	들녘출판사	일반 인문	철학	9,000
367	루소, 학교에 가다	조상식	디딤돌	청소년	철학	8,500
368	부탁해요,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의 과학철학	장 클로드 K. /이세진	모티브북	청소년	철학	12,800
369	포월과 소내의 미학	김진석	문학과 지성사	일반 예술 대중문화	철학	18,000
370	주역 마음 속에 마르지 않는 우물을 따라	심의용	살림출판사	일반 교양 고전	철학	12,000
371	영화 속의 청소년	신민섭 외	서울대학교 출판부	일반 부모교육	철학	10,000
372	욕망의 힘	빌리 파시니 /이옥주	에코리브르	일반 철학	철학	13,500
373	평등(21세기를 위한 주제 02)	알렉스 캘리니코스 /선우현	울력	일반 전문	철학	11,000
374	고통에게 따지다	유호종	웅진씽크빅	일반 교양	철학	12,000
375	철학, 역사를 만나다	안광복	웅진씽크빅	청소년	철학	9,800
376-1	유레카1	카를 Y. D. /김희상	유토피아	청소년	철학	9,000
376-2	유레카2	카를 Y. D. /김희상	유토피아	청소년	철학	9,000
377	철학적 산문	소흥렬	이화여자 대학교출판부	일반 전문	철학	12,000
378	오늘 우리는 왜 니체를 읽는가	정동호 외	책세상	일반 전문	철학	25,000
379	숲께 드리는 숲의 철학	숲과문화연구회	철학과 현실사	일반 철학	철학	20,000
380	여신 미네르바의 진리파일	이수정	철학과 현실사	일반 철학	철학	10,000
381	철학과 인문학의 대화	황수영	철학과 현실사	일반 전문철학	철학	12,000



연번	서 명	저자/역자/편자	출판사명	대상분류	분야	가격
382	오해의 심리학	오드리 넬슨 외 /김경숙	친구미디어	일반 교양	철학	12,000
383	예수, 노자를 만나다	이명권	코나투스	일반 교양	철학	12,000
384	대담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만나다	도정일 외	휴머니스트	일반 교양	철학	25,000
385-1	책으로 보는 SBS 잘먹고 잘사는 법 1	SBS 제작팀	가치창조	일반 실용	총류	12,000
385-2	책으로 보는 SBS 잘먹고 잘사는 법 2	SBS 제작팀	가치창조	일반 실용	총류	12,000
386	건강상식 오류사전	우도 폴머 외 /이혜원	경당	일반 교양 상식	총류	12,000
387	철도관련큰사전	백남옥, 이상진	골든벨	일반 전문	총류	45,000
388	설화의 재발견	모봉구	눈과 마음	일반 설화	총류	9,800
389	세계 최고의 게임크리에이터 9인의 이야기	김정남, 김정현	대림	청소년	총류	12,000
390	책사냥꾼 : 어느 책중독자의 수다	존 백스터/서민아	동녘	일반 교양	총류	14,500
391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사람으로 키운다	전혜성	랜덤하우스 코리아	자녀교육	총류	9,800
392	세계를 배우는 어린이 지도	김만곤 외	랜덤하우스 코리아	아동	총류	15,000
393	나는 비범한 인간을 만들고 싶다	박태건	뷰스	청소년	총류	9,000
394	최고의 고전 번역을 찾아서	교수신문	생각의 나무	일반 전문	총류	18,000
395	놀이로 이해하는 우리 아이	김광웅 김화란	숙명여대 출판국	자녀교육	총류	15,000
396	오리와 부엉이	한나 요한젠 /임정희	예원미디어	아동	총류	8,000
397	세계의 역사기념시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오름	일반 교양	총류	18,000
398	지상의 아름다운 도서관	최정태	한길사	일반 교양	총류	20,000
399	을 땀 와인	조정웅	해냄	일반 요리	총류	19,800



연번	서 명	저자/역자/편자	출판사명	대상분류	분야	가격
400-1	동양의 고전을 읽는다1	한형조 외 65인	휴머니스트	청소년	총류	13,000
400-2	동양의 고전을 읽는다2	한형조 외 66인	휴머니스트	청소년	총류	13,000
400-3	동양의 고전을 읽는다3	한형조 외 67인	휴머니스트	청소년	총류	14,000
400-4	동양의 고전을 읽는다4	한형조 외 68인	휴머니스트	청소년	총류	14,000



들마음 (제 5호)

발행일 : 2006. 12

발행인 : 중앙문화정보센터 소장 조희동

편집인 : 자료 봉사과

발행처 : 성남시중앙문화정보센터

주 소 : 성남시 분당구 하탑로 106

전 화 : 031) 709-9154

팩 스 : 031) 709-4183

〈비매품〉



성남시중앙문화정보센터

중 앙 도 서 관

성남시 분당구 하탑로 106
TEL. 031) 709-9154
<http://www.sncentrallib.or.kr>

분 당 도 서 관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66
TEL. 031) 718-5915~7
<http://www.snbundanglib.or.kr>